

2002. 1.27 결의대회

특집좌담 개혁과 위기의 의료계 / 68p

경북의사회보

2 제 26 호 / 2002

702 - 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 2동 404-4
TEL : (053) 941 - 7785
FAX : (053) 941 - 5557

謹賀新年

慶尙北道醫師會

會長	邊永宇	議長	李元基
副會長	劉東明	副議長	金洪祚
〃	安吉龍	〃	金敎聖
〃	李錫均	監事	金弘泰
〃	鄭弼鉉	〃	鄭能秀
〃	高貞美		
企劃理事	鄭萬鎭	公報理事	宋在永
學術理事	李永鉉	情報理事	金璋熙
財務理事	千鍾郁	理事	金東旭
法制理事	白承仁	〃	權五一
保險理事	金鍾浩	〃	兪炳烈
醫務理事	文信吉	〃	白斗鉉

謹賀新年



담은 내용

3p	임원명단	경상북도의사회
8p		시 · 군의사회 회장명단
10p		시군별 병원장 명단
15p	신년사	변영우 / 이원기 / 신상진
21p	작품사진	윤태권
23p	시	검은나비의 춤 / 손장락
		위안 혹은 착각 / 김의홍
		無醫村에서 / 안길룡
		해바라기 / 남성대
27p	수필	彩孝日記 / 빈남수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 정만진
		김시녀(金市女) / 전 민
		나의사랑 문경시민 클래식 기타 합주단 /정명근
		「한티재하늘」을 읽고 / 김재왕
		경주시의사회 야유회를 다녀와서 / 손형석
		골프斷想 / 박창로
		난초, 그 편견없는 화신 / 백두현
51p	방문기	16회 경북 · 전북의사회
		친선행사방문기 / 최유근
53p	연수기	미시간 대학병원 연수기 / 이경섭
58p	시론	의사의 품위 / 신은식
		신념의 혼돈 / 김태원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 및
		그개정(안)에대한의의와 우리들의 바램 / 김두희
66p	삼행시	23회 의학제 삼행시
68p	특집좌담	개혁과 위기의 의료계
81p	화보	6.3대회 및 1.27대회
90p	회무소식	
127p	회장동정	
129p	회원동정	
132p	정보안내	의료관련 사이트
134p	성명서	
148p	편집후기	

의사윤리 선언

우리 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을 인류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에 우리는 의사 본연의 사명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행함으로써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환자와 의사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동료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상호 존중하고 협조함으로써 올바른 의사의 길을 구현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걸맞은 의료환경을 온 국민과 함께 추구함으로써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드높인다.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지켜 의업의 존재 의미와 의사의 존엄성을 확립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대 한 의 사 협 회



변 영 우 회장



유 동 명 부회장



안 길 룡 부회장



이 석 균 부회장



정 필 현 부회장



고 정 미 부회장



정 만 진 기획이사



이 영 현 학술이사



천 종 욱 재무이사



백 승 인 법제이사



김 종 호 보험이사



문 신 길 의무이사



송 재 영 공보이사



김 장 희 정보이사

의 장 단



이 원 기 의장



김 홍 조 부의장



김 교 성 부의장

감 사



백 명 규 감사



김 홍 태 감사



정 능 수 감사

집 행 부



김 동 욱 이사



권 오 일 이사



유 병 렬 이사



백 두 현 이사

◆ 의장단 명단(제11대) (2000. 4. 1~2003. 3. 31)

직 위	성 명	의 원 명	병원전화	휴 대 폰	주 소
의 장	이 원 기	이원기외과의원	272-1919	011-9593-9507	포항시 북구 죽도1동 41-7
부 의 장	김 홍 조	김홍조외과의원	452-4239	011-9501-3872	구미시 원평2동 158-8
	김 교 성	김내과의원	632-0999	017-803-6465	영주시 영주4동 531-4

경상북도의사회 임원명단

◆ 임원명단(제38대) (2000. 4. 1~2003. 3. 31)

직 위	성 명	의 원 명	병원전화	휴 대 폰	주 소
회 장	변 영 우	선 린 의 원	742-9960	011-523-9960	경주시 서부동 180-1
부 회 장	유 동 명	유동명정형외과	859-6737	011-522-0072	안동시 동부동 152
	안 길 룡	안외과의원	432-9999	017-812-8066	김천시 남산동 16-5
	이 석 균	청십자의원	815-7077	011-523-7077	경산시 중방동 538-3
	정 필 현	동국대 경주병원	748-9300	011-518-7229	경주시 석장동 1090-1
	고 정 미	고내과의원	272-4455	017-533-9074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5-2
기획이사	정 만 진	정만진소아과의원	332-7755	011-506-6427	영천시 완산동 987-41
학술이사	이 영 현	동국대 경주병원	748-9300	017-517-5142	경주시 석장동 1090-1
재무이사	천 종 욱	천내과의원	771-0503	017-539-0503	경주시 동부동 113-3
법제이사	백 승 인	백승인소아과	746-0002	016-583-0029	경주시 성건동 340-22
보험이사	김 종 호	김종호신경정신과	282-7575	011-511-5090	포항시 남구 대도동 19-18
의무이사	문 신 길	문신길내과의원	283-7575	011-9588-7576	포항시 남구 해도1동 431-7
공보이사	송 재 영	송재영외과의원	373-0111	011-9370-3684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78-60
정보이사	김 장 희	김장희산부인과	749-4382	011-548-4592	경주시 동부동 113-10
이 사	김 동 욱	김소아과의원	455-4080	011-9589-4080	구미시 원평2동 96-1
	권 오 일	중앙산부인과	854-6050	011-522-5513	안동시 법상동 208
	유 병 렬	현대제통의원	284-2849	017-234-0328	포항시 남구 대도동 93-4
	백 두 현	고령백의원	954-3669	011-522-0614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500

◈ 감 사

감 사	백 명 규	백외과의원	261-9391	011-9586-7843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326-8
	김 홍 태	김홍태내과의원	533-5858	011-9576-5859	상주시 냉림동 364-11
	정 능 수	동산연합의원	861-0076	016-803-195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49

중앙(의협)대의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정 대의원	신 은 식	신정형외과의원	054	247-3397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29
	이 원 기	이원기외과의원	〃	272-1919	포항시 북구 죽도 1동 41-7
	변 영 우	선 린 의 원	〃	742-9960	경주시 서부동 180-1
	유 동 명	유동명정형외과의원	〃	859-6737	안동시 동부동 152
	정 만 진	정만진소아과의원	〃	332-7785	영천시 완산동 987-41
	김 옥 배	김옥배정형외과의원	〃	452-5665	구미시 원평동 534-8
교 체 대 의 원	이 웅 렬	이웅렬이비인후과의원	〃	555-4797	문경시 점촌동 245-9
	권 세 홍	권방사선과의원	〃	855-8444	안동시 서부동 72-2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위 원 장	김 옥 배	김옥배정형외과의원	054	452-5665	구미시 원평동 534-8
위 원	김 교 성	김 내 과 의 원	〃	632-0999	영주시 영주4동 531-4
	김 지 홍	김지홍정형외과의원	〃	277-757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8-1
	권 세 홍	권방사선과의원	〃	855-8444	안동시 서부동 72-2
	하 달 봉	동국대 포항병원	〃	273-8111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
	박 영 복	동국대 경주병원	〃	748-9300	경주시 석장동 1090-1

경상북도 윤리위원회 위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위원장	신은식	신정형외과의원	054	247-3397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29
부위원장	유동명	유동명정형외과의원	〃	859-6737	안동시 동부동 152
위 원	최종두	최정형외과의원	〃	857-9964	안동시 남부동 169-5
	정만진	정만진소아과의원	〃	332-7755	영천시 완산동 987-41
	백승인	백승인소아과의원	〃	746-0002	경주시 성건동 340-22
	문신길	문실길내과의원	〃	283-7575	포항시 남구 해도1동 431-7
	김종호	김종호신경정신과의원	〃	282-7575	포항시 남구 대도동 19-18
	손병욱	손병욱내과의원	053	815-7900	경산시 중방동 862-3
	윤태권	윤소아과의원	054	857-6510	안동시 옥동 638-1
	김지홍	김지홍정형외과의원	〃	277-757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8-1
	김옥배	김옥배정형외과의원	〃	452-5665	구미시 원평동 534-8
	이웅렬	이웅렬이비인후과의원	〃	555-4797	문경시 점촌동 245-9
	허 석	김천방사선과의원	〃	432-3314	김천시 평화동 245-27
	심재철	동국대경주병원	〃	748-9300	경주시 석장동 1090-1
	권순훤	한동대선린병원	〃	245-5000	포항시 북구 대신동 69-7

본회 및 시군 사무직원 명단

구 분	직 책	성 명	DDD	전 화	주 소
경상북도의사회	사무국장	박 재 영	053	941-7785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서 무	허 명 숙	〃	941-7785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서 무	김 태 희	〃	941-7785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포항시의사회	사 무 장	김 두 중	054	281-0990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5-7
	서 무	이 수 진	〃	281-0990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5-7
경주시의사회	간 사	이 지 형	〃	774-9991	경주시 서부동 255-31
안동시의사회	간 사	윤 진 영	〃	857-6911	안동시 북문동 470
구미시의사회	간 사	박 민 희	〃	457-7646	구미시 원평동 534-8

시 · 군 의사회 회장명단

(2002. 2. 28 현재)

시군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휴대폰	주 소
포항시	이원기	이원기외과의원	054	272-1919	011-9593-9507	포항시 북구 죽도1동 41-7
경주시	백승인	백승인소아과의원	〃	746-0002	016-583-0029	경주시 성건동 340-22
김천시	허 석	김천방사선과의원	〃	432-3314	011-528-6825	김천시 평화동 245-27
안동시	권오일	중앙산부인과의원	〃	854-6050	011-522-5513	안동시 법상동 208
구미시	김종국	경북정형외과의원	〃	452-1985	011-4366-1985	구미시 원평동 1064-4
영주시	조영호	조정형외과의원	〃	634-3375	011-804-3375	영주시 영주4동 536-2
영천시	정만진	정만진소아과의원	〃	332-7755	011-506-6427	영천시 완산동 987-41
상주시	김 량	가톨릭정형외과의원	〃	535-8275	011-522-0651	상주시 무양동 274
문경시	정명근	정명근외과의원	〃	552-0055	018-535-0767	문경시 점촌동 355-10 7/4
경산시	최정규	최내과김방사선과	053	811-9926	011-9591-2337	경산시 중방동 863-12
군위군	김병곤	김병곤내과의원	054	383-9966	011-808-9966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 42
의성군	김일환	김일환내과의원	〃	834-5102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72-5
청송군	정 철	대구신경과의원	〃	873-1407	011-821-9628	청송군 청송읍 월막2리 357-3
영양군	권영대	영양병원	〃	682-0727	011-523-6547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00-1
영덕군	서창수	서창수외과의원	〃	733-7595	011-9570-7596	영덕군 영덕읍 남석3리 1-3
청도군	정철희	현대의원	〃	373-2616	019-325-5712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820
고령군	백두현	고령백의원	〃	954-3669	011-522-0614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500
성주군	성하경	성하경내과의원	〃	933-3223	011-529-3223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093-11
칠곡군	김상관	김상관소아과의원	〃	973-5556	017-230-7365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75-10
예천군	백승기	성누가의원	〃	653-5559	019-503-3579	예천군 용군면 읍부리 298-7
봉화군	장명준	장내과의원	〃	673-2332	017-279-9168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419-30
울진군	김신일	경북의원	〃	787-7775	011-339-7821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167-8

시 · 군 의사회장


이원기 포항회장


백승인 경주회장


허 석 김천회장


권오일 안동회장


김종국 구미회장


조영호 영주회장


정만진 영천회장


김 량 상주회장


정명근 문경회장


최정규 경산회장


김병곤 군위회장


김일환 의성회장


정 철 청송회장


권영대 영양회장


서창수 영덕회장


정철희 청도회장


백두현 고령회장


성하경 성주회장


김상관 칠곡회장


백승기 예천회장


장명준 봉화회장


김신일 울진회장

시군별 · 병원 명단

(2002. 2. 28현재)

시군별	병 원 명	원 장 명	DDD	전 화	주 소
포항시	동국대포항병원	이 창 우	054	273-8111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
	한동대선린병원	배 효 근	〃	245-5000	포항시 북구 대신동 69-7
	포항성모병원	장 석 범	〃	272-0151	포항시 남구 대잠동 270-1
	포항기독병원	한 동 선	〃	275-0005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5
	포항의료원	변 승 열	〃	247-0551	포항시 북구 용흥1동 315
	사 랑 병 원	문 충 배	〃	277-3311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5
	늘열린동산병원	박 영 대	〃	262-0770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96-1
	제 일 병 원	김 상 돈	〃	292-9264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51-35
경주시	동국대경주병원	정 필 현	〃	748-9300	경주시 석장동 1090-1
	경주동산병원	권 태 찬	〃	770-9500	경주시 서부동 147-2
	안강중앙병원	정 수 기	〃	763-800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784-4
	현 대 병 원	김 종 원	〃	745-8118	경주시 성건동 211-4
김천시	김천의료원	송 달 효	〃	432-8901	김천시 모암동 85
	김천제일병원	강 병 직	〃	420-9300	김천시 신음동 462-14
	김천신경정신병원	정 근 재	〃	432-5040	김천시 응명동 957
	신애정신병원	최 영 택	〃	435-6009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632-1
안동시	안 동 병 원		〃	821-1101	안동시 용상동 1592-31
	안동성소병원	강 원 희	〃	857-2321	안동시 금곡동 177
	안동의료원	신 현 수	〃	858-8951	안동시 북문동 470
	안동여성병원	김 두 표	〃	820-3101	안동시 용상동 1445-1
	류 병 원	류 동 근	〃	851-1000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482
	안동노인전문병원	현 동 우	〃	859-3020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364
구미시	순천향구미병원	이 길 노	〃	463-7151	구미시 공단동 250
	구미차병원	이 현 우	〃	450-9700	구미시 형곡동 855
	고 려 병 원	신 재 학	〃	453-7575	구미시 원평동 1036-9
영주시	영주성누가병원	박 시 균	〃	633-6011	영주시 영주2동 536-4
	영주기독병원	서 익 제	〃	635-6161	영주시 영주2동 547-2

시군별 · 병원 명단

시군별	병 원 명	원 장 명	DDD	전 화	주 소
영천시	영대영천병원	한 승 세	054	338-9000	영천시 오수동 307
	마야정신병원	김 경 승	〃	336-3311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236-5
	푸른솔병원	하 만 권	〃	331-5810	영천시 망정동 179-1
상주시	상주적십자병원	김 원 기	〃	534-3501	상주시 남성동 33-27
	상주성모병원	성 부 홍	〃	532-5001	상주시 냉림동 350-5
문경시	문경제일병원	임 철 재	〃	550-7700	문경시 모전동 188
경산시	경 상 병 원	정 다 출	053	819-0300	경산시 백천동 4-2
	경산노인전문병원	김 거 형	〃	819-0782	경산시 상방동 242-3
군위군	군위삼성병원	황보호준	054	383-3531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 111-2
의성군	공 생 병 원	김 선 영	〃	834-3881	의성군 의성읍 후죽동 475-3
	제 남 병 원	송 오 달	〃	832-2036	의성군 봉양면 화전동 90-21
	영남제일병원	김 인 기	〃	861-911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3
청송군	청송보건의료원	남 시 현	〃	870-7100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54
영양군	영 양 병 원	권 영 대	〃	682-0727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00-1
영덕군	영 덕 병 원	김 연 수	〃	730-0151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133-3
	영덕제일병원		〃	732-7717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322-2
청도군	청도대남병원	김 세 현	〃	373-0606	청도군 대남면 범곡리 100-1
고령군	고령영생병원		〃	955-2661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 201-6
성주군	성주세강병원	김 징 균	〃	933-2064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5
칠곡군	혜원성모병원	김 의 원	〃	979-7114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910-12
	왜 관 병 원		〃	971-1002	칠곡군 왜관읍 왜관10동 174-54
	시몬정신병원	박 용 진	〃	976-0402	칠곡군 왜관읍 금남2리 315-1
예천군	예천권병원	권 규 호	〃	654-6611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60-2
봉화군	해 성 병 원		〃	679-1234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426-6
울진군	울진보건의료원	지 청 현	〃	783-1250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63-5
울릉군	울릉보건의료원		〃	791-2110	울릉군 울릉읍 도동2리 176

종합병원 · 병원장

대학병원
(병원가나다순)


권 태 찬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정 필 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이 창 우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이 길 노
순천향대학교
(순천향구미병원)


한 승 세
영남대학교
(영대영천병원)


이 현 우
포천중문의대
(구미차병원)


배 효 근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병원(지역병원)


박 영 대
(늘열린동산병원)


문 충 배
(사랑병원)


김 상 돈
(제일병원)


한 동 선
(포항기독병원)


장 석 범
(포항성모병원)


변 승 열
(포항의료원)


정 수 기
(안강중앙병원)


김 종 원
(현대병원)


정 근 재
(김천신경정신병원)


송 달 효
(김천의료원)



강 병 직
(김천제일병원)



최 영 택
(신애정신병원)



류 동 근
(류병원)



현 동 우
(안동노인전문병원)



강 원 희
(안동성소병원)



김 두 표
(안동여성병원)



신 현 수
(안동의료원)



신 재 학
(고려병원)



서 익 제
(영주기독병원)



박 시 균
(영주성누가병원)



김 경 승
(마야정신병원)



하 만 권
(푸른솔병원)



성 부 홍
(상주성모병원)



김 원 기
(상주적십자병원)



임 철 재
(문경제일병원)



김 거 형
(경산노인전문병원)



정 다 출
(경상병원)



황보호준
(군위삼성병원)



김 선 영
(공생병원)



김 인 기
(영남제일병원)

종합병원 · 병원장



송 오 달
(제남병원)



남 시 현
(청송보건의료원)



권 영 대
(영양병원)



김 연 수
(영덕병원)



김 세 현
(청도대남병원)



김 징 균
(성주세강병원)



김 의 원
(혜원성모병원)



권 규 호
(예천권병원)



지 청 현
(울진보건의료원)

본회 및 시군 사무직원



박 재 영
(경북도 사무국장)



허 명 숙
(경북도 여직원)



김 태 희
(경북도 여직원)



김 두 중
(포항시 사무장)



이 수 진
(포항시 여직원)



이 지 형
(경주시 여직원)



윤 진 영
(안동시 여직원)



박 민 희
(구미시 여직원)

신상진 의협회장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변 영 우
(경상북도의사회장)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앞바다 수평선 저 넘어 힘차게 솟아 오르는 붉은 해처럼, 희망 찬 2002년 새해에 회원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과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새해에는 대망의 월드컵대회, 아시안 게임, 지방자치선거, 대통령 선거 등 국운이 걸린 국가적 대사가 잇달아 열립니다.

모두 다 함께 한마음으로 화합해 성공적으로 치루어 냅시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축하하는 덕담 만으로 시작하기로는 우리 의료계의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가 모두 불안 해서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집권층의 도덕성은 추락 할 대로 추락했고 국정은 정치 싸움으로 표류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로 나라경제도 어렵습니다. 나라사정이 어려우니 국민의 복지와 의료의 백년대계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의료계는 아직도 얼어 붙은 의료환경과 의사들을 옥죄는 의료정책에 힘겨워 하며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의 실정이며 대통령까지 그 정책 판단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건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실패한 의약분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패한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 남용도 막지 못했고, 국민의 의료보험료는 더욱 증가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 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파탄의 원인이 의사들의 지나친 숫가 인상과 허위청구로 인한 결과 인양 선전하면서, 보험재정파탄 개선 명목으로 의료계에 이미 약 1조원의 숫가 인하와 무차별한 진료비 부당삭감을 감행하고 의료계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의 처방을 받은 일반의약품도 국민들의 보험 혜택에서 제외시키고 일반의약품의 품목도 대폭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회수하지도 못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공적 자금에는 수십조씩 탕진하면서도, 파탄 난 의료보험재정을 보충 하기 위해 기껏 병든 환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의약분업은 오로지 국민과 의사만 멍 들게 했고, 그 책임을 의사와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현행 실패한 의약분업을 전면 철폐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의약분업을 만들 것을 결의 했습니다.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 된 신상진 의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한 의료법 개정안을 악법임을 천명하고,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고 현행 잘못된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강행 했습니다만, 건강을 해치어 단식 투쟁 10일만에 회원들에 의해 강제 입원하셨습니다. 건강을 회복 하면 다시 여러분들의 선두에 서서 신명을 걸고 투쟁을 이

끄실 것입니다.

만약 이 의료악법이 통과되고 현행 잘못 된 의약분업이 계속 강행된다면, 국민들은 진료다운 진료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의사들은 소신 껏 진료할 수 없으며, 정부가 강제하는 대로 부실 진료를 하도록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신 진료를 하려는 의사들에게 사법적 절차 없이도 복지부 장관이 자의적 판단만으로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스스로 현 의료보험 숫가가 원가의 90%정도라고 여러번 발표하고도, 의료보험 숫가 계약에 앞서서는 객관성 없는 모 대학 경영연구소 결과를 흘리고, 공단의 부정확한 통계로 개원의사들의 평균 수입을 터무니 없게 높게 올려 언론을 통해 의료계를 매도하면서 의료 숫가를 낮게 계약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잘못 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정치적인 참여와 사회 봉사활동도 더욱 강화해 국민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신상진 의협회장은 강한 의협을 만들고 의협이 명실 상부한 정책 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 연구소를 출범시키고, 또 의료계의 주장이 정책에 많이 반영 하도록 의협을 정치 세력화 하기 위해 정치활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이제 진정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능동적으로 정책에 참여 하기 위하여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을 때입니다. 또 우리 의사들을 이해하고 대변 할 수 있는 정치가들을 후원하고 지지합시다. 내년 선거에서 꼭 실패한 의약분업을 심판 합시다.

신상진 회장은 의권수호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적, 경제적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새 집행부에 힘을 실어 줍시다. 회원 모두가 자기에게 부여 된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경상북도의사회와 저는 의료계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감수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국민 건강수호와 진료권 확보를 위해, 실추 된 의료계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단결해서 투쟁합시다. 국민건강권, 의사 진료권, 화합 단결, 투쟁,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사들에게 주어진 화두이며 역사적 소명입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2. 1.

한마음 한뜻으로 뭉칩시다.



이 원 기
(경상북도의사회 의장)

2002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님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힘찬 한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1년 한해는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모두와 우리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암담함과 억울함이 하늘을 뒤덮은 해였습니다.

지난 두어해 동안 우리 의료계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피나는 투쟁을 하여왔으며, 우리는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토록 외치고 싸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환경은 조금도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2000년 한해 동안 우리의 처절한 투쟁으로 이끌어낸 의.정합의안은 2001년이 시작되면서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으며, 지난해 4월에 접어들면서 건강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자, '정부의 의료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김대중대통령이 사과를 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이 있었음에도, 이와는 달리 '의약분업의 실패'가 오로지 의사들의 책임이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태입니다.

정부는 태도는 여전합니다. 정책자체는 매우 훌륭한 제도인데 의사들의 요구에 따른 지나친 수가인상과 의사들의 '부당하고 허위스런 청구'가 의료보험재정 파탄의 주원인이라고 우기며 의사들을 옥죄고 있을 뿐 아니라, 7월부터는 '건보재정안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수가를 낮추기 위하여 혈안이 되다시피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원의를 가, 나, 다 군으로 나누고, 1일 당 환자수에 따라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진료지침서'라는 심사평가원의 처방안내서를 따르라고 강요할 뿐 아니라, 어명(?)에 벗어나면 가차없이 부당, 허위 청구로 몰아 깍아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근간에는 수가계약을 앞둔 시점에 터무니없는 모 경영연구소가 조사한 것을 언론에 내어놓고 개원의의 평균 소득이 3000만원이 된다고 떠들고 있으니, 이것이 국민들과 우리 의사들 사이를 더욱 갈라놓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사자인 우리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개원의의 처방을 컴퓨터로 분류하여 군대에서 사용하는 '선착순제도'를 도입하여 A, B, C 등급으로 분류하여 통지하고 있으며, 전문약을 대거 일반약으로 이름만 바꿔서 분류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지출은 줄이는 대신 아무 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약값을 몽땅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실상을 알아차린다면 곧바로 정부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일어날 만한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태초의 원인은 우리가 오로지 후진국에 태어난 탓이며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자 의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바르게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희망찬 임오년 새해에는 '말띠'의 해답게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다시 또 싸웁시다.

7만 회원 다수의 지지로 뽑아세운 직선 회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합시다.

이 땅에 진정한 의권을 바로 세우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결정을 의협에 맡기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조하며, 의협에서 하는 일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적극 협력해 나갑시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가장 큰 엘리트 집단이 아닙니까?

진정한 국민의 건강과 합리적인 의료환경을 위하여 이 한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 하나로 뭉칩시다.

끝으로 올 한해에는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02. 1.

강력한 의료계 힘있는 의협



신 상 진
(대한의사협회장)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회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이 초래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환경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은채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어, 우리를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의협의 정관을 개정하여 의료계 역사상 첫 직선제 회장을 탄생시키는 등 나름대로 큰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 악법을 만들어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고 획책하고 있고, 모든 허물을 의료계의 잘못으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의약분업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등 정책적인 실험이 실패로 판명됐고, 국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아직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채, 적반하장 격으로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계 내부의 분열을 촉발시킴으로써 의사단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갈등을 부추겨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비장한 각오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불순한 시도를 하루 빨리 불식시키고, 더 늦기 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의료제도의 새 틀을 짜지 않으면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7만 회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의료관련 제도와 법령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는 것만이 반드시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해부터는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살아 갑시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전문적인 식견도 없고, 책임질 능력도 없는 일부 몰지각한 집단이나 불순세력에게 더 이상 농락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회원이 이해득실을 떠나 굳게 뭉쳐야 합니다.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완전하게 극복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성취해 낼 수 없습니다. 외부의 침략보다는 내분 때문에 국가사회가 무너져 버린 경우를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회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각 직역간, 세대간 화합을 가로 막고 있는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 주십시오. 절대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의료계를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회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의협의 조직과 기구를 재편해 나가는 한편 의협이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의료정책연구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또한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의협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의료계의 주장이 정책에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국민과 우리 의료계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실패한 의약분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한 새틀을 짜야만 합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를 믿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의료계 현안 해결에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상 누구도 일구어 내지 못한 값진 승리를 쟁취해 냅시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든 회원이 하나되어 난국을 돌파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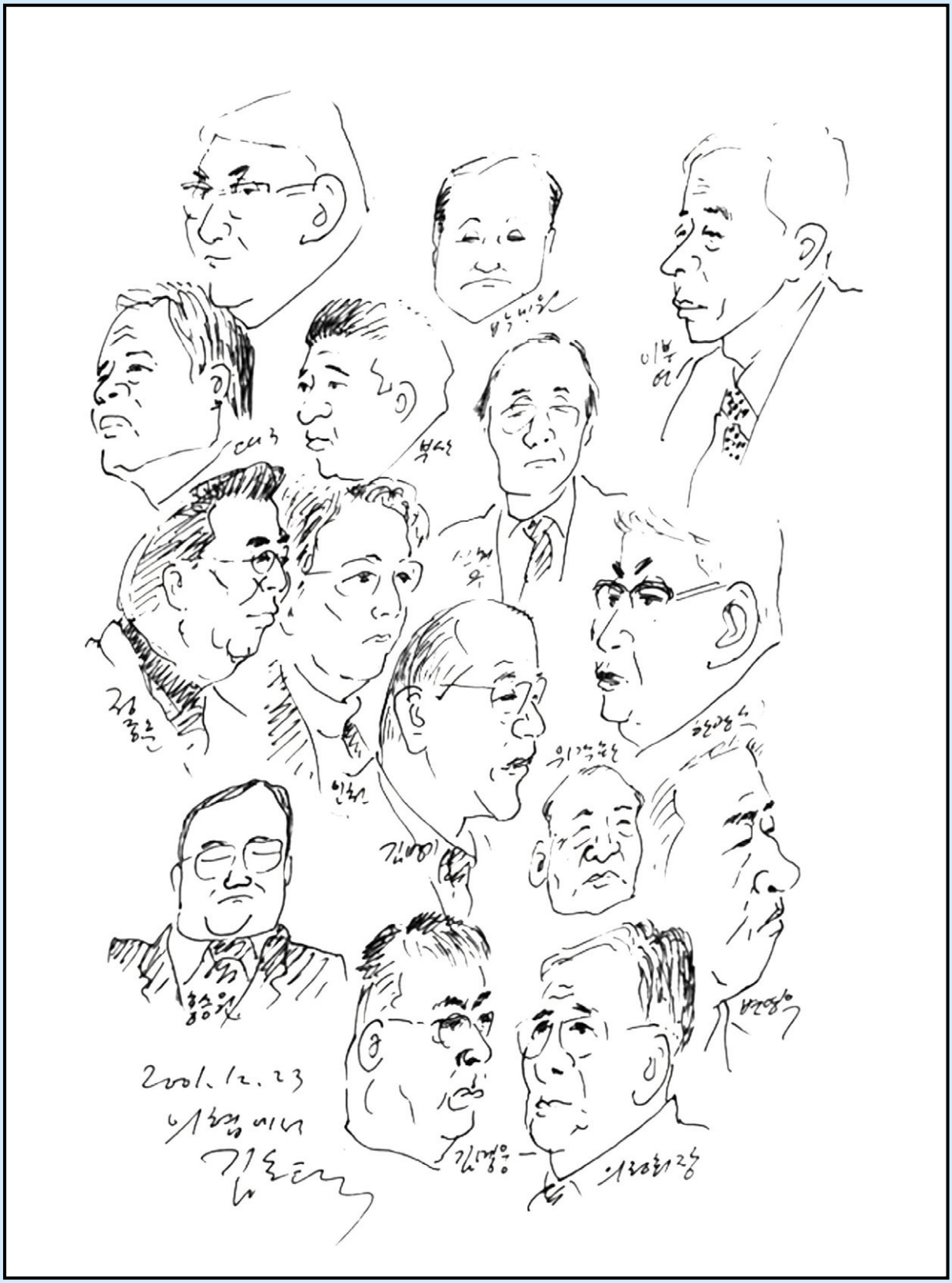
저의 단식투쟁에 직접 동조해 주시고, 마음 속으로나마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사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대장정의 선두에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년사에 대신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1.



윤태권 / 안동 윤소아과의원


2001. 12. 23



손 장 락

검은 나비의 춤

(반도네온과 바이올린의 주고 받는
노래에 피아노와 콘트라베이스가 끼어든다.)

잃어버린 지난 날의 아름다운 노래에
검은 나비 두 마리 엉키어 춤춘다.
깊이 묻어둔 옛날의 회색 노래가
장미빛 환영이 되어
밤하늘의 불기둥처럼 솟아 오르고

사기(砂器)가 되어
사랑을 잊어버린 검은 제비나비는
추억의 노래 고리가 되어
지난 날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떨어지다 하나 되어
몸부림치다 떨어지고
소리없이 이어가는 선율의 여백속에
서로를 불태우며 시계를 멈춘다.

소리 있어도 들리지 않는
소용돌이치는 빛의 폭풍 속에 녹아 들어
망각의 공간 속으로
빛이 되어 산산이 흩어진다
내일이면 가슴 속 깊이 얼어
검은 별이 될지라도

(안동 / 손의원장)



詩

위안 혹은 착각



김 의 홍

우리는 둘일 수 없다
모두는 여럿일 수 없다
어느 것들 사이에도 채울 수 없는
무심의 거리가 있다
좁아갈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무엇이 있다 분명한 무엇이 있다

모두들 착각하고 있을 뿐
우리는 서로의 뜨거운 혹은
서늘한 반쪽이 아니다
오직 혼자는 혼자일 뿐

있을 수 없는 신화에 매달려
매달려 여기까지 왔는가
후회없이 이젠 정리할 때가 되었다
그래 모두는 올 때도 혼자였고
각자 흩어지며 갈 때도 혼자다

다만 우리가 같이 있을 때만이
둘이 하나라고 여럿이 하나라고
착각하고 위안하고 알면서
보고싶지 않아서 착각하고
위안하고 있을 뿐
저 거친 바람도 혼자 불고
무상의 구름도 그저 밀려가고
회한의 강물도 그저
혼자 흐를 뿐이다

정말의 있음은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소리없이 가버린다
저 멀고 높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세상으로

길을 찾은 사람들의 기록은 없다
참된 기록은 없다 정말

하기야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모두가 미련의 위안 혹은
착각일 뿐인데
그저 그런 없음일 뿐인데

(구미/김의홍산부인과의원장)



안 길 룡

無醫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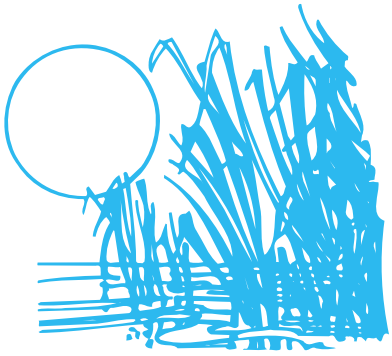
疾病이 肉身을 파먹고
肺胞는 가난에 저려
말없이 눈감아야 하는 폐허의
항구같은 마을

까온 청진기 주머니에
소복히 쌓이는 피묻은 아픔
이것은 아마도 한국 四千年의
스러움 일게다.

흰저고리 고름따라
곱게 흘러내린 소박함이
초식동물을 닮았구나

아지랑이 봄날
넘어오던 가묵재 아흔아홉구비
팔십리 증산길을
그리움에 노을되어
내가슴 밑바닥을 저려가며
덮습니다.

(김천/안외과의원장)



詩



남 성 대

해 바 라 기

뙤약볕에 새카맣게 그을려 가면서
오뉴월 긴긴 날을 온종일 쫓아다녀도
돌아와 보면 본래 그 자리

몸은 지치고
모가지는 늘어지고
알아주는 이는 없고

이곳 저곳
행여나 좋은 일 생길까
안 나오는 웃음 웃어도 보이고
못하는 노래도 불러본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보면
또 본래 그 자리

갈 길은 먼데
석양의 그림자 더욱 길어지고
어깨는 무거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하루종일 뛰어보아도 맨 그자리
아 – 해바라기 같은 인생이여

(전. 경상북도 보건환경산림국장)



彩孝日記



빈 남 수

저는 아버지 빈중현(賓重賢)과 어머니 백은희(白誾熙)사이에 태어난 딸 빈채효(賓彩孝)입니다.

저의 예쁜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은 부산에 계시는 할아버지의 형님되시는 분이 작명하셨답니다.

작명의 주인공인 P교수는 할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문학박사로써 한글에 조예가 깊은 분으로 한때는 부산의 B대학교 대학원 원장까지 지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 할아버지께서는 부산의 P교수에게 다음 몇가지의 재료를 보내시고는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셨다나요. "형님! 지난번 장가든 막대놈이 귀여운 손녀를 얻었습니다. 생년월일은 1999년 10월 2일(음 8월 23일 오전 9시 15분)에 출생, 예쁜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뒤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P교수께서는 부인과 함께 밤새워 두 개의 이름을 지어 할아버지께 편지로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빈채효(賓彩孝) 또 하나는 빈상수(賓詳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먼저 나와있는 이름 채효가 마음에 드셨는가봐요. 거기에는 할아버지 나름대로 그 이름을 취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올 10월 2일이 저가 고고의 성을 울리고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는 경남 창원에서 저의 돌잔치를 위해서 서울 저의집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저가 감기에 걸리고 환자같이 야윈 모습을 보자 심기가 몹시 불편하였던지 포항에 내려가셔서 10월 26일 새마을호 열차로 다시 서울에 오셔서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서로 의논한 결과 10월 29일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편으로 포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빌려 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인 동시에 수필가로서 작가생활을 하시기에 그런 꾀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2000년 10월 29일 일요일

아침 일찍 어머니는 나의 옷과 기저귀 그리고 우유통과 분유를 챙기고 포항에 가서 저가 지내는 내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후 2시경 저는 할머니의 등에 업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신대방동에 있는 저의 집을 떠나 전철로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예약을 안한 탓으로 대기조로 있다가 겨우 항공권을 얻어 오후 4시 30분 김포공항 발 칼항공 편으로 포항을 향해 날아 갔습니다.

저는 전에도 어머니하고 비행기 편으로 포항으로 간 일이 있기에 별로 겁나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얼마 후 기내에 있는 스튜디어스가 커피와 쥬스를 가지고 와서 할머니에게 음료수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주신 노란 물, 오레지쥬스를 얻어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어스 언니들은 복장도 예쁘고 산뜻하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시간 후 포항공항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께서 나와 계셔서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활용품이 들어있는 가방 두 개가 도착을 안 해 할머니는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공항직원이 "30분 후 아시아나항공 편에 짐이 온다"고 알려주어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6시에 마침내 아시아나항공기 편에 가방 두 개가 도착해 할아버지는 그 짐을 짐칸에 싣고 밖으로 나와 택시에 몸을 맡겨 포항 시내 해도동에 있는 D맨션 2동 202호에 편안히 올 수 있었습니다.

이날부터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포항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30일 월요일

할머니의 따스한 보호아래 자서 그런지 서울의 어미니 곁을 떠나서도 포항 할아버지 아파트 생활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는 순간 할머니의 눈빛과 마주쳐 미소를 띄워서인지 할머니는 "내 새끼 일어났어"하시면서 저의 뺨에 입맞춤하고서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우유병을 저의 입술에 물리면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한 부처님같이 저의 눈에 비쳤습니다. 전세에서 이미 맺어진 인연처럼.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나를 업고 할아버지께서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허리가 아프시니 할아버지한테 유모차를 사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난생 처음 백화점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노란색 유모차를 샀습니다. 이 유모차는 나의 자가용이고 할머니가 이 유모차의 운전기사입니다. 간혹 할아버지 하고 교대 운전도 하시지만... 점심때가 되자 할아버지께서는 유모차에 나를 태우고 근처 '주유천하'라고 간판이 붙어있는 식당에 데리고 가서 점심을 사 주셨습니다. 메뉴는 '곰탕' 나는 아직도 많이 어리기에 곰탕 국물에 밥을 말아서 할머니가 조금씩 숟가락으로 떠 먹여 주셨습니다. 참 고소하고 담백해서 국물이 맛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자주 외식을 하나 봅니다. 오늘 하루는 자가용이 생기자 하루 종일 즐거웠습니다.

2000년 11월 1일 수요일 맑음

할머니께서 24시간 제 곁에 계셔서 모든 것을 제 마음에 들게 뒷바라지를 해주시니까 하루가 금세 금세 지나가버립니다. 서울에 있을 때 아침 10시 놀이방에 가면 아아들이 울고 고함도 크게 지르고 해서 짜증스러웠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고 할머니가 제가 먹고 싶은 것, 가지고 놀고 싶은 것 모든 것을 기분 맞추어 주시니 저는 아파트에서 제일가는 공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놀이방의 일들을 말끔히 잊으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이고 은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커서 어른이 되면 할머니의 은혜를 꼭 갚을 것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몸이 극도로 야윈 것도 그 어린이 놀이방에서 다른 어린이로부터 옮아 온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된 것인지도 모르지요. 흔히들 어른들이 흔히 쓰는 "세옹지마"라는 단어도 머리에 떠오르곤 합니다.

2000년 11월 2일 목요일

포항에 온 지 오늘로 나흘이 흘러갔습니다. 할

머니는 나 때문에 아파트에서 단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할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나르기에 하루를 보냅니다.

할머니는 전업주부란 직업 외에 유모라 할까 어린이 보호자라고 할까, 직업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저 때문에 허리가 아플사이가 없습니다. 잠시 제가 짜증을 부리고 고함을 질러도 제 곁으로 다가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세심하게 살핍니다. 이제 해도동 D맨션 2동 202호는 화사한 꽃이 핀 봄같이 화기와 향기가 넘쳐나며 이웃 아파트에서 무엇 때문에 왁자지껄한지 문을 열어 물어봅니다. 꽃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사람꽃인데 그 말이 맞구나 하고 이웃 아주머니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곤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를 쳐다보시고 "여보! 이제 이 놈 때문에 나와 당신 몸에서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겠군"하고 미소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장수할 수 있는 놀이개가 되었구나하고 마음 든든합니다.

2000년 11월 4일 토요일

토요일이라 할아버지께서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채효! 채효" 하시면서 즐거운 표정입니다. 그럴 때면 나와 할머니는 문이 있는 출입구로 달려갑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양손에 가득 먹을 것을 사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모두 저를 위한 것이어서 좋아서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팔을 벌리고 할아버지에게 안기려고 하자 할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눈치채고 덥썩 저를 껴안고 뽀뽀까지 해주셨습니다.

아기사랑 분유, 이유식 베지밀, 아침 햇살, 아인슈타인 우유, 그리고 포도, 밀감, 배, 감 등 과일도 많아 할아버지는 팔도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무겁다거나 채효 때문에 괴롭다는 표정을 지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쯤하고 제가 있으면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오늘로써 서울에서 이곳 포항에 온 지 1주일 되지만 저 스스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잠도 잘 자고 살도 찌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가 14명이면서도 저 혼자만이 손녀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2000년 11월 5일 일요일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자가용 유모차에 싣고 아파트 근처 죽도시장 53번지 횟집으로 바깥 나들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일요일이나 휴일이 되면 간혹 이 유명한 포항의 명소 죽도시장 횟집에 들리시는 모양이다.

방어, 도다리, 가재미, 전어 그리고 굴 등 모듬회란 여러 가지 싱싱한 고기가 먹음직스럽다. 할머니는 회 한점을 나의 입에 넣어주시나 나에게는 별로라 그냥 뱉어내서 할머니는 받아서 당신이 잡수시곤 한다. 죽도시장에는 온종일 사람들이 붐비고 비린내가 코끝을 자극해서 금세 바다가 좋아진다. 아마도 할아버지를 닮아 나도 바닷가에 사는 체질을 갖게 되는가 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갈매기 소리에 깨어나 갈매기 소리에 해가 저물지만 마음이 바다같이 너그럽고 넓어 좋다.

2000년 11월 18일 토요일

이 날은 우리 할머니의 68회 생신기념일이다. 울산에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서 오셔서 병원 근처 유명한 식당에 가서 생일케이크에 68개 촛

불을 켜고 축가를 부르며 할머니께서 촛불을 입김으로 끄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할머니께서 7남매를 키우시면서 한 번도 힘드시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으시다. 거기에 나까지 할머니의 신세를 지고 있으니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한편 죄스럽다. 이 모두가 전세에서부터 내려온 귀한 인연이니 어찌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일을 중심으로 7남매 가족 모두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신다. 증조할아버지께서는 가신님과 조상을 승모하는 제삿날(기일)을 중심으로 집안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고 할아버지께서 일러주신다. 가정에도 중심 인물이 있어서 집안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보기 좋은 일인지 느낀 바 많다.

2000년 11월 29일 수요일

매일 일기를 쓰다보니 계속 쓰기가 퍽 힘들고 일상생활이 개미 쳇바퀴 돌 듯이 똑같아 재미가 별로 없어 쓰다가도 또 잊고 해서 띄엄띄엄 쓰게 된다. 그러나 이 일기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후일 내가 커서 이것을 읽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날 때 녹음한 나의 그 크나큰 고고성과 탄생 당시 찍은 비디오 사진과 함께 귀한 발자취 추억거리로 내 성장의 귀중한 역사 재료가 될 것이다. 이 일지는 그런 뜻에서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며 이런 내용을 남겨주신 할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할아버지는 나의 일투족 일거수 그 상세한 모습과 표정을 보시고서 할아버지 당신이 1년 1개월이 되었을 때 나도 저만치 크고 어리광을 부렸구나 하고 73년의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라라. 할아버지의 솜씨를 빌어 이 글을 쓰지만 이제까지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기지 않기에 이는 값지고 귀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는 분필로 남긴 비디오다.

무비카메라에 담긴 필림보다 더 섬세하고 나의 심성까지 여기에 담을 수 있으니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경남 창원에 계시는 외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형산수필 동인지와 사진을 받아 보시고 "채효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사진을 보고 놀랬습니다."하고 전화가 걸려왔다. 할머니는 집안 청소 세탁 등을 하시면서도 내가 놀고 있는 중에서 마음에 드는 행동이나 표정이 있으면 지체없이 카메라의 휘레쉬를 터트리고 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겨누고 있는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며 웃음을 잊지 않는다. 할머니는 사진작가이자 간호사이다. 할머니는 어린이를 다루고 키우는 육아교육박사이기도 하다.

할머니 말씀에는 키 75센티미터, 무게는 10킬로그램으로 정상적인 표준치라고.

현명한 어미는 아기가 보내는 메시지를 제대로 잘 읽어낸다. 저의 할머니도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할머니인 것 같다.

저의 이 미숙한 일기가 우리 집안의 꽃이 되어 그윽한 향기를 발한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아버지가 병원에 나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어머니가 학원에 나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일하는 한, 즉 맞벌이 부부로 지내는 경우 나는 당분간 할머니의 보호아래 있어야될 것 같다.

할머니! 힘드시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로 커서 말귀를 알아듣을 때까지 보살펴 주세요.

(포항 / 빈내과의원장)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정 만 진

< 편집자 주 >

이 글은 청년의사 신문이 주관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여 년말 특집으로 전국의 의사를 상대로 공모한 "제1회 한미 수필 문학상"에 입상한 작품으로 청년의사 제105호에 게재된 것을 저작권자(청년의사신문)의 승낙하에 본지에 전재합니다.

책상 서랍 속은 우리의 삶처럼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때가 묻고 헝클어지는가 보다. 개방병원 신청서에 필요한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찾으려고 서재에 있는 책상 서랍 이곳 저곳을 뒤적이다가, 맨 아래 칸 서랍을 여는 순간 오래되고 낡은 사각형의 인삼통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 위에 "절대 버리지 말 것"이라고 쓰여진 퇴색된 사인펜 글자가 클로즈 업(close up)되어 보였다.

거기에는 나의 20대 후반의 아름다운 추억이 잠자고 있었다.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의 부모가 거지만 아니라면 좋겠다"라는 감전(感電)되는 듯한 영감(靈感)으로 시작하여 결혼까지 하게된 의대생과 시골에서 화학을 가르치던 여선생간에 1년여 동안 오고 간 연서(戀書)가 대부분이었으나, 군의관 시절의 동료와 부하들로부터 받은 편지도 몇 장 끼여있었다.

용케도 버려지지 않고 살아남은 빛 바랜 편지들! 전문의 자격증을 찾으려고 서랍 속을 뒤적였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체 방바닥에 퍼질고 앉아 아련한 추억을 음미하며 빛 바랜 편지들을 읽었다. 마지막 편지를 들어올리는 순간 인삼통 바닥에는 누렇게 퇴색한 명함 한 장과 명함판 크기의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Maj.(소령) Robert M, Rice. VMD, PhD(수의학박사)"라고 쓰여진 명함과 새파란 보리밭을 배경으로 찍은 아기 사진 한 장, 이들은 보는 순간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20여년 전 소아과 레지던트 시절로 돌아가 버렸다.

그날은 초가을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나는 그날 병실 담당 당직이었으므로 비교적 한가롭게 당직실에서 쉬고 있었다. 정오 경에 특실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닥터 쿡(Dr. Cook)이 입원시킨 아기 환자가 경기(驚氣, convulsion)를 하는 것 같다며 좀 봐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오늘 쿡 선생님은 친지들과 양산 통도사로 나들이를 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20년도 넘은 그 당시에는 핸디폰은 물론 삐삐 조차도 없을 때였다. 당시에 내가 수련을 받던 부산의 침례병원에는 외국인 진료소(Foreigner Clinic)가 개설되어 있어, 미군 부대(Camp Hialiah)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부산 지방의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인정 많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60이 훨씬 넘은 미국 소아과 전문의(專門

醫)인 쿡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셨다.

나에게 응급 진료를 부탁한 특실의 환자는 2일 전에 고열을 주소(主訴)로 인두염과 중이염 진단 하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있던 1세 정도의 미국 아기 라이스였다.

나는 대학 다닐 때 영어 회화 서클의 회원으로 있었기에 능숙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의사(意思) 전달은 할 수 있었다. 오늘 같이 외국인 환자를 만나는 날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특실 담당 간호사를 데리고 라이스의 병실로 들어갔다.

차분하고 지적으로 보이는 라이스 엄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며 목례로 인사를 했다. 나도 능숙하지 않은 영어로 이런 분위기에서 특별히 할 말도 없어 목례로 답을 하고, 라이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라이스는 눈을 감고 두 팔을 접어서 가슴에 대고 깜짝깜짝 떨면서 아직도 경기를 하고 있었다. 체온은 38.5도였고, 자극을 줘도 울지 않았고, 목을 젖히니 뻣뻣한 감(neck stiffness)이 있었으며, 무릎과 발목을 작은 고무 망치로 때려보는 건반사(腱反射 DTR)도 증가되어 있었다. 이경(耳鏡)으로 귀속을 들여다보니 중이염은 심하지 않았다.

진찰을 해가면서 대략적인 감이 잡혔다. 수련 과정에 있는 우리는 심오한 의학적 지식은 부족하였으나 하루건너 한 번 씩 당직을 하면서 고된 수련을 하고 있었기에 실전 치료에는 날이 나 있을 때였다. 내가 이렇게 진찰을 하는 동안 라이스 엄마는 약간 떨어져서 조용하지만 예리한 눈초리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진찰을 끝내고 라이스 엄마 쪽으로 돌아서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하였다. "나는 전문의가 아니고 오늘 당직을 하고 있는 레지던트 1년차 이다. 나의 판단으로 볼 때 라이스는 지금 '세균성 뇌막염(bacterial meningitis)'에 걸린 것 같다.

세균성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인플루엔자 균(H. Influenza B)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뇌척추액 검사(spinal tapping)를 시행해서 뇌막염을 확인해야하고, 뇌막염으로 판명 나면 강력한 항생제 치료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혹시나 나의 능숙하지 않은 영어를 잘못 알아들을까 봐 중간 중간에 중요한 단어는 종이에 써가며 말을 알아듣겠느냐?' 고 확인을 하였다.

라이스 엄마도 정신을 집중하고, 때로 되물어보며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래서 다시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쿡 선생님은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저녁이 되어야 돌아온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

보호자인 당신이 나를 믿고 라이스의 치료를 맡겨준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즉시 필요한 치료를 시행하겠다. 가족들과 의논하여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말하고는 라이스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걱정스럽고 혼란스런 표정이 역력하였다.

나는 내가 만일에 우리보다 훨씬 못한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병실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을 당신

에게 맡길 테니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연락이 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라이스의 아빠는 미군 소령으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을 연구하는 수의학 박사였고, 라이스 엄마도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엘리트였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의도 아닌 한국인 소아과 레지던트 1년차의 판단을 믿고 따르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으리라. 그런데도 나를 믿고 따르겠다니 고맙기는 하였으나, 그 때부터 나는 더욱 긴장되고 책임이 무거워 졌음을 느꼈다.

약간은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다. 과연 내가 예상한 대로 뇌막염이 확실할까? 만약에 뇌척수액(腦脊髓液) 검사에서 뇌막염이 아닌 것으로 나온다면 이 국제적인 창피를 어쩔 것인가? 그러나 이제는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 와서 겁난다고 꽁무니를 뺄 수는 없지 않은가? 설사 뇌막염이 아닌 것을 내가 오진(誤診)하였다 하더라도, 경기(驚氣)를 하는 환자는 뇌척수액 검사가 꼭 필요한 것이니 크게 잘못될 것은 없다. 쿡 선생님이 없을 때 경망(輕妄)스레 서두른 것이 약간은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나는 아직 수련의니까 그런 정도는 용서될 수 있으리라. 반면에 겁이 나서 뇌막염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회피한다면 그것은 의사의 도리가 아님은 물론 나의 소신과도 맞지 않는다. '그래 한번 해보자. 뇌막염이 확실할 거야. 뇌막염 한 두 번 봤나? 한 달에도 몇 번씩이나 보지 않았던가? 뇌막염이 아니라면 아기를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고, 맞다면 의사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속으로 되뇌이며 자신을 북돋우었다.

나는 즉시 진경제(鎭痙劑)인 바리움(valium)을 정맥 주사하여 경기를 멈추게 하고, 라이스를 특실에서 소아과 중환자실로 옮기고 뇌척수액 검사 준비를 시켰다.

나는 옆으로 구부려서 누워있는 라이스의 4,5번 요추(腰椎) 사이로 길다란 주사침을 조심스럽게 찔러 넣었다. 라이스를 위해서는 뇌막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나의 진단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양가(兩價,Ambivalent)의 감정이 생겨났다.

보통은 맑은 물 같은 뇌척수액이 나오는데 라이스의 척수강(脊髓腔)에서는 고름에 가까운 누런 뇌척수액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뇌막염이 심하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나는 요망스럽게도 라이스의 건강보다도 나의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라이스 엄마에게 뽑아낸 뇌척수액을 보여주고 뇌막염이 확실한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제 뇌막염이 확실해 졌으니 치료를 위해서는 일분 일초가 급하다.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예후(豫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뽑아낸 뇌척수액을 병리 검사실로 보내면서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본격적인 뇌막염 치료를 시작하였다.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인 대용량의 엠피씨린(Ampicilline)과 CM(Chloramphenicol)을 정맥으로 투여함은 물론 뇌압 조절과 기타 치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시 사항(order)을 챠트(chart)에 기록하면서 간호사들에게도 신속하게 모든 것이 실행되도록 독

촉하였다.

두 시간 여에 걸친 긴장 속의 응급 진료를 마무리하고 중환자실을 걸어 나왔다. 줄곧 우리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라이스의 엄마가 따라 나오면서 진심으로 고마운 표정으로 "Thank you very much"하고는 눈물을 글썽이었다.

시간을 놓친 점심은 라면으로 때웠다. 다행히 새로운 치료를 시작한 후 경기(驚氣)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맥박과 호흡 등 바이탈 사인(Vital sign)도 규칙적으로 돌아왔다.

저녁때까지도 비교적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었기에 조금은 느긋하게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 저녁을 먹고 당직실로 돌아와 잠깐 휴식을 취했다.

라이스의 치료 때문에 미루어 졌던 일반 병실의 이것저것을 정리한 후 8시가 넘어서 다시 라이스가 치료받고 있는 소아과 중환자실로 올라갔다.

그런데 중환자실 앞에는 여러 사람의 외국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라이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깜짝 놀라서 황급히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다.

반갑게도 쿡 선생님이 돌아와 라이스의 병상(病床)옆에 계셨다. 쿡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라이스 엄마가 무어라고 하자, 쿡 선생님이 내 쪽으로 돌아보고 환하게 웃으시며 가까이 걸어오시더니 느닷없이 나를 끌어안으시며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Dr. Jung"하셨다. 그리고 이런 저런 말씀을 더 하셨지만 자세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마도 자기가 없는 동안 일을 잘 처리하여 정말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우리 나라 의사가 외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과연 그렇게 솔직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쿡 선생님에게 라이스 엄마가 미처 말하지 못했을 의학적 경과를 간단히 보고해 드리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기에 중환자실 밖으로 나오는데 라이스 엄마도 따라 나왔다. 그녀가 중환자실 앞에 있던 여러 사람의 남 여 미국인들에게 빠른 영어로 무어라고 말을 하자, 그들은 순식간에 나를 에워싸고 여기 저기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면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를 외쳤다. 나는 오늘날까지 그 때처럼 많은 "Thank you"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것도 미국 본토 발음으로 말이다. '이런 꺼벙한 레지던트가 쿡 선생님이 없는 사이에 그런 대견스런 일을 저지른 바로 그 친구란 말인가? 어이구 착하기도 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Thank you"를 연발하고 악수 세례를 퍼부었던 것 같았다. 나는 뜻밖의 요란스런 칭찬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바보처럼 억지 웃음만 짓고 서있는데, 훤칠한 키의 백인 신사 한 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앞으로 다가서서 자기가 라이스의 아빠라고 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 명함이 오늘 퇴색한 채로 낡은 인삼통 속에서 발견된 바로 그 명함이다.

그날 이후 내가 당직을 서는 날이면 이따금씩 라이스가 있는 특실을 찾아가서 라이스의 상태도 살펴보고, 라이스 엄마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달 이상 쿡 선생님의 자상한 치료를 받았으나, 라이스의 상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CT 검사에서 뇌조직의 손상

이 있는 것으로 판독(判讀)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라이스의 병실을 찾아가니, 라이스 엄마가 "내일 집에 갑니다. 언젠가 라이스에게 Dr. Jung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원히 Dr. Jung의 능동적이고 자상한 그 날의 행동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Dr. Jung을 위하여 집에서 만든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갖고 다니던 라이스의 사진입니다.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라 하였다.

나는 그날의 수많은 "Thank you" 소리와 라이스 엄마가 준 케이크의 달콤한 맛을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가 버렸다.

라이스 소령의 명함과 라이스의 사진은 다시 "절대 버리지 말것"이라고 쓰여진 인삼통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추억은 내 마음속으로 다시 들어왔다.

라이스 엄마는 아직도 그날의 Dr. Jung을 기억하고 있을까?

(영천시의사회장 / 정만진소아과의원장)
jmj31@hitel.net



김 시 녀(金 市 女)



전 민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옴을 느낀다.

1987년 내가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였던 포항의료원에 정신병동이 새로 개설됨에 따라 만성 정신질환자(주로 의료보호환자)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시작되었다.

그 해 늦은 봄 용인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경상북도 연고의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우리는 버스 2~3대에 환자들을 나누어 태우고 용인정신병원을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포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환자들은 병원 밖으로의 외출이 거의 없었던지 모두들 얼굴이 창백해지고 불안해했다.

김시녀! 그녀는 그 환자들 속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눈을 꼭 감고 버스 의자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나이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고 얼굴이 창백하고 뚱뚱한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 때 그녀의 이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이름에는 사연이 있었다.

그녀는 경북 김천 시내에서 행려자로 발견되었는데 자신의 이름은 물론 어디사는지 나이가 몇인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태로 용인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입원 당시 병원에서 편의상 붙여준 이름이었던 것이었다. (김천시에서 발견된 여자 행려환자라는 뜻으로) 그 뒤부터 그녀의 이름은 김시녀가 되었고 그녀의 진짜 이름은 누구도 알 수 없이 그녀의 잊혀진 기억 속에 묻혀 버린 채로 용인에서 십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또 다시 아무도 면회 오지 않는 입원 생활이 포항에서 시작되었고 그녀는 병원내에서 직원들이나 환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김시녀로 불리어졌다.

포항에서의 몇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날 오빠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 중년남자의 출현으로 잊혀진 본래의 그녀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면회실로 인도된 그녀를 쳐다보던 그 중년남자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런 그 남자의 모습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집을 잃어버린 후 몇년간 백방으로 찾았지만 찾지 못했으며 그녀에게는 그 당시 갓난아기였던 남매의 자녀가 있었으며 지금은 둘다 성장해서 딸은 곧 결혼할 예정이고 아들은 대학을 다닌다고 했다. 그녀의 오빠는 애들에게는 엄마가 죽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애들이 성장한 뒤에 엄마의 행방불명 사실을 이야기 해주었고 애들은 엄마가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수용시설을 뒤지다가 마침내 용인정신병원에서 엄마의 행방을 알아낸 것이었다. 오빠가 다녀간 뒤 그녀의 병상기록지의 이름은 박○○로 바뀌었다. 그리고 며칠 뒤 면회실에서는 이미 어른이 된 두 남매와 이미 중년이 넘어버린 엄마가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한 마디 말도 없는 한 순간이 지나가고 그녀는 두 남매가 가져온 빵봉지를 뺏듯이 움

켜쥐고 황급히 병실로 들어갔고 두 남매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그저 황당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김시녀씨가 아닌 박○○씨에게 이 모든 사실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여전히 김시녀이었고, 다만 먹을 것을 사들고 면회오는 사람이 생긴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 기가 막힌 재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평소에 심장이 좋지 않았던 그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녀는 내과병동으로 옮겨졌으며 두 남매는 엄마와의 짧은 만남 뒤의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남매의 밤낮을 가리지 않은 정성 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엄마의 옆에서 남매는 들릴 듯 말듯한 소리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흐느끼며 '엄마!'를 불렀다. 그녀는 두 남매에게 비로소 엄마가 되었다. 그리고는 끝이었다. 그녀는 김시녀가 아닌 두 남매의 어머니인 박○○로서 삶을 마감한 것이었다. 두 남매에게 엄마가 되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녀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었을까?.....

(포항 / 전민신경정신과의원장)



나의사랑 문경시민 클래식 기타 합주단



정 명 근

감미로운 선율로 나의 음악적 감성을 한껏 자극했던 고교시절 음악시간. 그 열망은 방송 출연과 합창부 활동으로 이어졌으나, 급기야 1970년 대학 입학 후 그토록 바랬던 다이아몬드 기타를 구입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나의 음악 행로는 시작된 셈이다. 그 땐 얼마나 행복했는지...

작은 공간의 공부방에서, 대학 캠퍼스 잔디 밭에서, 축제의 현장에서 기타 치며 노래하며 Pop과 Classic을 넘나들며 나는 음악의 바다에서 맘껏 노를 저었다. 전공학문인 醫學과 音樂은 緊張과 弛緩의 對比였으나 學問에 지친 心身을 녹여주는 따스한 봄볕은 바로 音樂이었다. 군의관 시절과 常州성모병원 외과 과장을 거쳐 1989년 이곳 聞慶에 開院하면서 드디어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藥師 김지수님의 권유로 나의 사랑 '문경시민 클래식 기타 합주단'에 입단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 합주단의 소개를 하고자 한다. 1987년에 창단. 현재 회원은 17명으로 다양한 직업에다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층이 매우 두터운 편이다. 매년 초청 연주회(5, 6월 중)와 정기연주회(10, 11월 중)를 가지는데 지금껏 초청된 연주자로는 한국인으론 제정민, 이성우·서윤일, 서울기타트리오 및 한국종합예술학교 학생등이었고, 외국인 연주자로는 Benimeli, Iwan Tanzil, Oliver, Kerstin및 독일 Triana 기타 트리오 등이 있다. 특히 이들의 연주가 끝나면(연주일은 항상 토요일임) 함께 이 지역 토속 음식을 즐기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노래를 부르거나 기타 연주를 들으면서 晩春의 아름다운 밤을 아쉬워한다. 또한 다음날 일요일엔 이 곳 문경의 山紫水明한 계곡을 찾아 나누는 談笑, 물놀이, 동동주 맛에 모두가 흡족해 하는 모습에선 이젠 音樂이 아니라 人生의 喜樂을 얘기하게 된다.

合心으로 준비하는 정기 연주회는 우리 회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나 또한 역대 회장(4대)을 역임한 죄(?)로 직접 운영하는 병원의 3층에 방음시설을 갖춰놓고 기타 사무실 및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전재원(사업)회장님 및 남광영(사업)총무님의 역량과 이석원(교사)씨의 Arrange, 박희업(교사)씨의 지도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성공리에 치루었고 'Radezky March'를 연주할 정도로 수년전에 비해 연주 기량도 향상되었다고 자부한다. 더욱이 이번에는 이기홍(교사) 회원이 지도한 문경여고 클래식 기타 동아리(여울내) 소속 학생 9명이 3중주와 합주곡으로 찬조 출연하여 그 예쁜 손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였으니 우리 합주단이 지금껏 기울인 각고의 노력이 더욱 활짝 꽃을 피우게 된 것 같아 말로선 형언 못할 기쁨을 맛보았다.

우리 합주단의 歷史가 쌓이는 만큼 청중들의 연주감상태도도 이젠 수준급으로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문경시장님, 문화원장님, 보건소장님, 醫協회장님, 각 학교 음악선생님, 여러 諸賢님께 감사

드리고, 특히 매년 연주회를 찾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錢慶洪 동산가정 의학과의원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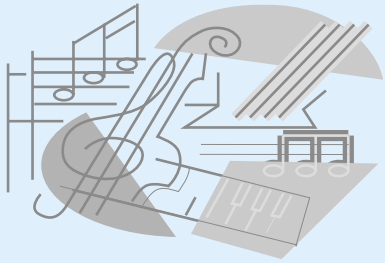
每週 금요일 밤은 우리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다. 합주 연습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곁들이는 한 주일의 피곤을 말끔히 씻어주는 청량제 소주 한 잔은 甘露水요 생활 活力素다. 옛 성현은 50의 나이를 知天命이라 하였으나 비록 天命은 알 수 없어도 봄날의 새싹을, 여름의 신록을, 가을의 쓸쓸함을, 겨울의 낭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기타와 음악에 대한 熱精을 놓지만 않는다면 이 또한 괜찮은 人生이 아니겠는가?

지금 창 밖엔 올해 소담한 첫 눈이 소리없이 내리고 있다.

아! 나의사랑 문경시민 클래식 기타합주단이여!

(문경시의사회장 / 정명근외과의원장)

P.S : 우리는 신입 회원을 환영합니다.
연락처 : 018-553-3304(전 재 원 회 장)
(054)552-0055(정명근외과의원)



「한티재 하늘」을 읽고



김 재 왕

청명, 곡우, 한식도 다 지난 대지에 질금질금 비를 뿌리고 나면 산천은 짙은 초록과 녹색으로 신록을 발한다. 어느 계절 어느 곳이던 자연이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만은 내가 살고 있는 안동의 봄은 유달리 아름답다. 깊은 산골도 평지도 아닌 낙동강의 중상류쯤을 차지한 이곳은 그만그만한 산과 그리 쓸쓸하지 않은 계곡들이 어우러져 적당한 경치를 만들어 지금은 싱그럽고 풋풋한 녹음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특히 신록이 좋은 계절엔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 어디든지 발 닿는 곳으로 걸어보고 싶다.

마침, 섶밭밑에 묻혀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나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야생화처럼 조그만 마을 조탑동 세칸 오두막에서 한 평생을 투병하며 글쓰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권정생씨가 부근 일직면 일대를 배경으로 쓴 소설『한티재 하늘』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계절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다.

소설『한티재 하늘』은 현재까지 2권이 출간되었는데 1.2권의 이야기는 1895년에서 1937년까지 일직면 일대를 주무대로 갑신정변과 동학혁명 일제시대로 이어지는 역사의 질곡과 당시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밭이랑에 살을 심어야 하는 무지랭이 민초들과 허리가 분질러지는 나날을 지내는 숫한 아낙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사랑을 만들어 가는 지를 또 사람의 삶이야 어떠하든 계절은 철마다 피고 지고 했는지를 조용조용히 적어 나간다.

어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등을 돌린 채 혼잣말처럼 조용조용, 산에 가면 산나물을 뜯으면서, 인동꽃을 따면서 -중략- 서럽고 고달팠던 우리네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사투리로 들려 주셨습니다.(서문에서)

따라서『한티재 하늘』은 어떤 갈등구조가 설정되어 그것이 구성을 통해 발단 전개되고 해결되어가는 소설적 구도라기 보다는 작가 자신도 작품속의 등장인물의 삶에 간섭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며 가물거리는 기억들을 아름답고 서정미 넘치는 이곳의 말들로 토해냄으로써 우리들은 은연중에 작품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양지마 또식이는 노래처럼 이런 말을 지껄이며 다녔다.
"배나 둘이 됐으마 밥이나 한번 실컷 먹제."
감나무집 어르신네가 보다 못해 고함을 질렀다.
"이눔아! 배 하나도 못 채우는데 둘이나 되마 뭘로 채우노!"

소설은 먼저 일직 인근의 삼밭골 열두골짝을 소개하면서 시작되고 곧이어 양지마 또식이와 감나무집 어르신네의 대화로 이어진다. 이 소설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소설은 전편에 걸쳐 당시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서 민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절대적 빈곤과 난관 속에서도 어떻게 참고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였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배서방은 말없이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그렇게 슬픈 일을 치르고 있는 사이 조석은 여전히 일을 했다.

– 중 략 –

일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큰 보약이다. 분들네도 그 일에 휩쓸리면서 죽은 깨금이를 조금씩 잊어갔다.

사람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때로는 적당히 미워하고 때론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웃간에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끈끈한 정을 보여준다.

딸이 죽고 사위가 떠난 지 수년 후 그 사위가 만든 애를 안고 집을 찾아 온 오갈데 없는 아낙을 자기의 딸로 받아들인다던가 도망질 온 외딴 종년을 숨겨주다 운명적으로 눈이 맞은 아들을 원망하면서도 그녀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외진데로 떠나보내는 이야기들은 인간미 넘치는 장면들이 아닐 수 없다.

오늘저녁 때꺼리를 걱정해야하는 어려움속에서도 이런 훈훈한 인정이 꽃피는 것은 같은 처지 같은 어려움을 겪어 본 사람만이 상대를 더 잘 이해하는 까닭이어서 일 게다.

사람들은 어렵거나 난처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 다투기 보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임으로써 모두가 아픔을 같이하고 나누는 지혜를 보여준다.

며느리 채숙이가 그러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뒤란 구석에 돌아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자. 수동댁은 모든 잡된 생각을 쓸어버릴 수 있었다. 울고 있는 채숙을 쓸어안았다.

"아가, 괜찮다. 우지마라. 과부가 얼라 낳는기 뭐 죄가 되노. 우지 마라. 아가, 우지 마라."

아들 봉원이 죽고 홀로된 벙어리인 며느리가 이름 모를 장꾼의 아이를 갖자 시어머니 수동댁이 절망감과 오랜 과부살이로 고달팠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한탄하면서 나온 비장하면서도 며느리를 살려내는 말이다.

사람의 의지나 잘못으로가 아니라 상황이 사람의 불행을 만든다는 시각은 그의 이전의 작품들 이를테면 『몽실언니』나 『사과나무 밭 달님』같은 데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한티재 하늘』은 향토색이 짙고 서정미 깊으며 구수하고 맛나는 지방어들의 성찬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어디서 그 많은 재미나고 아름다운 말들을 가져 왔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새파란 물푸레조와 황금빛 노랑 매조와 끝이 갈라진 게발차조, 개똥차조, 무집진 곳은 쉰날거리를 심고, 조밭 둘레엔 팥을 심었다.

노인을 따라 안쪽 휘어진 샛골로 자근당 걸어 들어가니 미득새로 지붕을 인 오두막이 있었다.

말은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리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같은 뜻의 감자가 감자일 때 다르고 마령서, 한서일 때 다르고 또 포테이또가 다르고 카르토펠이 또 다른 맛을 내는 것은 같은 뜻의 새울음소리라도 꾀꼬리 소리가 다르고 노고지리 소리가 다르며 소쩍새소리가 느낌이 다른 것이나 같은 이치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말이 품고 있는 뜻과는 달리 언어에는 그 소리 자체가 갖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니까.

『한티재 하늘』을 읽기 전까지 늘 들으면서도 무

덤덤하던 안동 말이 이렇게 서정미 넘치는 말인 줄을 미처 몰랐다. 시어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던 독어를 괘테나 쉴러가 보기 좋게 불식시킨 것 처럼.

뿐만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 일직일대를 작가의 손끝은 관심과 무대의 중심으로 옮겨 놓았다.

『김약국의 딸들』을 읽으며 언젠가 시간을 갖고 갯가가 내려다 보이는 충무의 골목골목을 한번 걸어보고 싶던 충동보다도 훨씬 진한 느낌으로 따우재를 넘어 섶밭밑으로 곗골로 이릿재를 넘어 보고 싶다.

『한티재 하늘』을 읽다 보면 조상들이 누리던 멋을 배울 수 있다.

앞집 뒷집 서로 오손도손 이웃정을 나누며 살던 멋도 그렇고 처음보는 낯선 사람이라도 한끼 저녁밥과 비록 곁자리일지라도 등을 붙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한티재 하늘』은 자연과 하나된 인간을 보여 준다.

삶의 무대가 자연 속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의 도구들 이를테면 쟁기나 괭이. 함지박. 광주리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자연을 그대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의복이나 집도 마찬가지였다. 각종 먹거리도 텃밭이나 산에서 가져온 것들이니 사람은 항상 자연 속에서 직접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자연과 함께 생활한다. 따라서 이러한 삶은 다소 불편할런지는 모르나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음으로 기계와 물질 앞에 왜소함을 느끼고 소외된 오늘의 인간과는 사뭇 다른 정신 세계를 갖고 있었을 게다.

봄보리를 갈아놓자 이내 감자씨를 놓아야 했고 보리논 써래질도 해야 했다. 뻐꾸기가 울자 목화씨를 심어야 했고, 올콩을 심고 못자리도 했다.

『한티재 하늘』을 읽다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들이 자꾸 잊혀져 가거나 왜곡되어 가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다.

책속에 나오는 칠배골 섶밭밑 돌음바우 따우재 같은 듣기만 해도 구수한 맛이 넘쳐나는 이름들이 이제는 하나씩 둘씩 우리의 머리 속에서 지워지고 대신 칠곡이니 전하리니 하는 맛도 멋도 없는 이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니 안타깝다. 실겅이 주냄이 분들네 수동댁 같은 이름도 얼마나 듣기에 좋은 부름인가.

남안동 인터체인지에서 내려 한 1㎞ 남짓가면 좌측 아래로 밭가운데 오래된 탑이 있는 과수원이 보이고 뒷편에 조그만 마을이 있다. 탑마라고도 하는 이곳이 오랜 세월 권정생씨가 좋지 않은 건강을 지키며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는 일직면 조탑동이다.

올해 65세의 많지도 적지도 않은 나이지만 『한티재 하늘』 1.2를 발간한 후 지병으로 지난 겨울은 글쓰기 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우리들은 작가들이 혼을 담는 작업에 그의 명을 거는 경우를 본다. 씨의 작업도 혼을 담는 그것이어서 무척이나 많은 기운이 필요할 게다.

부디 선생의 건강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 어려웠던 한 시대를 살았던 순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에다 토속성 짙은 단어들이 주는 질박한 맛과 그의 빈 마음으로 바라다보는 자연의 변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안동 / 김재왕내과의원장)

경주시의사회 야유회를 다녀와서



손 형 석

김천신경정신병원에서 4년간 월급장이 생활을 하다가 2001년 3월에 경주에서 개업하여 모든 것이 낯설었을 때 경주시 의사회 사상 처음으로 가족동반 야유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휴일의 公共集會같은 느낌도 들고 늦잠을 즐길 수 있는 일요일 아침에 곤하게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새벽부터 깨워 낯선 사람들과 여행한다는 것이 부담되었지만,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기회라고 생각을 바꾸었다. 편안한 여행은 휴식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어려운 법이 아닌가.

2001년 4월 22일 일요일 아침 7시 15분, 황성공원 시립도서관 앞에 도착하니 여러 회원들은 지각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7시 50분에 목적지인 백암온천으로 출발했을 때 버스엔 가족을 포함하여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다. 가족을 동반한 회원은 네 사람밖에 되지 않아서, 야유회 가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또래 친구가 많아서 재미있을 거라고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행사임을 감안하더라도 회원들의 참석률은 생각보다 저조했지만, 덕분에 버스 안의 분위기는 가족처럼 오붓하게 되었다. 버스는 감포를 거쳐 구룡포로 향했는데 오랜만에 신선한 아침바다를 보니 마음의 먼지가 사라져 버리는 것 같다.

구룡포에서 복어매운탕으로 아침식사를 했는데 숙취가 없더라도 아침에 먹는 복어탕은 각별했다. 참으로 복어는 질리지 않는 생선이다(아니 복어를 질릴 만큼 먹어 본적이 없었던 것 아닌가). 상마다 고래의 여러 부위 고기를 담은 접시가 놓여져 있었는데, 10년 이상 먹지 않았던 것을 오랜만에 맛보니 혀가 낯설어 한다. 귀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혀는 귀를 닮았는가 보다. 옆에 앉은 회원이 고래고기는 소고기보다 10배나 비싼 귀한 것이라며 자꾸 권하시는데, 아무리 비싸더라도 자기 입에 맞아야 손이 가는 법이다. 고래고기를 잘 드시는 분들을 보니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는 옛 속담이 생각났다. 고래고기가 비싼 것은 포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만 시장에 내 놓을 수 있어 한 마리에 수 천만 원을 호가한다. 일반식당에서는 돌고래고기를 고래고기라고 내놓기도 하는데 맛이 떨어진다고 한다. 희소성이 물건의 가치를 정한다고 하는데, 흔하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면 물건의 값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목욕탕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치는 서늘한 가을 바람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개업의 치곤 너무 젊어 보이는 couple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야유회를 협찬해주는 제약회사직원

부부라고 한다. 주말에 새 신부 혼자 집에 놔두는 것은 좋지 않다며 동부인하여 주말을 같이 보내라고 신내철 회장님이 권했다고 하는데 오늘이 신혼 100일째란다. 제약회사직원의 배우자까지 챙겨주는 회장님의 배려가 참으로 여유롭고 보기 좋았다.

아침식사 후 호미곶의 등대박물관에 도착하여 해변의 경치에 어울리지 않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셨다. 업자들 나름대로 경제적 사정이 있겠지만 건물도 들어서면 환경의 일부가 되어버리는데 좀 멀리 내다보고 멋있는 구조물을 남기지 못하는지 아쉬움이 남았다. 커다란 손 모양의 구조물이 바다와 육지 쪽에 나란히 서 있었는데 출발후 사회자가 어느 쪽이 오른 손인지 물었을 때 아리송했다. 평소 낚시를 좋아하시고 군의관시절을 포항근처에서 보낸 김장희 산부인과원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지형과 풍물을 설명해주셨다. 경치 좋은 쪽을 택하다보니 길이 너무 굴곡져 어린 아이들은 힘들어했지만, 바다는 버스 옆을 계속 따라 다녔다.

오후 2시경 칠포 해수욕장에서 숨을 돌렸다. 오랜만에 흔들리는 버스를 타서인지 아침부터 설쳐서인지 좀 피곤했지만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니 머리가 시원해진다. 후포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부두가에는 현대식으로 잘 지어진 건물과 그 옆에 허름한 70년대 시장 분위기가 나는 수산물 공판장이 있는데 우리는 먹을 횟감을 고른 후 공판장 2층으로 올라갔다. 건물의 인테리어가 모자라는 만큼 접시에는 회가 넘쳤다. 수족관에는 바다 게가 많았는데 북한산이 수입되는지 처음 알았다. 북한산이 맛은 없는 편이라고 하는데, 바다 위의 남북경계선을 넘어면 맛도 변하는가 보다. 간식용으로 홍게를 30마리 구입했을 때 오후 4시가 넘었다.

목적지인 백암온천을 6년만에 다시 왔는데 별 변화는 없어 보였다. 필자가 1983년 겨울에 사진촬영을 위해 왔을 당시에는 온천까지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온천단지에는 변변한 숙박시설이 없었는데, 이름만 호텔인 곳에서 방 하나에 2만원 주고 10명(여자선배도 포함하여)이 잤던 기억이 난다. 물 좋기로 소문난 백암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아침부터 쌓인 피로가 가신다.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기분 좋게 목욕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싶었다. 일반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평생동안 경쟁도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조건을 다 구비했을 때는 과연 행복이 찾아올까 회의가 생긴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며, 만약 누구의 말대로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20살 때처럼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진다.

낯선 회원들과 알몸으로 목욕까지 하니 처음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편해진다. 목욕을 마치자 오후 6시가 되었다. 간식으로 산 홍게를 빈 아스팔트주차장에서 주저 앉아 먹기 시작했다. 스스로 게를 먹기 어려운 아이들과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야하는 아낙네를 빼고 나니 회원 한사람이 3마리를 먹어야 했다. 영덕 대게 한 마리 값도 안되는 6만원으로 10명의 회원들은 정말 배부르게 먹었다. 경주로

방향을 잡고서야 불편한 버스여행의 최대강점인 노래방이 열렸다. 이봉구 피부과원장님이 재담을 섞어서 사회를 맡아주셨고 신내철 회장님이 심사평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덤으로 주셨다. 신내철 회장님은 좌중의 분위기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며 편안하게 해주시는 재능이 있으시는 것 같다. 마지막 휴게소를 출발하면서 승차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유머를 섞어가며 인원 점검을 하시던 천종욱 내과원장님의 임무가 끝났다. 공석에서는 대하기 어렵지만, 사석에서는 인간적인 장점이 많은 좋은 분들이다. 한 사람이 한 곡씩 부르다보니 출발지에 다시 도착했다. 새벽에 시작한 야유회가 끝난 것이다. 처음 버스에 탈 때는 낯설었지만 온종일을 같이 지내다보니 낯을 익히고 친하게 되었다. 야유회의 목적에 지극히 부합되는 하루를 충실하게 보낸 것이다.

(경주 / 경주신경정신과 의원장)



골프斷想

-안동시 의사회 골프 대회를 다녀와서



박 창 로

나는 지난 여름 조조(早朝)골프 덕분에 100파(破)를 하였다. 골프에서 두 자릿 수를 친다는 것은 뒷땅이나 뱀타(뱀처럼 기어가는 땅볼타)를 거의 치지않고 슬슬 걸어 다니며 짐짓 여유를 부려 볼 수도 있다는 뜻일게다. 하긴 왕초보 때는 골프라기보다 필드하키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필드하키 선수들을 보라. 조그만 공을 급하게 '딱' 치고는 얼마나 뛰어 다니는지.

제5회 안동시 의사회 골프대회가 지난 10월 28일 일요일 경주 보문 CC에서 있었다. 지난 봄 대회 때에는 공휴일 진료가 있어서 참가하지 못한 관계로 나는 이번에 탑시드(?)를 배정받았다. 주말 오후 늦게부터 비가 왔다. 남부지방에 최고 100ml의 비가 내린단다. 하필이면 비가 올까? 골프에서 공이 잘 맞지 않는 핑계는 수 천 가지가 된다고 한다. 날씨가 너무 좋으면 "이상하게 안맞네"라는 핑계도 있다고 한다.

아침 8시 30분경 안동 골프 연습장 앞에서 모였다. 날씨는 흐리다. 금방이라도 마구 쏟아질 것 같기도 하다. 낯 익은 관광버스 한 대가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다. 아! 저놈의 버스를 올라 타고 과천으로 여의도로 지루하게 졸다가 흔들리다가 신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신적 자괴감과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어 얼마나 시달렸던가.

버스는 이내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린다. 오늘 하루쯤은 넉넉한 마음이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중년의 젠틀맨, 권세홍 회장님이 차 뒷자리로 오시며 담배를 한대 얻어 피우시고 로맨틱한 이야기를 하신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시내로 들어선다. 차창 너머 보도에 쌓인 샛노란 은행잎 무리가 바람에 휩쓸리더니 공중으로 솟구치며 흩날린다. 비온 뒤라 먼지 한 점 없을 것 같은 허공에 파문이 인다 .

그날 동아 마라톤이 열리는 경주에서 마라톤 건각들은 보지 못한 것 같다. 나에게는 보문 CC가 처음이어서 어딘가 했더니 한화 콘도를 뱅뱅 싸고 도는 모양새였다. CC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경주에서는 오전에 엄청난 폭우가 있었고 그로인해 10팀 정도가 캔슬 되었다고 했다. 우리로서는 행운이었다. 왜냐하면 라운딩 중에 밀리지 않으니까.

상품이 많이 걸린 대회였다. 모두들 웃고 있지만 조금 긴장한 듯했다. 전반 나인 홀을 돌고

우동을 한 그릇 비웠다. 총 6팀이 차례로 돌아 나오는데 모두 즐거운 얼굴들이다. 골프 코스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잔디는 좋고 그린의 난이도는 보통인 것 같았다. 5시 30분경에 라운딩을 마쳤다. 밀리지 않고 날씨도 좋은데 성적은 보통 때와 비슷했다.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을까? 라운딩 후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고 나서 생맥주 한 잔 마시는 맛에 비한다면 골프는 차라리 premedication 이겠다.

보문 인근 갈비집에서 뒷풀이가 있었다. 회원 여러분 보셨는지요. 그날 식당 앞에서 관광버스 주차를 돕던 도우미 김재왕 회원의 탁월한 팔 동작과 반듯한 자세를...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듯이 그분은 그렇게 책임을 지셨습니다.

의료계의 단합과 선후배 간의 화합을 강조하는 변영우 경북의협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었고 새로운 방식의 오일주(안동시 의사회의 전설적 음주문화의 한가지 행태)가 잠시 돌았고 이어 시상식이 있었다. 김석곤 회원이 3개 부문에(행운상, 버디상, 니어리스트상)노미네이트 되어 니어상을 받았다. 룡기는 이덕희 회원이, PDA를 받을 주인공인 대상에는 78타로 노익장을 과시하신 최종두 회원님이 각각 수상했다. PDA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동맥관 개존증 어쩌고 하면서.

지난 몇 달간 나름대로 골프에 정진했던 것 같다. 80 당구를 생각해보자. 잠자리에 누우면 당구공이 천장 사면(四面)을 맞고 쿠션 볼이 되어 구르는 hallucination이 생기고 심지어 식사할 때 밥과 반찬 그릇이 이루는 각도를 향해 젓가락이 큐대가 되는 상상을 하곤 했다. 골프에서는 100 파 할 때가 당구로 치면 80쯤 될까? 혼자 있을 땐 아무 곳에서나 어드레스를 취하고 맨 스윙도 해본다. 물론 스트레칭 역할을 하니 건강에도 좋다. 아침 조깅 땐 안개낀 놀이터에서 그랬고 틈틈이 진료실 에서도... 급기야 며칠 전엔 이런 일이 있었다. 퇴근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혼자였다. 나는 습관적으로 어드레스를 취하고, 다운스윙시 골프채를 던지는 느낌으로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멋진 피니쉬 동작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마주보는 사람이 보인다. 아! 그 얼굴에 묻어 있는 황당함이란.... 마주보던 그 얼굴은 이내 옆으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얼굴이 되고.... 그날 엘리베이터는 참 더디게도 올라갔었다.

뜻 있는 환경운동가이거나, 골프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골프에 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만큼 사람을 끄는 마력이 골프에 있다고 보면 되질 않겠나.

골프는 혼자 하는 운동이지만 라운딩 동료가 있기에 항간에 떠도는 심리전에 관한 비법도

많이 있다. 가령 상대방이 티샷을 실수했을 때 조용하라 못 본 척하라 왜냐하면 그는 위로 받고싶으나 위로 받을 곳이 없으니 혼자 화나고 depress 되어 난감해진다. 반대로 상대방이 굿샷으로 티샷했을 때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칭찬하라. 그리하면 상대방은 으쓱해져서 어깨 힘이 들어가면 다음 홀은 반드시 오비낸다. 퍼팅 잘 하는 선수에겐 칭찬하지 말라 퍼팅은 자신감이니까 칭찬하면 기가 살아서 롱 퍼트도 마구 들어가게 되어있다.

골프가 멘탈 스포츠라서 고수들도 가끔 말아먹는 홀이 있는데 초보를 갓 면한 주말골퍼의 경우 상대방의 심리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다. 무슨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골프 반 오락반으로 즐기고 웃자고 하는 일이니까 뭐 어떻겠나 비슷한 실력끼리 라운딩할 땐 은근히 경쟁심도 생긴다.

파트너가 티샷 오비내면 짐짓 안타까워 하는 척은 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느긋한가 오죽하면 상대방이 생크내면 속으론 thank-you 라고 한다지 않은가 그런 선의의 경쟁이 얼마나 좋은가 매너가 나빠 동료를 난감하게 만드는 골퍼에 비하면 말이다. 18년을 친구로 사귀던 사이가 18홀을 돌고나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골프장에서는 인간이 그대로 보인다 적나라한 인간성이 그대로.... 좋은 매너를 갖는 것은 굿샷보다 더 중요하다.

거의 밤 11시가 되어 도착한 안동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짧은 하루였지만 찐한 일체감을 느끼며 짧은 악수를 나누고 우린 헤어졌다. 그날 밤 나는 엄습해오는 졸음 사이로 엘리베이터 밖의 그 황당한 얼굴을 잠시 떠올렸었고 거친 바다를 헤치고 돌아온 노인의 그것과도 같은 나른하고 평화롭고 넉넉한 잠을 잤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또 사자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세칸 샷이 온그린 되는 꿈을 꾼 것이다.

그 짜릿한 꿈을 .....

(안동 / 박소아과원장)

난초, 그 편견없는 화신



백 두 현

창 밖으로 햇살이 눈부시다. 어제, 맡고있던 동기회를 새로이 이끌어 나갈 신임회장이 선출되어 늦게까지 축하하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맘껏 마신게 꽤 과했나 보다. 머릿속에 바윗돌이 하나 들어가 이리저리 구르고 다니는 듯하다. 부스스 일어나 베란다로 나간다. 어김없이 화초들이 푸르고 싱싱한 잎을 앞세워 자태를 뽐내며 다투어 인사한다.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라고. 마치 고개를 조아리며 문안을 여쭈는 신하들 앞에 선 임금처럼 의기양양하게 인사를 받는다. 푸른 잎들을 쓰다듬으며.

며칠 전에 꽃을 피운 군자란이 시들지 않고 주황색의 옷을 아직 걸치고 있다. 이년 전쯤에 생일 선물로 군자란 두 그루를 친구에게 선물 받았다. 유난히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던 나였지만 난초를 한 번도 키워 본 일이 없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웠다. 난은 난을 닮은 고고한 성품을 지닌 사람만이 키울 수 있고, 그 마음이 변하면 난초도 어김없이 낙담해서 곧 시들어 버린다는 가람 이병기님의 말씀이 불쑥 생각났다.

그러나 난초를 배달해 온 종업원이 군자란은 다른 난에 비해 키우기도 쉽고 꽃도 잘 피운다는 말에 힘을 얻어 난초도 한 번 키워 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 한 놈은 잎이 윤기가 나고 싱싱했는데 다른 한 놈은 그렇지 못했다. '난초 잘 기르는 법'이란 책을 사서 읽으며 온도, 햇빛, 물주기에 각고의 정성을 쏟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누라가 일침을 가한다. "아~난초는 좋겠다. 저렇게 사랑을 듬뿍..."

평소 환자를 대할 때마다 재력, 인품, 용모에 상관없이 인술(仁術)을 베풀겠다고 몇 번이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되뇌이곤 했던 나였다. 그런데 난초를 키우는데는 나도 모르게 차별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잎이 비틀어지고 푸석푸석한 놈은 볕도 잘 안드는 구석으로 처박아 놓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에 싱싱하고 잎이 윤기나는 놈은 양지바른 곳에 놔두고 규칙적으로 물도 주고 더러는 나도 먹지 못하는 보약(?)도 주곤 했다. 인과응보(因果應報)라 했던가? 한 놈은 계속 시들시들하고 한 놈은 주인의 은혜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싱싱한 잎을 계속 만들어 내며 잘 자랐고 마침내 주황색이 선연한 꽃도 피웠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이리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어화 둥둥 내 사랑아....." 아무리 봐도 귀여워 죽겠다. 그럴수록 다른 녀석에겐 밤낮으로 따가운 시선의 포화를 계속 퍼부었다. 사랑의 화살을 공평하게 쏘지 않은 나의 처사는 생각지 않았다. 꽃도 피우지 못하는 군자란을 서양란으로 국적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저 놈을 축출(?)해야겠다는 무서운 생각을 품기에 이르렀다. 그 생각을 실천하려던 어느 날 아, 이 놈이 주황색 옷을 갈아 입고 내 앞에 우뚝 선 것이다. 내 말을 알아 들었을까? 살기위한

본능적 몸부림이었을까?

아, 나의 온갖 차별과 박대 속에서도 놈은 끝까지 자신이 군자란임을 증명했고, 나의 무관심과 냉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이다. 그 놈을 담아 버리려던 쓰레기 봉지를 들고 있던 나의 손은 힘 풀렸고 어느새 조심스레 그 꽃잎을 쓰다듬고 있었다.

모든 것을 버린 순간에 비로소 온 세상을 얻는다며 무소유의 참의미를 설파하셨던 법정스님의 얼굴이 떠오른다. 집착은 괴로운 것이며 세상에 자기 소유는 진정으로 없는데 사물에 욕심을 내어 고통에서 허덕이냐고 세상을 꾸짖어셨다. 친구에게 받은 난을 친구에게 다시 돌려 주고나서야 집착에서 벗어나 여유을 찾고 삶의 참가치를 찾았다는 법정스님.

현상만 바라보며 아무 생각없이 대하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까? 편견과 무관심, 냉대에도 끝까지 본분을 지키며 관용을 베푸는 난초, 한갓 미물이지만 내자신의 편견과 오만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대로 대하고, 쉽게 가슴에 생채기를 내곤한다. 그리고 편견의 사탄과 함께 그를 난도질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승리감에 빠지곤 한다. 나는 아내에게 편견의 사탄이요, 무관심의 전사(戰士)는 아니었을까? 새해에는 나의 분신처럼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아내를 위해 사랑과 관심의 요정이 되어 보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편견과 차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해봐야겠다.

(고령 / 백의원장)

제16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방문기



최 유 근

영호남 친선을 위하여 경상북도 의사회와 전라북도 의사회가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벌써 16년이 되었다.

2001년 11월10일(토) 무주리조트에서 전북의사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회원들에게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안동에서 1시30분에 출발 최종두 직전의장, 유동명 부회장과 같이 중앙고속도로를 경유 동대구 IC에서 합류했다. 경북의사회 박재영 사무국장과 직원2명이 대구에서 출발하게 되니 이 곳에서 만났다.

영일만 관광버스가 포항, 경주, 동대구, 김천을 거쳐 덕유산 무주리조트로 갔다.

김천시 회원들이 교통안내를 잘 해주어서 가장 빠른 길로 갔다. 나제통문(羅濟通門)에 다달으니 이제 다온 기분이다.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조선 태종13년에 건립했다고 한다. 무주리조트는 잘 알려진 곳으로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유명하다. 그러나 처음 가보는 곳이라 휘황찬란한 불빛이 별천지를 연상하게 했다. 저녁 7시 예정시간 티롤호텔에 도착했다.

전북도의사회 김명웅 회장님을 위시해서 우리를 도열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한복으로 단장을 한 화동이 꽃다발을 변영우 경북도의사회장님에게 안겨드렸다. 나중에사 이강안 무주군의사회장님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에서 박길수 대한의사협회 의장님, 박희백 의정회 회장님도 참석을 해주셨다. 김임 총무이사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강재수 전북부지사님이 축사를 해 자기도 의사로서 정무지사를 맡고 있다고 했다. 의사가 부지사가 된데에는 유종근 도지사님의 배려가 돋보여서 우리 의사들도 우쭐했다. 김세웅 무주군수님은 영호남 의사님들이 이 곳 무주에 오신것을 환영하며 두가지 점을 강조했다. 이 곳 무주 오지에 안동출신 신현돈(申鉉燉)씨가 지남(芝南)의원을 개업하시면서 봉사활동으로 인심을 얻어서 제헌국회의원(1948. 5. 10)으로 당선되셔서 전북도지사, 경북도지사, 보사부장관, 내무부장관, 무임소장관을 역임하셨고 다시 무주에 내려와 1965년 1월 5일에 61세를 일기로 영면하셨다면서 경북사람도 전라도에서 이렇게 사신분이 있어서 영호남은 지역감정이 아예 있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한가지 부탁은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결정이 11월 16일(금) KOC에서 있는데 박희백 KOC위원님에게 특별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무주에서 개최될 때 사마란치 회장이 올림픽 수준이라고 치사를 했고 1998년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은 이 곳 무주에서 하기로 잠정적인 결정을 하자 강원도 원성군 용평리조트에서 도전을 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김세웅 무

주군수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자 무소속으로 당선된 패기만만한 자신감에 꽉찬 인상의 사람이었다. 무주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는 인상이었다.

우리의 토의사항은 미래를 위한 의협과 병협의 올바른 관계정립과 위상, 의협의 정책연구소 설치와 회비 및 기부금 납부에 대한 의견 제안등을 토의하고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2부 순서를 맞이했다.

티롤호텔에서의 부폐와 술과 음료수가 우리의 배를 질펀하게 채워주었다. 여흥으로 명사회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선후배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11월 11일 이튿날은 덕유산 등산을 했다. 무주리조트 내에 있는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 덕유산 정상 향적봉(1614m)에 가기로 했다. 막상 거의 정상까지 케이블을 타고 갔기에 20분만 더 걸어서 가면 되는 등산이다. 일요일만 되면 거의 모든 산에는 등산객이 몰리는데 이 곳도 마찬가지다. 시설이 너무 잘되어 걸어야 할 거리가 짧아서, 그래서인지 젊은 부부가 어린아기를 안고서 오르는 이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많이 왔다. 스키 계절이 되면 학생들의 천지가 된다고 하니 그럴만도 했다. 등산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무거운 바둑판까지 준비한 의사회 사무국에 감동을 느끼고, 그 곳에서 마시는 동동주와 부침은 시장기를 기분좋게 해주었다. 이동하여 한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아쉬운 헤어짐을 하였는데 다음에는 경북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변영우 회장님의 대표인사로 끝을 맺었다.

특히 이강안 무주군의사회장님의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 전북도 산하에 오직 무주에서 행사를 하니까 김명웅 회장님의 뜻에 복종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데에 존경의 뜻을 표하고 싶다.

마지막 선물로 무주산에서 생산되는 머루주 한 병씩 받아왔다. 무주를 홍보한다는 뜻을 전해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성의를 표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의 16회까지 진행되도록 처음 시작한 전북의 김병주 회원님, 경북의 신은식 회원님은 그 때 당시 기획이사로 산 증인으로 참여해 주신 점에 우리 모두는 박수를 보낸다.

돌아오는 길에 김천시의사회 회원들의 성의로 안길룡 부회장이 매운탕 대접을 해주어서 우리의 우의를 돈독히 했다. 감사를 드린다.

(안동 / 최유근안과의원장)

미시간 대학병원 연수기



이 경 섭

지난해 광복절.

의약분업 파동의 혼란 중에 1년간 미국 연수를 떠난다는 부담감을 안고, 가족을 데리고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가슴 설레임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연수 길에 올랐다. 잠시 들리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생활이라도 필요한 것들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아내의 말에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짐을 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특히 연수 생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집과 차는 랜싱에 사는 친구가 미리 해결해 두었기에 다소 푸근한 마음으로 출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부터 문제가 생겼다. 도착 예정지인 디트로이트 국제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약속을 한 친구가 출발 2일 전부터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김포를 출발하는 순간까지 확인 전화를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 혼자도 아니고 게다가 이민 가방 10개에 가득 실은 짐이며 혹시 이 친구가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마중을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출발을 미룰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출국하였다. 다행히 우리는 일본 나리타 공항을 경유하는 비행기였기에 일본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때 친구가 전화를 받는데 새로 산 나의 중고 미니밴을 시운전도 할 겸해서 친구가 그 차로 워싱턴을 다녀왔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태평양을 건너 비행기 밖으로 보이는 오대호를 지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트로이트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세관검사와 입국수속을 무사히(?) 마치고 오랜만에 친구의 가족과 상봉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미국 연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우리가 살 아파트는 3층으로 바로 앞에 호수가 보이는 아름답고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전에 병원 출퇴근의 편리성, 아이들 학교와의 등교 거리, 학교의 수준 등을 알아보았고, 한국에서의 반 지하와 같은 곳이었으나 아들이 3명인 우리는 뛰다가 쫓겨나는 불상사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1달여 지났을 무렵에 눈에 익은 사람의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되는 것을 보고는 우리가 살았던 바로 그 집에 군의관 생활을 같이 했던 대구 모 대학의 김 교수가 살았다고 하니 세상이 정말로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집에 들어서면 가구라고는 아무 것도 없고, 양 벽은 왜 모두 흰색으로 칠을 해 더욱 황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연수 시절 처음에 흔히 겪는 일이지만, 상도 없이 아파트 바닥에 신문을 깔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친구 덕분에 요즈음 한국에서는 골동품으로 여겨지는 자개상(?)에 메기 매운탕을 반찬으로 하여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다. 다음날 가능하면 빨리 일을 시작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친구와 함께 운전면허시험, 은행계좌 열기, 학교 international center 방문하여 학교 카드 만들기와 의료보험 들

기, SSN 신청 등등을 보통 열흘 정도 걸리는 일을 이틀만에 완벽하게 처리하고 운전 도로 주행 시험만 남겨 두었다. 첫 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말로만 듣던 garage sale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가장 값싼 것들을 중심으로 가재도구를 장만하였다. 속옷까지 내 놓고 파는 미국인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누군가 얘기해준 버려진 물건을 주워서 쓰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한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통상 쓸만한 것은 쓰레기통 밖에 두고 못 쓰는 것은 통 안에 버린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하여야 할 일은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일이었다. 아이들이 다닐 학교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3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Logan elementary school이었는데 교무실에서 아이들 입학수속을 하는 도중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1, 3, 5학년에 다니다가 간터라 당연히 3명 모두 초등학교에 갈 걸로 알고 갔는데 큰 아이는 중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미시간 주의 학제는 초등학교는 5년인데 생일 기준으로 12월 1일에서 끊는다고 하니 큰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인근의 Clague middle school로 보내라는 것이었다. 미국에서의 중학교 과정은 한국의 대학과 같아서 적잖이 걱정이 되어서, 큰 아이에게 1년 늦추어서 초등학교에 다니겠냐고 했더니 한사코 제 학년을 들어가겠다고 해서 중학교에 입학을 시켰고 큰 문제없이 잘 적응하였다.

통상 고학년이 되면 누구나 한가지 정도의 악기와 운동을 하도록 권장을 하였고 학기마다 정기연주회가 있었고, 주말마다 축구, 야구 등의 리그가 있어서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 학교 입학시키는데 중요한 서류 중 하나는 예방 접종 확인서인데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야하며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결핵반응검사인데 어릴 때 BCG 를 맞은 우리 나라의 아이들은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결핵 약을 6개월간 복용하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나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는 것이 죄라고 한국에서 교환교수(의과대학이 아닌)로 온 아이들의 부모들은 모두들 용감하게(?) 보건소에서 주치의 사인을 받아서 잘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 용기를 내어서 학교 보건소에 갔더니 워낙 한국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결핵 반응 검사를 받지 않고도 사인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닌가!

기초 생활에 필요한 일들이 정리되고는 지도 교수를 만나서 인사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에 전화로 비서에게 연락을 했다. 사전에 나와 긴밀하게 연락을 했었던 비서장쯤 되는 Jack이 없어서 Dr.Montie의 개인 여비서와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비서는 웬 말이 그렇게도 빠른지 정신없이 지도교수와 면담약속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면담약속이 당연히 8월 24일 인줄 알았는데 9월 24일인 것이 아닌가! 다시 전화를 해서는 8월 24일로 정정하는 해프닝을 겪고는 새삼 전화로 하는 영어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아침 이른 시간의 약속이라 그 전날 병원 구경도 할 겸해서 사전에 답사를 해두었는데 그덕에 쉽게 방을 찾아 약속한 장소로 갔다. 약속시간 보다 다소 일찍 도착을 하였는데 Dr.Jeff라는 중국계 의국장이 먼저 와서 환자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먼저 인사를 하고는 내가 1년간 연수를 왔

노라 했더니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병원생활 전반에 걸쳐 나에게 안내와 설명을 해주어 아주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칠 때쯤 워낙 부지런하고 똑똑하다고 느낀 나는 왜 교수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 뉴 저지로 간다고 하여 동서를 막론하고 돈의 중요함을 보는 듯 하였다.

환자 보고가 끝난 후 지도교수가 과원들에게 인사를 시켜 주었고 특별히 같은 비뇨기 종양을 전공하고 1년간 실제적인 일을 같이 하게 될 Dr.Chery1 Lee라는 여교수를 소개시켜 주었다. 회의가 끝난 후 Dr.Montie의 연구실에서 사전에 연구 주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던 주제에 대해 Dr.Chery1 Lee와 함께 의논을 하였다. 하나는 침윤성 방광종양 환자에서 근치적 방광적출술 후 두가지 다른 orthotopic neobladder 술기를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intratumoral administration of autologous dendritic cells activated by GM-CSF and IL-4 as a tumor vaccine in 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였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1년간 연구를 지속하되 중간 중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에서 하는 모든 관심있는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수술참관도 자기 수술 이외에도 다른 교수의 수술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 위 두 주제 중 첫 번째 논문은 논문을 완성하여 미국 비뇨기과 잡지에 투고를 하였고 두 번째 주제는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귀국을 하게 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으나 저자 독자적으로 신 세포암주에서 dendritic cell의 효과에 대해 현재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본격 연구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Dr.Joshi라는 은퇴한 비뇨기과 의사를 만났다. 개인 병원에서 30년간 진료하던 그는 심근경색을 앓고 난 후 병원 일을 정리하고, 자원봉사를 위해 오전에 병원에 나와서 Dr.Montie의 연구를 돕고 있던 터였는데 나의 모든 일을 도와주겠다고 자청을 하였다. 이 분은 더운 여름 6개월은 시원한 앤아버에서 살고, 추운 겨울 6개월은 켈리포니아 라퀴엔타라는 따뜻한 곳에 살며 황혼을 즐기는 분이었다. 벤츠 오픈 카를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자기가 드라이브를 시켜 주겠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영화에서 볼때 멋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신나게 즐겼는데 본인의 머리숱이 별로 없는 관계로 화상을 입을 뻔 하였다.

같이 출근도 하고 주말에 운동도 하였고 개인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기도 했던 아주 친절한 분이었다. 미국비뇨기과학회에 논문을 구연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에는 본인이 켐코더로 사진을 찍은 후 같이 보면서 잘못된 점을 보면서 지적해 주기도 하였다. 귀국하기 전에는 나, Dr.Montie, Dr.Chery1 Lee, Mr.Bud를 부부동반으로 자기 집에 초대하여 칵테일 파티를 한 후, 앤아버에서 가장 좋다는 레스토랑에서 나의 환송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다. 레스토랑에 가서야 알았지만 언제인가 한국인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춤추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며 식사 후 춤을 출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왔다고 했는데 춤이라면 끌어다 놓은 보리자루인 우리 부부는 거의 고문을 당하고 나왔다. 혹 연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춤을 배워서 가라고 권하고 싶다. 돌이켜 봐도 1년의 미국 생활 중 Dr.Joshi를 만난 건 나에게 큰 행

운이었으며 귀국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미시간 대학 병원이 소재한 곳은 디트로이트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인 앤아버라는 자그마한 도시였다. 도시 규모는 경주와 비슷할 정도로 작았지만 병원 평가에서 미국 내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명한 병원이었으며, 미시간대학교 때문에 생긴 도시라 조용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좋은 아름다운 도시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겨울에 너무 추워서 "미치겠다"하여 "미시간"이고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애나 보라" 고 앤아버라고 유학생들이 부른다 할 정도로 미시간 주 앤아버는 겨울이 길고 추운 도시였다.

미시간 대학병원은 153년 전에 세워졌으며 Taubman center, cancer and geriatric center와 Mott children and women hospital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병원 규모를 여러 명에게 몇 병상이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고 대략 600병상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다소 의외적 답변을 들었다. 비뇨기과의 구성원들은 실험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17명의 교수가 비뇨기종양, 내비뇨기과, 남성과학, 소아비뇨기과, 결석. 배뇨장애 및 요실금 등의 분야로 나누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수 1인당 한 명 혹은 2명의 비서가 진료예약 일정을 잡고 병원에 오는 날에 맞추어 전화와 우편으로 연락을 해 줌으로서 환자의 편의를 봐 주고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배려하여 잡일에 시달리는 우리와는 판이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컨퍼런스는 화요일 비뇨기종양 컨퍼런스, 목요일 아침 비뇨기과 grand round, 금요일 소아 비뇨기과 컨퍼런스가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도너츠나 베글에 커피를 마셔 가면서 진행이 되었고, 인근에 있는 개업의와 보훈병원, 성요셉 병원에서도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금요일 저녁에는 비뇨기과 분야 중 기초적인 회의가 연구동에서 있었으며 교수들이 솔선하여 연구하는 분야를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각 연차별(비뇨기과 수련과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5년이었으며 이 중에는 실험실 1년 근무 포함) 전공의 3명이 분과별로 나누어서 맡은 분야의 일에 서로 간섭 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미국 전역에 비뇨기과 연차 당 180명(한국 연차 당11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귀국을 한달 쯤 남겨둔 시기에 우리 가족은 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하기로 하고 지도교수에게 허락을 받고 서부로 여행을 떠났다. 콜로라도 주의 로키산, 옐로우 스톤, 시애틀을 거쳐 벤쿠버에서 친한 친구와의 해후, 케나다 로키의 장엄함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특히 아내의 재치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기 힘들다는 국립공원 거의 모든 곳에서 텐트를 치고 전기장판을 깔고 자면서 야영했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귀국 직전에는 외과에 소속되어 있던 비뇨기과가 독립된 과로 승격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인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분의 집에서 야외 가족 파티를 하였는데 집 안에 호수가 있으며 구석에서 아메리칸 풋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집이었다. 대화 도중 Dr.Montie와 여러 교수들이 나를 위한 환송 파티를 이렇게 성대하게 하고 있다고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파티 후에는 레지던트, 교

수와 우리 큰 아이까지 어울려 아메리칸 풋볼 시합을 했는데 격의 없이 지내는 모습이 보기에 너무도 좋았다. 파티가 끝날 즈음에 자세히 보니 참가자 모두가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나만 긴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년이 다 가도록 분위기 파악 못한 또 하나의 실수 아닌 실수였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운 겨울 새벽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컨퍼런스, 미국 비뇨기과학회에 구연 발표한 일과 논문제출, 교환 교수들과의 모임을 통한 교제, 친구와 즐겁게 지냈던 시간들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다고 생각된다. 미국, 미시간주 내의 자그마한 도시 앤아버에서의 일 년은 쉼 없이 달려온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특히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희생을 강요하며 잘 챙기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한 많은 시간이 더욱 미덥게 여겨지고 이제 다시금 그 곳이 그리워진다.

(동국의대경주병원 비뇨기과 교수)

의사의 품위



신 은 식

시대의 변천에 따라 수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없어지기도 한다. 최근에 와서는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한때 인기직종이 사라지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직종이 탄생되기도 한다. 직업에는 귀천(貴賤)이 없다고 하나 시절의 변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있게 마련이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8학군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집중되어 몰려드는 바람에 부동산값이 치솟고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은 자녀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더 좋은 대학에 넣고 저하는 욕망 때문이란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것이다. 좋은대학이란 무엇인가. 전통이 있고 안정된 직업을 보장받고 또한 장래가 발전적일 수 있는 학과와 대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다. 선호하는 직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의사란 직업도 비교적 선호하는 직업의 한 부류에 속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것은 각종여론조사상이나 수능점수대의 분포를 보면 능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런 인기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인격적이며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신의학(新醫學)이 도입되면서부터 국제적 의학지식의 교류와 훌륭한 선배 의사들의 인격적인 면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200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겨난다는 데 큰관심을 가지게 된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의사란 자기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평생을 천직으로 알면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잊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주위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게될 것이다. TV드라마에 나오는 고전 사극을 보면 직위에 따라 그 의상이 각각 다르고 공식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직급에 해당하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구사회에서도 고급식당이나 또는 공식만찬에는 반드시 그곳에 알맞은 의상을 갖추어 입어야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양의 예의범절이나 서양의 에티켓이나 동등한 것이다. 옛날 양반들은 배가고파도 구걸하지 않고 대추 한 알로 한끼를 때웠다는 일화는 자기위상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고인 것이다.

최근에 일고 있는 우리주위를 한번 살펴보자. 과연 우리들이 지성과 인격을 두루 갖추고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이고 지도층으로서의 위치에 서 있는가를 한번 반성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병리학의 모 교수님은 병리학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신발부터 머리끝

까지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이어야하고 과학도의 상징인 까운을 깨끗이 다려 입어야만했다. 만일 이런 지시를 위반할시는 학점에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가게 한 시절도 있었다. 그 당시는 괴롭고 너무 봉건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판도 하였으나 그 교수님은 의사가 되려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그 품위를 유지해야 환자들에게 신뢰를 받는다고 강조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지금 나는 그 교수님의 가르침이 병리학 지식보다 더 중요한 인간미를 가르쳤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의사회장으로 있을 때 의사회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시군 순회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시군회장들이나 회원들이 소속의사회장이 왔다고 반갑게 맞이하고 성의 있고 진지한 마음으로 의사회를 위하여 토론하고 인정미 넘치는 대화를 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군부(郡部)의사회를 방문했더니 그곳 회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온 것이 못마땅한 듯 인사도 없으며 심지어 중요한 현안을 이야기해도 남의 이야기처럼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그 자세를 보고 마음속으로 섭섭함과 연민의 정을 느꼈다. 그 후 다른 회원에게 알아보니 평소에도 그런 자세가 습관적이라고 하였음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작년 가뭄이 심하여 비를 기다리던 중 마침 반가운 비가 내리는 어느날 저녁 십여명의 의사들이 예약된 어느식당에 모여 의료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장소에 식당문을 열고 들어서는 한사람이 있어 모두 문쪽으로 얼굴을 돌려보니 허름한 반바지차림에다 비에 젖은 반소매 메리야스에다 신발은 제멋데로인지라 나는 순간 식당배달원이 오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사 회원이 아닌가! 나는 그 순간 놀라고 화가 나서 큰소리로 “예고된 공식모임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런 복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 할 수 있소, 복장이 도대체 그게 무어요”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그분은 운동하러 갔다가 시간이 급하여 이대로 왔노라고 사과를 하였다. 나는 아무리 급하여도 그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하였다. 언젠가 의사회 명부를 발간하는데 사진을 같이 싣기로 하여 각회원들에게 최신 찍은 용모 단정한 사진을 제출해 줄 것을 수차례 통보하였다.

그러나 계속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득히 사무직원이 사진기를 들고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온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출장사진을 마다하고 결국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부상 공백으로 남겨둔 경우도 있고 또 제출해 준 사진도 빛 바래고 오래된 사진이나 또는 야유회 등에서 찍은 복장이 단정하지 못한 사진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마지못해 제출한 사진 등을 볼 때 본인은 물론이요 가족들이 그 명부를 보았을 때 아름답지못한 점을 느꼈을 것이다. 어떻게 영구히 보존할 명부 발간에 성의 없이 이런 실수를 하는가 생각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의 의료정책 잘못으로 최근 의사들의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여러가지 의견이 쏟아지면서 토론도 다양화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건설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스스럼없이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드물게는 직접 보이지 안는다

고 또 자기의견과 다르다고 남에게 인신적인 공격을 가한다던지 또는 예의도 없이 선배후배를 막론하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저질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최고 지성인으로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옛말에 의복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각종모임에 임하는 우리의 복장과 용모를 살펴보자. 분주한 진료활동으로 단정한 정장을 다 갖추지는 못 할망정 어느 정도 기본자세는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긴급한 모임이 아니고 예고된 모임이면 미리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의사가 아닌 외부손님을 초청한 공식행사인 경우 우리회원이 자유분방하고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복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최근 의료광고등의 개선바람이 불고 있는 틈을 편승하여 각종 매체를 통하여 또는 유인물이나 간판 등을 통하여 고소를 금치 못할 내용들이 있음을 종종 본다.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도 자기반성 차원에서 자제해 주기바란다.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난 현실은 무심코 아무런 거리낌없이 하는 행동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습관화되어 타성에 젖어진다. 조그마한 실수가 우리들 회원전체에 막대한 위상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들은 우리 선배님들이 이룩한 오늘날의 위상을 보존하고 그 위상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회원이 긍지를 가지고 품위를 지키며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해야한다. 새로운 의학지식 습득에 게을리하지말며 국민건강의 파수군으로서 자상한 선비정신을 이어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선호하는 인기 있는 직종이 되도록 노력하자.

(포항 / 신정형외과의원장)

신념의 혼돈



김 태 원

세상이 왜 이토록 답답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그토록 긴 역사의 질곡을 해쳐오면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할 덕목이나 가치도 어느 정도 터득할 수 있었고 반대로, 무엇이 잘못이고 어떤 것은 버려야 하며, 두 번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고 위태롭게 돌아가고 있으니 과연 인간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합당한 것인지, 어디 눈을 돌려 보아라. 보이고 들리는 것이라곤 온통 시궁창 같은 냄새뿐이요. 죽고 죽이는 처절한 핏빛뿐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물 가운데 어느것 한가지 뜻이 없는 것이 어디 있으며, 소외 받거나 도퇴되어야 할 대상이 어디 있는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가 그렇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 같은 돌맹이 하나가 그렇지 않는가. 모두가 필요한 곳에 적절한 모습으로 존재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세상은 아름답고 유연하게 유지되며,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주의 모든 개체는 서로간의 유기적인 관여로 생존의 의미를 두텁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인간만이 그러한 관계를 부정하는 것 같아 짐짓 서글프고 안타까울 뿐이다. 사실 인간처럼 생각할 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행동할 줄 아는 고등동물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분명히 선택받은 천부의 연예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러한 선택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정당하고 분명한 위치에 올려 놓아야 하며,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가꾸고 다듬어야 하며, 보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주를 위해 진취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소명같은 것이다.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인간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인 만큼 언제나 흐트러질 수 있다. 무의식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뜻하지 않은 자기 함몰도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자기 도취나 지나친 허욕, 광끼어린 명예욕이나 오만스런 지배욕에 사로잡혀 타인의 가슴에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남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여 오만하고 추악한 노래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냥 씨뿌려 돋아나는 풀잎처럼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모르긴 해도 다 뜻이 있어 생명을 얻었을 것이고, 무언가 필요한 가치에 의해서 삶을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값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덕있는 사람은 덕성으로 모두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세상과 역사 앞에 무언가 작은 발자국이라도 남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내 삶의 가치에 대하여, 내 신

념과 정열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느낀적이 없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간단하지가 않다. 남들처럼 사색할 여유도 없고, 낭만을 즐길 시간도 없다. 모든 시공을 타인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그야말로 감옥속의 직업이다. 온종일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스다듬는 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가련하고 참담하게 느껴져 어디론가 멀리멀리 탈출하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용하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가치에 대한 신념 때문이었다. 즉 내가 의사가 된 것은 단순히 내 스스로의 희망감에서 노력하고 인내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능력에 의하여 부여된 소명이란 인식을 갖게 되었으므로 섣불리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의약분업 갈등이 대두되면서 그동안 유지해 온 내 신념은 심한 혼돈을 맞게 되었다. 그럴것이 조그만 공간에 갇혀 생활하면서 만나는 얼굴마다 아무리 뜯어 보아도 웃음기라고는 없는 그들 지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한번도 얼굴 찌푸린 일이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한부 파업에 동참했고 붉은 띠를 동여매고 목이 터져라 분노를 분출하는 그 현장에 서성거리기도 했다. 그때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적어도 지고한 인간 생명 문제에 관여하는 의사의 긍지가 한꺼번에 추락하는 기분이었고, 마치 속된 뒷골목에 떠밀려 다니는 넋나간 사람처럼 느껴졌다.

세상 모든 이익집단이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 광야로 뛰어나가 기염을 토해도 생명의 고통을 마주하는 우리들 의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자괴감과 오직했으면 거리로 뛰어 나와야 했을까 하는 분노가 겹쳐 지금까지 견지해 온 내 신념에 상처를 받은 것은 물론 모든 자존심과 이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우리들 스스로가 자초한 허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직 개혁이란 이상에 몰입하여 추진한 정책 허실에서 빚어진 결과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력도 없는 꾼들과 관료집단의 작란같은 실정에 우리들의 자존심을 시궁창에 몰아 넣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과 생활에 혼돈과 고통을 안겨준 것이다.

어디 의료분업 뿐인가. 교육정책이 그러했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이 그러했다. 사회 각분야의 개혁추진도 시원한 구석이 없었고, 부정부패의 악순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세상은 답답하게 느껴지고 미래나 행복추구도 안개속을 걷는 것처럼 아물거릴 뿐이다. 정녕 모든 국민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긍지를 높이고 시대와 역사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신념과 신뢰를 안겨줄 그런 세상 그런 지도자는 요원한 것인가?

(영천 / 성신의원장)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및 그 개정(안)에 대한 의의와 우리들의 바람



김 두 희

우리 나라가 진정 합헌 민주주의인가! 중앙집권적 독재주의인가! 적어도 우리 분야에서는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중세 사람들처럼 한 손에 3권을 쥐고 백성들의 병까지 고급 벼슬아치 한 사람이 다 고쳐 주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세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인걸로 밖에 인정할 수 없겠다. 붓다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을 일러주시고, 노자와 공자는 자연의 이치를 깨우쳐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셨으며, 예수는 소외된 계층을 어루만져 주셨다. 진정 나라의 병을 고쳐주는 대의(大醫)이라면 아직은 이런 성인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아주 드물게는 저 누구처럼 매스컴을 주름잡으며 위 성인들을 능가한다는 자기의 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기는 하나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복지사회를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알고 있다.

의사들에게 계속 이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면허된 의사들은 바로 그러한 대의의 일을 대행하기 위하여 자원한 국민 건강의 파수꾼이다. 비록 파수꾼이라고는 하나 그들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인정을 받고싶은 것이다.

그런데 의사들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도와줌으로서 복지국가 지향주의 선봉장으로서 노력하는 것만큼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최소한의 자존심까지도 짓밟고 무자비한 칼자루를 마구 휘두른다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주인답지 못하다. 그동안 의사들의 분노를 터트리게 한 원인은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지만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조치에 또 다시 분노가 치솟는다.

글쎄, 의사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차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의사의 등급을 매겨 지불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당하게 만들어진 제도하에서 정당하게 공부시키고(각 대학의 의학교육의 목표) 정당한 국가시험을 치르게 하여 선발한 사람에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면 그게 기본되는 자격임으로 일단 그 첫 번째 단계인 [의사면허소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 국가의 지당함을 믿고 순순히 따를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사사건건이 어긋나기만 하니 누구를 믿고 가만히 있겠는가!

어찌하여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 일차의료의 기본 진료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다시 말하면 [일차의료를 위해서 양성된 것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이고 전문의는 그 다음의 필요성에 따라 운용되는 분야로 의사면허의 기 소지자가 한 걸음 더 전문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고로 일차의료는 그 모법(母法)에 의한 의사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를 해줌으

로써 신뢰를 받을 일일 게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1]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1부 일반원칙 중 [I. 일반기준 10항(의료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 부속요양기관에 대한 처우)]과 [신설된 III. "차등수가"라는게 첫째 문제요, [제2부 제1장 기본진료의 산정지침 중 일부]가 그 두번째 문제다.

이러한 차등을 수가로 하여금 의사의 자존심인 기본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로 깎아 내린 현상이라고 본다. 진실한 의사면허 소지자라면 하루의 적정 진료 건수는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될 일이나 만약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대중없이 하루 수백 명을 진료하였다면 그것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인정됨으로 동료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은 뻔하다.

그러나 이처럼 권력층에서 강제로 그것도 당치도 않게 한 단계 높은 전문의 자격을 기준으로 차등지급 하게 한다면 모법인 의료법을 스스로 무시하는 행위가 될 뿐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는 행위가 됨으로써 국가시책에 대한 협조 얻기가 어렵게 될 것은 뻔하다. 그 적정 진료 수는 이미 의료법에서 외래환자 60명으로 정해져 오래도록 시행 되 있는 일인데 여기서는 그보다 늘려서 75명으로 새 기준을 정하고 인심을 쓰는척 하면서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로 감액지불 한다는 것은 어디서 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가"군에 해당되는 전문의들은 전공선택을 잘하였다고 이러한 당국의 무도한 행위에 영합하지 말 것이며 "나"·"다"·"라"군의 처절한 동료들의 처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의료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 부속의원에서의 초진환자를 초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재진으로만 인정 청구하게 하는 것[2]또한 언어도단이라 하겠다.

또 제2부 제1장 기본진료의 산정지침 중 진찰료 "가"항을 보았다.

내용은 외래환자의 경우 기본진찰료(초진료와 재진료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은 좋은데 그 2항에는 진찰 의사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는 기상천외의 입법 적용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복지부 장관은 자기이름으로 발급한 의사면허를 스스로 무시한 자승자박 행위를 한 것이다. 지금 기본 진찰료라는 말을 만들어 냈듯이 의료행위의 기본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부하게 한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그 제2조 2항 및 17 조에 의한 전문의의 전문과목 등인 것인데 어떻게 하여 기본진찰료를 전문의사 종류별로 가·나·다·라(치과의사는 별도규정)군으로 만들어 차등을 지어 지급한다는 말인가! 정말 놀랍고도 안타깝다.

물론 "초진" "재진"이라는 정의와 진찰료의 차이는 인정할만하나 진찰의사의 기본은 의사면허이고 전문의사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격자가 아니고 면허된 의사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기에 나름대로의 이점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어찌하여 모법을 무시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려면 의사면허 대신 처음부터 전문의사면허를 발급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가"군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의는 상대적으로 그 가치관을 잃게 됨으로써 균형이 깨어

질 뿐 아니라 당사자들은 정말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마침 대한의사협회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투쟁을 한다는 보도를 보니 다행한 일이며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와중에 또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 야기되고 있어 혼란을 거듭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방사선 · 초음파 진단기 등은 이미 양 · 한방 공동으로 취급한다는 경향까지 비추이고 있으니 그 한계가 모호하게 전개될 것을 느낀다[3]

한 나라의 장관이 이처럼 말썽날 일을 자꾸 "고시"라는 용어를 던진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남의 기본권을 흔드는 옹졸한 수단에 불과하다 하겠다. 아마도 권력 남용으로 치부해도 할 말 없을 것 같다.

최근 의료영역이 확대되면서 특정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전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이들의 유사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또 기존의 의료행위 영역과는 다른 성격의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의료와 관련된 인력들의 역할의 범위와 자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4]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행정부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필요로 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너그러운 아량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IMF를 갚고 또 흑자를 내겠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야할 것이다.

(경북의대 명예교수)

1)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67호)와 그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1-32호, 2001년 7월 1일 시행)
2)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2001년 1월판. 대한의사협회
3) 이정환 : 한방의료행위 전문위. 청년의사 제99 · 100 합본호 2001년 12월 31일.
4) 손명세 : 한방의료행위 전문위. 청년의사 제99 · 100 합본호 2001년 12월 31일



경북의학제 삼행시 입선작품

◈ 장 원 : 황 종 선(김천방사선과의원. 가족)
시 제 : 과천결의
과연 의보재정파탄이 의사의 부당청구의 책임이던가
천지가 다 아는 사실을 언론공작으로 의사를 매도하니
결연코 의권을 위해, 의사의 진실을 위하여
의연히 일어서 전투를 다시 시작하리라.

◈ 차 상 : 안 길 영(김천 · 한양정형외과의원)
시 제 : 의 학 제
의사로 사는 길이 어렵고 힘들구나
학문과 기술도 겸비해야 하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윤리인가 하노라!

◈ 차 상 : 강 행 복(경주 · 강이비인후과의원)
시 제 : 한 마 음
한마음 한뜻으로 의사들은 단결하고
마지막 한사람까지 몸을 던져서
음흉한 정부책략을 끝까지 분쇄하자

◈ 차 하 : 김 광 숙(안동 · 윤소아과의원. 가족)
시 제 : 의 학 제
의보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린 이 땅의 슬픈 의사들
학같은 품위로 인술을 펴는 것은 그 옛날의 꿈
제반의 사정이 이럴진데 고통분담 웬 말 이던가.

◈ 차 하 : 최 시 영(포항 · 대 송 의 원)
시 제 : 석 굴 암
석고대죄 한들 석벽대죄 한들 상처받은 이 마음이 풀리리오
굴욕과 수치의 풍상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초 의사들이여!
암중모색 대동단결하여 순풍시대 바라보세....

◈ 차 하 : 권 세 홍(안동 · 권방사선과의원)
시 제 : 의 학 제
의젓하고 슬기로운 님이 살았던 서라벌
학문의 도반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제대로 된 의사의 길을 되짚어 봅니다.

◈ 참 방 : 김 용 대(경주 · 김용대피부과의원)
시 제 : 석 굴 암
석가시대에나 있을 비열한 방법으로 의사를 탄압하지만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우리모두 일치단결하여
암울한 현실을 슬기롭게 타계해 나갑시다!!!

◈ 참 방 : 정 만 진(영천 · 정만진소아과의원)
시 제 : 의 학 제
의사들이 교과서대로 진료한 것을
학문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맘대로 삭감하고 도둑으로 몰아부치네

◈ 참 방 : 김 효 정(구미 · 박정돈산부인과의원. 가족)
시 제 : 석 굴 암
석연치 않던 의약분업으로 국민생활 불편케 했지만
굴하지 않은 우리 의사들의 현명한 지혜로 이겨낼거야
암! 이겨내고 말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의사들인데....

개혁과 위기의 의료계, 그 극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일 시 : 2001년 12월 4일 오후 7시
장 소 : 경주 코오롱호텔 금관홀

참 석 자

변 영 우 : 경상북도의사회장
사회 및 정리 : 기획이사 정만진(영천시의사회장)
이병채(70세) : 포항 이병채산부인과 원로회원(전·경북도의사회장)
유동명(54세) : 안동 유동명정형외과, 본회 부회장
최을임(45세) : 포항 최소아과, 여의사 대표(포항시의사회 부회장)
김병국(45세) : 구미 차병원 진료부장, 정형외과 과장
권영대(42세) : 안동 성소병원 신경외과 과장, 봉직의
송준석(41세) : 경주 연세가정의학과, 개원의
박영복(32세) : 동국대 경주병원 산부인과 3년차, 전공의 대표
옵 서 버 : 권세홍 안동시의사회장, 김재왕 편집위원

편집자 주(註)

우리는 지난 2년여에 걸쳐 잘못된 의약분업에 대항하여 의권(醫權)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사들은 얻은 것도 많았고,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장충 체육관에서, 여의도에서, 그리고 태풍 속에서도 한 점 흐트러짐 없었던 보라매 공원 집회을 통하여 우리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MAIN의 프라자에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그리고 의사 회관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의 부끄러운 내부 분열상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가슴아프고 힘들었던 과정을 거쳐 직선 의협 회장을 탄생시킴으로서 의권 쟁취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의료정책으로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의사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이자 전환기에 접어든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지(衆智)를 모으기 위하여 특집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좌담회의 논제와 방법 그리고 참석자의 선정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경북 의사회보 발간 편집위원들이 수 차례의 회합을 가졌습니다. 결국 남녀노소와 직역별 조화를 고려하여 원로회원에서부터 전공의 선생님까지 일곱 분을 모시고 경북 의사회 최초의 좌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겸하여 오후 7시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30분에 걸쳐 진지하고 열띤 대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동서남북 원근(遠近)에서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북 의사회지의 이 새로운 시도(試圖)가 회지 발달의 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획에 대하여 경북 의사회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指導鞭撻) 있기를 바랍니다.

▣ 경북 의사 회장 인사말 요약

오늘 이와 같은 좌담회는 경북의사회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입니다. 의협과 경북 의사회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하여 직역별, 지역별, 연령별로 회원님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분으로써 작년 투쟁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현 의료계 상황도 잘 파악하고 계신 의식이 깨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 패널로 모셨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시군 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직선 의협회장이 선출 된 후에 우리 회원들은 신임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기대는 너무 크고, 회무에는 너무 무관심하여 직선 회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북의사회원들은 언제나 의협 업무에 앞장서서 협조하며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의협을 돕는 것이 의권을 찾는 일이요 우리 의사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의협을 돕는 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협 회비 100% 납부, 공제회 전원가입등 회원으로서 의무를 하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의협 사랑이고, 나아가서 나라 사랑입니다. 현재 나라 사정도 안 좋고, 의료계 사정도 그렇습니다. 누가 의협 회장을 해도 어렵습니다. 1년 반 정도의 임기를 가진 직선 회장을 잘 도와주며 일치 단결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경북의사회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적절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기바랍니다. 생방이 아니고 녹음, 녹화하여 편집하겠으나 편안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담회 내용을 경북의사회지에 신년 특집으로 크게 싣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잘 나오도록 찍



〈변 영 우 회장〉

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회자 : 바쁜 업무를 접어 두시고 원근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경북의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이와 같은 특집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집 좌담회라고 해서 특별히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소주잔 앞에 두고 평소에 선후배 또는 친구들과 하던 이야기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투쟁 때는 때로 분위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마음대로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마음놓으시고,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모두가 Yes할 때 No 라고 하셔도 되고, 모두가 No 할 때 Yes" 라고 자유스럽게 말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발언 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해도 곤란하니 가능하면 2-3분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좌담 내용은 녹음하고, 필요시 요약 편집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옵서버로 참석하신 분은 원칙적으로 발언권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회장님을 비롯하여 세 분 옵서버에게도 요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두 번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몇 가지 주제 중에서 전환기의 의료계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원로 회원이신 이병채 전임 경북 의사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만 진〉

이병채 : 오랫동안 의협 임원으로 일한 경험으로 볼 때 회장이 바뀔 때는 일시적 공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임 회장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정책을 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더욱이 신임 직선 회장은 의협 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이사들도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병 채〉

투쟁 의식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대정부, 대국회, 대회원들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합하여 투쟁의 열정을 되살려야 의협이 살고, 우리가 삽니다.

사회자 : 이병채 회장님 발언 시간이 7분 30초 걸렸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stop watch 기능이 있어 측정해 봤습니다. 약간 긴 것 같으니 다른 참석자 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갑니까?

송준석 : 현재 주변의 개원 의사들을 만나보면 모두 한결같이 "진료환경이 너무도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의약분업 이후 지금까지 모든 정부의 정책이 부족한 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우리 의사들을 억누르는 데만 주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의 ABC로의 평가, 진찰료의 차등화, 수신자 조회, 과도한 부당 삭감 그리고 최근의 일반의약품 확대 등 어느 하나도 의사들을 마음 편하게 하는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

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모든 회원들은 새로 탄생한 민주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때문입니다. 회원 각자는 의약분업뿐만 아니라 의료제도개선 등 의료계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회비 100%납부와 공제회가입 등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송 준 석〉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식의 패배감 좌절감은 버려야 할 것이며, 의료의 주체인 우리가 끝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重且大)한 시기에 경북의사회는 시군의사회와 협력하고 독려하여 제대로 된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권영대 : 제가 오늘 참석자 중에서 전공의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제일 나이가 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안동시의사회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봉직하고 있는 회원들도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직의 대표로 참석한 저의 책임이 무거워 짐을 느낍니다.

우리가 단합하여 이 어렵고 전환기적인 의료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윤리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본인도 의사 윤리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의사윤리에는 의사들이 지켜야할 모든 기본적인 자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성찰(省察)을 통하여 의사 윤리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때는 의사회 차원의 제재(制裁)도 필요합니다. 변호사회에서는 자체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윤리문제를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사 윤리 지침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자율(自律)'이라는 말은 듣기 좋고 점잖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물론 우리 의료계에서 조차 자율적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료계의 일을 맡아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자율이라는 용어에 머리를 흔듭니다. 권 선생님의 말씀은 의사 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때로 제재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유동명 : 현 의협 집행부는 패기와 열정은 있으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도의사회장이나 의협의 경험 있는 선배들은 물론 모든 회원들이 열심히 밖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의협 집행부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단체로써 정책 개발을 해야합니다. 전문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상임 이사들이 전문화에 앞장서야 하며, 책임 있는 사람, 책임지는 의사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 동 명〉

최을임 : 지난해 우리는 열심히 투쟁하였으나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오직 우리 집단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계도 사회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며 행동 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회원들이 무관심과 실의에 빠진 이유는 지난해 투쟁에서 확실하게 얻은 것이 없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는 조급증을 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우리의 요구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차근차근히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최 을 임>

앞으로 의협도 정치 세력화 하여 당선 낙선 운동에도 관여하고, 의사 정치인들도 많이 배출하고, 사회단체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힘을 배양해야 합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봉사 단체에도 가입하여 봉사도 하고, 여론도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야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의사들을 각개격파(各個擊破)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의사 사회를 분열시킴으로서 의사와 의협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그것이 곧 자기의 이익이 됩니다.

사회자 : 우리 의사들은 모두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실제 행동을 보면 매우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김병국 : 오늘 참석자 중에서도 중간이고, 병원에서도 중간 간부급입니다. 그러므로 봉직을 하면서도 경영자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조카가 수능 성적이 좋은 편인데 의과대학 간다고 설칩니다. 왜 의대에 지원하는 지를 물어보니 "IMF 때 보니까 그래도 의사들이 돈 제일잘 벌고 잘 살더라"고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돈 버는데 관심 많습디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는 곧 돈 잘 번 다는 등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혜택받은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리더로서 봉사할 줄 알아야합니다. 우리가 비록 투쟁을 하더라도 노동자 집단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정치 세력화 하려면 공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됩니다. 리더로서의 책무와 봉사에 관심을 가질 때만이 의사회가 정치 세력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 개개인이 자정(自淨)하고 자성(自省)해야 하며, 자체 징계(懲戒)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 병 국>

박영복 : IR 대표 맡은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난해부터 의료계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개원가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따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의료계 문제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조직화에서, 다시 말해서 머리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되며, 다른 직역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

다. 인턴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을 홍보요원으로 잘 활용하면 환자들을 상대로 우리 의료계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턴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의사회 회원으로서 역할을 시키려면 강력한 지도체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의협 회장 직선제 투표 시에 1년 회비를 내야 투표권을 얻기 때문에 모아두었던 I&R 회비 모두 회비내는데 써버렸을 정도입니다.


<박 영 복>

사회자 : 지금과 같은 의료정책이 계속되면 2010년에는 의사들의 월수입이 300만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수련의 선생님들은 향후 의사들의 위상내지는 처우에 관하여 어떤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박영복 : 앞으로도 의사들이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빨리 전문의 따서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돈을 왕창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 30%정도의 학생들은 불만스럽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그 중 소수는 실제로 의과대학을 그만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병채 : 수련의 선생님들이 잘 안 되는 것은 기존 의사 들의 책임이 큽니다.

의대생들도 한의대나 약대생 처럼 투쟁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권세홍 : 의사들도 너무 의료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는 인간학입니다. 인문학 생태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대생들에게도 교양이나 인격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의대를 지망하고자하는 실력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상대로 의사의 길은 이런 것이다 하고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자폐적인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개방적인 교육은 물론 동호회나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학술대회 시에도 의학 이외의 철학이나 음악 등에 관한 과목도 넣어볼 만 합니다.

"의사들도 인문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참여가 필요할 때다"

김재왕 : 의사들은 의료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의과대학 시절 의학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문적 지식은 훌륭한 도구요 바탕은 인간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의사들이 가진 전문적 지식을 사회를 위한 활동에 써야 합니다. 국민들은 환경오염이나 수돗물의 안전성, 광우병에 걸린 소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전문성 없는 NGO의 말에 오히려 귀 기울입니다. 의사는 꿀 먹은 벙어리이고 말입니다. 위생과 환경보건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이 정확한 결과를 발표해줄때

국민들은 의사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의사들이 존경 받는 것은 서부 개척시대부터 의사들이 포괄적인 의료개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활동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합당한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고 나만 잘 살겠다는 의사를 누가 존경합니까?

사회자 : 일부 회원들은 의협에 관심도 없고, 의사회의 모임에 참석도 하지 않고, 의협 회비도 납부하지 않고, 의사 윤리에 반하는 행동으로 오직 나만 잘 살겠다는 어글리(ugly) 닥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Ugly Doctor 에겐 반드시 제제가 필요하다

최을임 : 포항시의사회에서도 그런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의 감염성 폐기물(적출물)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후부터 항복하고 의사회 일에 협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잘못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와같은 방법은 상당히 강한 압박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 의사회가 취할 수 있는 제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채 : 우리 의사회가 너무 강력하게 나가면 제 2의 의사 단체가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직선 회장 투표 시 1년 회비 납부는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 미납 회원은 선거권 줘서는 안됩니다.

사회자 : 제2의 의사 단체 구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회에 비협조적 인 회원들은 게을러서 그런 단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권영대 : 표나지 않게 비협조적이고 게으름 피우는 회원이 더 문제입니다. 회비 미납 등 비협조적인 사람을 회



〈권 영 대〉

람이나 회보에 공개하니, 처음에는 항의도 하고 욕도 하지만 결국은 따라오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압박을 주고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회자 : 자율이란 말은 좋아도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트 집단이라 자처하는 의료계도 어느 정도의 제제가 필요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습니다.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즉 의협 신보 배포 중지, 의협 전산망(kmain)사용중지, 선거권과 피 선거권 제한, 공문 및 회람 배포 중지, 의사 회원명부 등재 유보 등의 수단을 동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변영우 : 지난해 투쟁시에 불평 불만이 많은 회

원들 중에 막상 의협 회비 안낸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회원들 중 의협 회장을 직선으로 뽑으면 회비를 내겠다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11월말 현재 의협 회비 납부율이 4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병국 : 현재 회비 납부가 4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합 병원에서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회 탈퇴하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의사들은 그렇지 못하여의무를 소홀히 하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사회자 : 주제를 바꿔서 강한 의협이 되기 위해서는 의협 상근(常勤) 임원의 확대는물론 지역 의사회 임원의 상근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근 임원이 늘어나면 경비가 늘어나고, 회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근 문제와 상근 임원의 처우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변영우 : 전국의 상근 임원 현황을 보면 의협에는 현재 회장을 제외하고 4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상근 부회장까지 5명이 상근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협의 상근 부회장은 임명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는 의협의 총무이사, 정책이사, 보험이사, 공보이사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장이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으로 직선으로 선출된 후 유급으로 바뀌어 상근하고 있습니다. 유성희 회장 시절 상근 부회장의 대우는 월 400여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쟁투나 비대위 상근위원들의 처우를 현실화 시킨 이후 근무 수당이 상당히 증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직선 회장이더라도 경기도 의사회장은 월 약 600여만원의 수당에다 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직선회장은 상근 하지 않고 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상근 임원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충분한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월 1000만원 가까이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회원 정서상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앞으로 시도의사회에도 상근 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협 사랑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부터, 의무를 다하는 것은 100% 회비납부부터"

이병채 : 사단 법인단체에서 상근 하는 임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병원을 비우는데 대한 거마비(車馬費) 정도로 충분합니다. 임원 된 사람은 봉사의 의미도 있고, 무급으로 일하면 본인도 떳떳합니다. 경기도 의사회장 유급 상근 때문에 경기도 회원중에 회비 안내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지역의사회의 상근 임원 문제는 시기상조(時機尙早)입니다. 차라리 의사 이외의 전문가 상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 상근을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권영대 : 우리 의협의 임원들이 복지부의 정책

이론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팔한 복지부 엘리트들을 능가하려면 더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급제의 상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병채 : 급한 분야부터 상근 하는 것이 좋고, 유급제가 꼭 필요하다면 연봉제로 해야합니다.

송준석 : 의료의 중심인 의사회가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만들어서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상근 의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앙 의협과의 업무 중복성을 고려하여 도의사회는 회장 일인 정도만 상근으로 하고 그 처우는 대진의 보수+a 정도를 활동비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듯이 우리 경북의사회에서도 "의료정책연구회"를 만들고 정기적인 모임을 활성화하여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중앙 의협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협임원의 상근제는? 시도회장의 有給제도는?

권세홍 : 유급 상근이 의협 정관상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 의사회장도 앞으로 나이가 젊어지고, 활동 지역도 넓으니 충분한 거마비를 줘야합니다.

최을임 : 도 의사회와 도 의사회장이 꼭필요합니까? 시군의사회에서 의협으로 직접 업무를 처리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의사회장의 상근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전문지식을 갖춘 유급 직원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포항이나 구미 같이 큰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군 단위의 의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김병국 : 의사회장은 명예직입니다. 유급은 말도 안 됩니다. 도 의사회장은 큰 명예만으로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유동명 :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도 의사회는 업무 영역도 넓고 할 일도 많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40대 도 의사회장이 나온다면 병원일 치우고 의사회 일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변영우 : 경북 의사 회장을 당장 유급제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장이 아니더라도 능력 있고 필요한 사람. 이사를 유급제로 고려해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멀리 본다면 조직관리의 효율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으로는 대구의사회와 경북의사회가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 도의사회장의 직선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복 : 저도 직선으로 인턴 레지던트 장이 되

었습니다. 직선제의 장단점이 많지만 직선제를 통해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있고, 직선제 과정에서 여러 회원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김병국 : 도 의사회장, 의협회장, 대통령까지도 직선제 반대입니다. 솔직히 신상진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단지 잘 알려져 있기에 찍었습니다. 제가 소속한 병원의 대부분의 과장들도 다 그랬습니다. 도 의사회장도 직선제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누가 유능하고 훌륭한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알려진 사람이 당선되기 쉬운 것이 직선제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간선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준석 : 직선 회장 필요성은 전임 김재정 회장의 실책으로부터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북의사회는 변영우 회장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단결된 투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경북의사회 캠페인으로 전개되고 있는 의협회비 100%납부, 공제회 전원가입, 의협배지 달기 운동등 “의협 사랑하기” 운동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전국 7만 의사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신임 회장단에 힘을 실어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회장님의 임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차기부터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선제가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입후보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후보가 당선된다는 문제점도 있어 좀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직선제가 대세이나 문제점도 안고 있어.....

유동명 : 경북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지부입니다. 그러므로 의협의 정관을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그러므로 경북 회장도 직선으로 가야하고, 직선으로 뽑힌 회장이라야 회원들을 확실하게 장악 할 수 있고, 회원들도 반발을 못합니다. 도 의사회장도직선제가 필요합니다.

이병채 : 경북의사회가 의협 정관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포항시 의사 회장은 직선입니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입니다. 대의원을 선출하여 회장을 뽑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번 의협 회장 직선은 김재정 전임 회장을 축출하기 위하여 대두된 것입니다.

변영우 회장 : 시도 회장의 직선 선출 문제는 경북 의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로 시도회장단회의나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 될 것으로 봅니다. 내가 듣기로는 의협 상부에서도 직선 투표제의 문제점을 알고 보완책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직선 선출입니다.

사회자 : 회장뿐만 아니라 중앙 대의원도 직선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두 모두 직선 한다면 그 선거 운동과 관리도 쉽지 않고, 의사들이 선거에만 매달려 주겠습니까? 직선제 문제는 이 정

도하고, 선택 분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보험 제외 일반 의약품이 증가한 이후부터 약국에서는 임의조제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 재정이 부족하고, 임의조제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의료계가 나아갈 길은 선택분업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의협 집행부의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택분업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을임 : 의약분업은 정부가 의료경비를 절감하자는 것이었으나 현 의약분업은 경비만 더 들고 누더기만 되었습니다. 의료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임의조제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약물 오 남용을 줄이겠다는 의약분업 본래 취지를 부정하는 선택분업을 우리 의사들이 먼저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선택분업을 주장하고 있고, 선택분업에 대하여 약사들의 저항이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리가 먼저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못이기는 척 따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택분업이 최선의 대안인가? 선택분업 시범사업부터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

변영우 : 그렇다면 현 제도대로 가자는 말입니까?

최을임 : 보완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권영대 : 잘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있기에 의협에서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협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병채 : 선택분업과 임의분업의 명확한 정의(定議)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처방전이 필요하고, 현재 약 70%정도 의약분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잘 안 된다면 우리도 잘 안 됩니다.

김재왕 : 내과라서 약을 많이 씁니다. 최선생 생각과 같이 지금 우리가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부나 약사회도 선택분업의 복안을 갖고 있는데 약사의 간단한 질병에 대한 임의조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사는 모든 병이 간단한 병입니다. SLE도 그냥 감기 몸살입니다. 약사의 임의조제를 불허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모를까, 글쎄요? 복잡해질 것입니다. 의사가 조제권을 상징적으로 갖는데는 나도 당연히 찬성입니다.

변영우 : 일반 의약품의 숫자를 증가시키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분업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회자 : 참고로 오늘여기 모인 사람 중에 선택분업을 찬성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어떤 형태의 선택분업인지 확실히 하지 않고 찬반 의사를

묻는 것은 의의가 떨어지지만, 선택분업의 원래 취지로 생각하고 찬반 물은 결과 찬성 8명, 반대 1명)

송준석 : 최근 서울시 약사회에서는 "선택분업 저지와 의료 일원화"를 위한 투쟁기구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즉 현재 약사회에서는 선택분업저지를 그들의 최고의 투쟁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모순 투성이의 의약분업을 생각하면 선택분업은 한번 시행해 볼만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도시 1-2군데를 지정하여 3-6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선택분업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편의성, 전체의료비의 증감정도, 약의 오 남용 정도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해당 주민들에게 알린 후 해당지역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현재의 의약분업과 시범 사업한 선택분업 중에서 주민이 직접 선택하게 만든다면, 국민, 정부 모두에게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제도가 선택되리라 생각됩니다.

선택분업을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의 우려는 선택분업을 하게되면, 의약분업 이전으로 회귀되어 약사의 임의조제가 부활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면 이해가 가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임의조제 근절이 이루어 진 것도 아니고 현재도 정부가 재정절감을 위하여 일반의약품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택분업 한다고 그 상황이 더 악화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의 입지를 상당히 인정해주고 있는 현정부 하에서는 현실적으로선택분업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임의 조제 대체 조제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사회자 : 의협이 운영하는 인터넷망인 KMAIN은 그동안 회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수렴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통신망 속에서만 떠들어대는 일부 회원들의 지나친 논쟁과 상호비방 그리고 도저히 의사들의 언어라고 볼 수 없는 저속하고 직설적인 표현 등의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의협 통신망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기 바랍니다.

송준석 : KMAIN에서 회원들 사이에 이전투구(泥田鬪狗) 하는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협 집행부의 책임도 크고, 정부도 이와 같이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새 집행부가 구성되는 어정쩡한 시기라서 회원들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많이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이병채 : 공개된 곳에서 우리가 뽑은 회장을 욕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윤리위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영우 : 통신에 글을 올리는 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니 만큼 품격이 있어야합니다. 경북회원님들은 품위있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On line에서는 opinion leader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 Off line 상에서는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의견을 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의 좌담회는 어떤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4시간 30여분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오늘이 좌담회는 경북의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경북의사 회지의 한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되며, 우리 경북의 의사 독자들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여길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먼길 살펴 가시기 바랍니다.

변영우 : 오늘 결론을 내린 것은 없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의의(意義)있고 진지한 좌담회였습니다.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현 집행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는 적게하고 협조는 많이 하여 의협을 사랑하고, 그래서 의권을 되찾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합시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 약 분 업
철 폐 하 라 !



6 · 3 과천 전국의사 결의대회



연대사를 하고 있는 변영우회장

6·3 결의대회



폭염속 과천벌의 안동시 의사회원



의협 지도부의 만세 삼창!



의사탄압 중단하라, 의권투쟁 계속하자



선배 영령들이여 굽어 살피소서

6·3 결의대회



실패한 의약분업, 의사탄압 왠말인가



계속하자 계속하자, 의권투쟁 계속하자



1.27장충체육관 전국의사 결의대회



날려버리자 의약분업, 수호하자 진료권

1.27 결의대회



한마음 한뜻으로 의권쟁취를 외치는 시도의사회장



시도회장을 대표한 변영우회장의 연대사



심각한 표정의 의료계 내외 귀빈들



경상북도의사회 임원들의 결연한 모습

1.27 결의대회



경상북도 의사회원들의 결연한 모습



파도타기를 하고 있는 경북의사회원들



실패한 의약분업 사상누각 파괴



시민단체 반성했다. 정부도 반성해라

보험재정 파탄책임 전가에 경악

결연한 의지 밝히는 성명서 채택

본회 제50차 정기총회 성료

3월 29일(목) 코오롱호텔서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3월 29일 제50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보험재정 파탄을 의료계 책임으로 호도하는 현상황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대의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기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총회는 변영우회장의 인사에 이어 김재정 의협회장의 격려사와 이의근 경북지사(김주섭 행정부지사 대독) 박길수 의협의장 및 한나라당 김찬우 국회의원 등 내빈축사가 있은 다음 본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대내외 인사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김재정 의협회장과 김방철 보험이사, 김세곤 의무이사가 배석한 가운데 의약정 협의안의 훼손없는 약사법 개정과 보험재정 파탄대책, 강한 의협 만들기 위한 자정활동 강화 등에 대한 의협의 대응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있은 다음 보험재정 파탄과 의약분업 실패에 대한 의사책임 호도에 강력 대처할 것을 다짐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계몽, 의학교육 및 의사연수교육 사업, 의권신장 정책 등 올 추진 사업계획과 개원회원 3만원 회비인상 등을 전제로 작년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안심의에선 ▲원외처방전 서식 개선 ▲의약분업 위반사항 대책 ▲예방백신 원활 공급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 ▲감염성 폐기물 관련업무 간소화 ▲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불법의료행위 근절 ▲중풍레이저, 생혈분석기 의료행위 근절 ▲복지법인 규제 및 할인진료행위 근절 ▲환자유치 목적 차량운행 근절 ▲X-ray 폐기물 1일 장부 면제 ▲국민건강 보건교육자료 지원 ▲대 의사회원 윤리교육 강화 ▲ 소속의사회 경유제도 의무화 등 13개항의 대 의협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용준감사(포항 · 이방선과의원)의 사망으로 결원된 감사에 백명규씨(포항 · 백외과의원)를 보선했다.

(시 상 자 명 단)

의협회장 표창(1명)	이웅렬(문경,이웅렬이비인후과)
경북지사 표창(3명)	신내철(경주,신내철산부인과) 김교성 (영주,김내과) 김옥배 (구미,김옥배정형외과)
대외인사 표창(2명)	조주현(경상북도 보건위생과) 나준연(경북지방경찰청 정보과)
모범회원 표창(7명)	김지홍(포항,김지홍정형외과) 이봉구(경주,이피부과) 안길영(김천,한양정형외과) 배창환(안동,연세내과) 이경수(구미,이경수내과) 이 철(영천,동산의원) 이병기(칠곡,고려의원)
모범분회표창	성주군의사회

제50차 대의원총회 이모저모



이원기의장의 개회사



김재정 의협회장 격려사



변영우회장의 인사



김주섭 부지사 축사



김찬우 국회의원 축사



박길수 의협의장 축사



제50차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내빈



"의사윤리"선서를 하고 있는 대의원

2001년 3월 29일(목) 경주코오롱호텔.....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 광경



유동명부회장의 의사윤리낭독



김주섭 부지사로 부터 감사장 수여



대외 시상자에 감사장 수여



성주군의사회에 모범분회 표창



모범회원에 표창장 수여

실패한 의약분업 규탄 전국의사 결의대회

6·3 과천대회 전국 2만 여명
본회 891명 참석,버스27대동원



지난해 6월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광장에서 열린 "실패한 의약분업 규탄 전국 의사결의대회"는 부당한 의사탄압과 실패한 의약분업을 규탄하는 7만 의사들의 분노가 하나로 응집되어 과천벌을 또 다시 뒤 흔들었다.

30도가 웃도는 폭염속에 전국 2만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진 규탄대회서는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모든 의료정책에 대해 정부는 명백한 실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의사를 말살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등에 대한 개악 움직임에 대해 원천 봉쇄시키는데 전회원이 하나가 되어 강력 대응키로 결의했다.

본회 변영우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료법 개악저지등 의권수호를 위해서는 의권투쟁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로 뭉쳐 대정부 투쟁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20여년간의 기형적인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준비안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파행이 현 재정파탄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킨다면 의료보험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의약분업 강행과 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함께 몸통 책임자의 처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불공정한 개정을 전면중지할 것과 한국 실정에 맞는 보험제도의 전면개편, 의료법 개악논의 즉각 철회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본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 긴급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6·3 규탄대회에서 강한 단결력을 보여주기 위해 적극 참가하기로 하고 변영우회장의 대회원 호소문을 발송 했다.

6·3결의대회에 시군의사회서 참석한 회원은 891명으로 27대의 버스가 동원되었으며 당일 사용한 차광모자는 일괄 제작배부했다.

< 시군별 참석인원 현황 >

시군별	참석인원	전세버스	시군별	참석인원	전세버스
포항시	204	5대	청송군	3	
경주시	71	2대	영양군	1	
김천시	68	2대	영덕군	8	
안동시	92	3대	청도군	26	1대
구미시	133	4대	고령군	5	
영주시	38	1대	성주군	9	
영천시	45	1대	칠곡군	23	1대
상주시	21	1대	예천군	10	
문경시	21	1대	봉화군	6	
경산시	68	3대	울진군	3	
군위군	2		동대경주	25	1대
의성군	9	1대	**계**	**891**	**27대**

의약분업 철폐 및 국민건강권수호 천명

1·27 결의대회 전국 2만여명
본회 618명 참석, 버스17대동원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2만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의사 결의대회'는 국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즉각 철폐할 것을 정부측에 공식 요구한데 이어, 2002년을 '한국의료발전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특히 의료법 개악 등 의사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과 간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권 수호 투쟁위원회(국건투)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전날 내린 눈으로 기상조건이 열악함에도 전 회원의 결연한 투쟁의지를 보여준 이날 대회는 "세대간, 지역간의 사소한 갈등과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환경을 개척하는데 적극 나서자"고 다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의·정 협의체 2월말까지 구성 ▲불법 의료행위 근절 특별기구 및 의료제도 발전특별위원회 즉각 가동 ▲의료악법 철회 등 5개항으로 된 대정부 요구사항을 채택, 이 같은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측에 경고했다.

새 투쟁을 결의한 1.27 대회는 전국 7만 의사들이 의료주체로서 당당히 나서기 위해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강한 의협을 만들기 위한 300억원 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변영우 본회 회장은 시도의사회장을 대표한 연대사에서 의협을 중심으로 다시 굳게 뭉칠 것을 당부하고 "잠에서 깨어나 시들어 가는 투쟁의 불씨를 활짝 피우자"고 호소했다.

본회에서는 이번 1·27 결의대회에 618여명의 회원이 참가했으며 차량은 전세버스 17대가 동원되었고 당일 머리띠와 흰장갑을 착용했다.

< 시군별 참석인원 현황 >

시군별	참석인원	전세버스	시군별	참석인원	전세버스
포항시	133	3대	청송군	1	
경주시	72	2대	영양군	1	
김천시	27	1대	영덕군	1	
안동시	50	1대	청도군	11	
구미시	98	3대	고령군	5	
영주시	33	1대	성주군	8	
영천시	40	1대	칠곡군	27	1대
상주시	15	1대	예천군	10	
문경시	23	1대	봉화군	7	
경산시	43	2대	울진군	4	
군위군	3		계	618	17대
의성군	6				

의료계 탄압행위 대책회의
4.13 시군회장 및 상임이사회



본회에서는 정부의 의료계 탄압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3일 의사회관에서 열린 긴급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보재정 파탄등 정부의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의사탄압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 정부의 의료계 탄압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대비하여 의협에서 전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의 특별 광고대책비를 모금키로 하였으나 본회에서는 광고대책비를 모금하지 않고 의쟁투성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당국의 의료보험재정 파탄위기 모면과 책임회피를 위하여 검찰과 경찰등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전방위 압력에 대해 대정부 성명서를 채택하고, 중앙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6.3 전국 집회 동참 결의
5.26 시군회장 및 상임이사회

지난 5월 26일(토) 오후 9시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긴급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기 위하여 6·3 전국의사 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및 진찰료 체감제등과 같은 눈가림식 방법으로 의보수가를 인하하여 재정안정화를 꾀하려는 정책과 희대의 악법인 의료법 개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6.3대회시 많은 회원의 참가를 위해 도의사회장 호소문을 전회원에게 발송키로 했다.

불합리한 재정안정화 조치 반대
6.21 시군회장 및 상임이사회

지난 6월 21일(목) 오후 7시 의사회관에서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마련중에 있는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재정안



정화 대책과 의사노예화를 시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권역별 회원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초래된 보험재정의 파탄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 시키려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특별법 제정과 의사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하는 의료법 개정등을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는 절대 절명의 시점에 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진찰료, 처방료 통합 및 체감제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 개정고시에 대해 적극 저지키로 했다.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결의
8.1 시군회장 및 상임이사회

본회에서는 지난 8월 1일 긴급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6월 29일 현행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고시를 전면거부와 종전수가 체계를 고수키로 한 본인부담금 2,200원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긴급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는 비대위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본회 및 시군의사회 임원은 7월분 진료비 청구는 종전 수가대로 8월 5일 까지 솔선하여 청구키로 하고 전 회원의 동참을 촉구키로 했다.

대국민홍보를 위한 광고문안 작성팀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고 일선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의협 회비 100% 납부결의
11.30 시군회장 및 상임이사회

경상북도의사회서는 제4차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지난 11월 30일(금) 오후 7시 동대구호텔에서 개최하고 의협사랑운동 전개와 회원으로서 의무(회비납부)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명부에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계의 투쟁과정에서 파생된 회원간 직역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직선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협사랑 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발간되는 회원명부에 등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1.27 전국집회 적극 동참결의
1.18 시군회장 및 상임이사회

지난 1월 18일 오후 8시 의사회관에서 열린 긴급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의사를 노예화 시키려는 개악 의료법과 의료수가 인하등을 저지하기 위한 1.27 전국의사 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당국의 일련의 조치들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의사 탄압이라고 단정하고 1.27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적극 지지하고, 시군단위로 1월 24일까지 총회 또는 반별 모임을 개최하여 결의대회의 당위성과 궁금증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참석인원 비율에 따라 경비일부를 지원키로하고 시도별 구분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본회에서는 적색머리띠와 흰장갑을 착용키로 했다.

건보재정 특별법 및 의료법 개악저지
6.27 시군별 규탄결의대회



의료법 개악과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행을 통해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무리수에 대해 의료계의 투쟁 열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 산하 시군의사회 규탄결의대회가 6월 27, 28양일간 일제히 개최되었다.

포항, 안동등 각 지역별로 열린 결의대회서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의료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파행으로 운영되어 온 보험제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형적인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본회에서는 특히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고시에 대해 의권 및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 발전 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의 7월 시행을 앞두고 고조된 분노속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법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의사죽이기로 의도된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의료계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개악 의료법 및 분업 철폐촉구
12.22 시군별 비상총회서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12월 22일(토) 시군의사회 별로 비상총회를 일제히 개최토록 하고 의료법 개악저지와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오후 4시 포항의료원 2층강당에서 열린 포항시의사회 비상총회에서 변영우경상북도의사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시 한번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선출된 신상진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대동단결 해 줄것”을 당부했다.

결의문에서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은 의사들의 손발을 묶고 노예로 만들기 위한 악법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보호되어야 할 의료인의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파생된 재정파탄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하여 의료보험수가 인하와 무차별한 진료비삭감을 감행하고 있으며 현재의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도 막지못하였고 건강보험재정은 파탄으로 의료의 질은 떨어져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므로 의약분업은 전면 재검토 내지 철폐 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제53차 대의원정기총회
의협 정관 개정 무산



지난해 4월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부칙"에 명시된 회장 선거 시기에는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데 실패했다.

직선제에 따른 회장 선거일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정관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1안) ▲현 회장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2안)는 두가지 안에 대의원 185명이 투표한 결과 81대 102(무효 2)로 2003년에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가결했다.

그러나 정관 개정안 처리를 놓고 시도의사회장 이사 참여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이석하는 대의원이 늘면서 재적 대의원 242명 중 재석 대의원이 143명으로 줄어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의협은 올해를 의료개혁의 해로 정하고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에 관한 주요사업에 역점으로 두고 지난해 보다 30.9% 증액된 89억 7,174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의협 정관개정안 부결
5.19 임시총회서

지난해 5월 19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대의원 242명중 출석 대의원 198명 중 197명이 투표하여 개정안 찬성 131명 대 반대 6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법 ·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 이어 열린 이날 임총에서는 회장 직선에 관한 정관 개정안 11조와 선거시기를 정한 부칙 제2조 3항만 발췌해 통과시키고 나머지 사항은 다시 검토하자는 안과, 집행부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안에 대해 표결에 부쳐 61대 102로 집행부 상정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정관개정이 무산됐다.

의협회장 선출 임총 무산
대의원 99명 참석, 정족수 미달

지난 7월 14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정원 242명 중 출석 대의원이 99명에 그쳐 총회 자체가 열리지 못한채 무산 됐다.

이날 임총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긴 3시 20분쯤 출석대의원을 파악한 결과 총회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121명이 미달되어 곧 바로 폐회가 선언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대정부 투쟁과 회원화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놓고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회원들의 커다란 관심과 직선제 관철을 위한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의협회장 보궐선거에는 양문희(14대 국회의원), 김창국(전 부산시의사회장), 신현우(울산시의사회장) 3명의 후보가 등록했었다.

직선정관 세번만에 통과
7.28 임시총회서

지난 7월 28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세번이나 시도 한 끝에 마침내 통과시켰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199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임총은 대의원 198명이 '개정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136대 반대 62표로 정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임총에 앞서 열린 법·정관 심의분과위원회는 회장 직선과 관련된 정관 제11조와 제13조의 각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표결을 통해 결국 집행부 원안대로 임총 안건으로 의결했다.

회장 선출 시기와 관련된 "부칙"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1개월 이내에 시행하자"는 의견이 개진됐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선회장 신상진씨 당선

신상진 전 의쟁투 위원장이 회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제32대 대한의사협회 첫 직선회장으로 당선 됐다.

신회장 당선자는 총 유효투표수 2만 5,696표 중 1만 9,267(75%)표를 얻었고 2위는 3,535표(13.7%)를 얻은 윤철수 후보가, 3위는 2,894표(11.3%)를 얻은 지삼봉 후보가 차지했으며, 무효표는 모두 852표로 확인됐다.

개표결과 선거인 4만 3,660명 중 2만 6.548명이 투표에 참여, 60.8%의 투료율을 보인 가운데 유효 투표수는 총 2만 5,696표 (96.8%)로 집계됐다.

신회장은 취임식에서 "앞으로 의협은 정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화를 통해 협조를 구해 나가는 한편 무리한 정책을 강요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재검토 및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1.5일 의협 임총회서 의결



2002년 1월 5일(토)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와 정치활동 특별위원회 구성, 의료정책 연구소 설립등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정치활동 특위 구성과 의료정책 연구소 설립에 대해 회계상의 문제와 의정회등 기존기구의 중복을 감안한 신중론과 희생을 각오하고 일하겠다는 직선회장에게 힘을 실어 주자는 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결국 표결에 들어갔다.

재적대의원 242명중 참석대의원 162명이 투표결과 125명이 집행부 안에 찬성하여 통과되었으며 앞으로 소신을 갖고 일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부회장 선출에서는 김건상 의학회부회장, 이영해 여의사회장, 김대헌 부산시의사회장, 박민원 광주시의사회장, 홍승원 대전시의사회장을 선출하고,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직선의협회장 선거인 명부현황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0일 선출하는 의협회장 보궐선거 선거권자를 2001년 9월 24일 최종 43,660명(78.6%)으로 확정했다.

본회는 대상회원 2,104명중 1,639명이며 참여율은 77.9%로 시군별 및 직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시군별 선거인 현황 >

시군별	대 상	개 원	근무	전공의	공보의	계	비율
포항시	484	195	169	25	5	394	81.4
경주시	259	99	62	57	3	221	85.3
김천시	107	37	25		9	71	66.4
안동시	186	54	82		16	152	81.7
구미시	313	126	100	39	2	267	85.3
영주시	61	39	5		4	48	78.7
영천시	99	47	7		5	59	59.6
상주시	73	27	6		7	40	54.8
문경시	65	28	18		6	52	80
경산시	156	73	36		12	121	77.6
군위군	19	5			3	8	42.1
의성군	23	14	3		4	21	91.3
청송군	24	2	1		8	11	45.8
영양군	7	2			2	4	57.1
영덕군	28	11	7		6	24	85.7
청도군	33	12	2		10	24	72.7
고령군	13	4	2		2	8	61.5
성주군	22	11	5		4	20	90.9
칠곡군	51	29	11		3	43	84.3
예천군	25	9	2		4	15	60
봉화군	13	4	2		4	10	76.9
울진군	31	14	1		3	18	58.1
울릉군	12				8	8	66.7
총 계	2,104	842	546	121	130	1,639	77.9

< 시도별 선거인 현황 >

시 도	등록회원	선 거 인	선거권없음
서 울	18,444	14,347	4,097
부 산	4,966	4,047	919
대 구	3,633	3,118	515
인 천	2,355	1,931	424
광 주	2,144	1,828	316
대 전	1,817	1,324	493
울 산	840	743	97
경 기	7,918	5,765	2,153
강 원	1,554	1,217	337
충 북	1,310	1,086	224
충 남	1,819	1,259	560
전 북	2,192	1,743	449
전 남	1,489	1,156	333
경 북	2,104	1,639	465
경 남	2,520	2,080	440
제 주	441	377	64
합 계	55,546	43,660	11,886

본회 직선투표율 상위권

지난 10월 19일 대한의사협회 첫 직선 회장 선거는 60.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유권자 4만 3,660명 중 2만 6,548명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경남(72%), 제주(72%), 충북(71%), 경북(70%), 전남(69%)은 타지역에 비해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대형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경우 50%대의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한편 이번 우편 투표에서 주소지 미확인 등으로 반송된 봉투는 총 675장(1.5%)으로 이 중 48통이 재발송됐다.

의사탄압, 끝까지 투쟁다짐
4.19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정부의 부당한 탄압과 매도에 못이겨, 전국 7만 의사는 작년 의권쟁취 투쟁에서 보여준 대동단결을 재다짐하고 제2의 투쟁에 나섰다.

지난 4월 1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사 탄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한 정부의 모든 탄압에 강력히 맞서 의권을 수호하는데 사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보험재정 파탄 등 총체적인 의료부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저지른 실수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렇지 않고 근거없이 의사 헐뜯기를 지속한다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정작 제도개선과 연구에 몰두해야 할 정부가 근거없이 의사매도에만 집착한다면, 죄없는 국민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참석자 명단〉

본회 임원 : 변영우 본회 회장, 정만진 기획이사, 백승인 법제이사, 천종욱 재무이사

시군 임원 : 신창식 경주시부회장, 허 석 김천시회장, 권세홍 안동시회장, 김옥배 구미시회장, 이영희 상주시회장, 정명근 문경시회장, 최정규 경산시회장, 이덕순 칠곡군회장(12명)

의료계 정치적 역량 극대화
9.8 전국의사 대표자 회의

지난 9월 8~9일 양일간 충남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의료현안 분석 및 활로찾기' 주제의 전국의사 대표자 워크샵을 열고, 작년 의권투쟁에서 보여준 대화합 · 대단결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국 시 · 군 · 구의사회 대표자 300여명이 참석한 워크샵은 건강보험 · 의약분업 · 회장 직선 등 의료계 당면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토의를 거쳐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

대표자들은 이틀간의 분임토의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의료계 활로방안으로 ▲정치적 역량 극대화 ▲내부 결속 강화 ▲정책 및 법적투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협 회장 직선과 관련, 선거후 의료계 내부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협 회장 첫 직접선거를 무난히 치르기 위해서는 선관위 측이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참석자 명단 〉

본회 임원 : 변영우 본회 회장, 이석균 부회장, 정만진 기획이사, 송재영 공보이사

시군 임원 : 허 석(김천시회장), 박경욱(김천시감사), 석제홍(김천시총무), 서석구(김천시이사), 정명근(문경시회장), 최정규(경산시회장), 이용우(경산시총무)

영호남 친선행사서 의료현안 협의
11월 10일 전북 무주에서





경상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11월 10일(토) 오후 7시 무주리조트 티롤호텔에서 제16회 영호남 의료인 친선행사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친선행사에는 박길수 의협의장과 박희백 의정회장, 강재수 전북도 정무부지사, 김세웅 무주군수와 양도의사회 임원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명웅 전북도의사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변영우 경북도의사회장의 답사가 있은 다음 내빈축사가 있었다.

토의사항에서는 미래를 위한 의협과 병협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위상제고와 의협의 정책연구소 설치, 회비 및 기부금 납부에 대한 토론에 이어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7개항의 대정부 결의문을 공동으로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지난해 투쟁과정에서 연령, 지역, 직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신임 직선회장을 중심으로 대동단결 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여론 몰이식 의사 탄압정책을 비롯하여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무리한 정책을 즉각 중단 할 것과 처방전 2매 발행보다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의 입법화와 의협회비 100% 납부운동 전개,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를 조속히 설치 할것을 촉구했다.

덕유산 등반으로 우의 다져
제16회 영 · 호남 친선행사

전라북도의사회 주관으로 지난 11월 10일 오후 7시 무주티롤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영호남 의료인 친선행사에 이어 다음날에는 양지역 의료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튿날에는 조금은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덕유산 산행으로 서로간의 우의를 다졌다.

전북도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는 1986년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격년제 초청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북도의사회에서 초청했다.

(참석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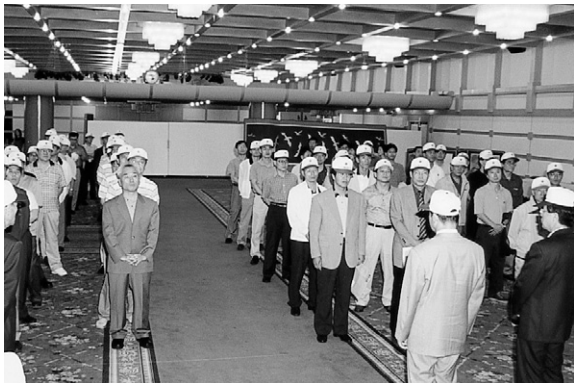
신은식, 최종두, 이원기, 변영우, 유동명, 안길룡, 이석균, 김교성, 정만진, 문신길, 송재영, 천종욱, 허 석, 최호섭, 하상호, 황 염, 최유근, 사무직원 3명, 기타 2명



제23회 경북의학제 우승에 「동부지구」

– 의료인 친목과 화합의 대축제 –

삼행시 및 가족위한 관광 호응좋아
행운권 추첨으로 푸짐한 상품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하여 열리고 있는 경북의학제 제23회 대회가 지난 5월 27일 경주코오롱호텔 실내외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각지구별 임원 선수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3회 경북의학제 경기는 테니스와 골프경기는 실외에서 개최되었고, 탁구, 바둑, 윷놀이는 실내경기로 치루어졌다.

그리고 이날 성적은 바둑, 골프경기에서 우승한 동부지구가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고, 지난해 우승팀인 북부지구가 준우승, 3위에 서부지구 4위는 남부지구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회원과 가족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는 삼행시 경연대회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불국사와 석굴암 유적지 관광시 자원봉사의 안내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시상식은 야외에서 선수와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서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수여했다.

◆ 종 합 점 수 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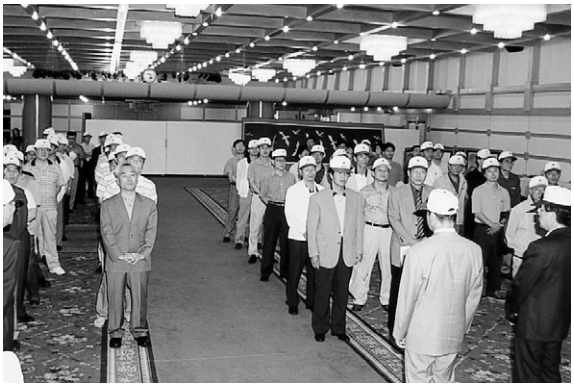
경 기 종 목		동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북부지구
제23회 테니스대회		4	3	2	5
제22회 탁구대회		4	2	3	5
제21회 바둑대회		5	2	4	3
윷놀이	선수조	4	5	2	3
	임원조	4	3	2	5
제3회 골프대회		5	3	2	4
종 합 점 수		26	18	15	25
종 합 성 적		1위	3위	4위	2위

◆ 삼행시 입상자 명단 ◆

구분	지 역	입상자	병의원명	비 고
장 원	김 천	황종선	김천방사선과의원	가 족
차 상	김 천	안길영	한양정형외과의원	
	경 주	강행복	강이비인후과의원	
	안 동	김광숙	윤소아과의원	가 족
차 하	포 항	최시영	대 송 의 원	
	안 동	권세홍	권방사선과의원	
	경 주	김용대	김용대피부과의원	
참 방	영 천	정만진	정만진소아과의원	
	구 미	김효정	박정돈산부인과의원	가 족

화 제 23 회 경북 의학제 보

5월 27일(일) 오후1시 / 코오롱 호텔



< 경북의학제 개회식 >



< 선수선서 >



< 윷놀이대회 (제15회) >



< 전년도 우승팀 우승기 반환 >



< 탁구대회(제22회) >



< 종합우승한 동부지구 >

2001년도 춘·추 학술대회 성료

춘계학술대회 5월 경주코오롱서
추계학술대회 11월 경북대병원서



지난해 춘계학술대회는 5월 경주 코오롱호텔(오운홀)에서 개최되었고, 추계학술대회는 11월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대강당)에서 각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의학발전과 회원보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2001년도 학술대회는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와 의료현안에 대한 특강 및 시청각 교육을 실시했다.

춘계학술대회시 본회 변영우 회장은 의사윤리 및 주요회무보고에서 6·3 전국의사 결의대회 개최 배경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리고 의료기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회원들의 관심이 많은 세제 문제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영일 고문세무사를 초청, 특강이 있었다.

경북의학제와 병행하여 개최된 춘계학술대회는 5월 26, 27양일간 개최되었으며 참석회원에게는 연수평점 10평점이 인정되었고, 추계학술대회는 11월 18일 하루만 연수교육을 실시해 6평점이 인정되었으며 연제 및 연사는 다음과 같다.

춘계학술대회 5월 26일(토)

△의사윤리 = 변영우 · 경북도의사회장 △개원가에서의 건강보험 심사평가 = 진덕희 · 심평원 심사부장 △감기의 치료와 관리 = 정태훈 · 경북의대 내과 △경구피임제의 피임외 효과 = 이태형 · 영남의대 산부인과 △의료현안에 대하여 = 김재정 · 대한의사협회장 △당뇨병 = 비디오

5월 27일(일)

△고혈압 = 비디오 △천식의 흡입요법 = 이영현 · 동국의대 내과 △당뇨병의 안 합병증 =김광수 · 계명의대 안과 △의료기관 세무대책 = 주영일세무사

추계학술대회 11월 18일(일)

△의사윤리 = 변영우 · 경북도의사회장 △소아에서의 만성기침 = 정혜리 · 대구가톨릭 소아과 △부인암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와 그 처치 = 차순도 · 계명의대 산부인과 △임상에서 흔히 보는 사시와 소아안과 질환 = 김명미 · 영남의대 안과, △COX1, COX2 = 이영현 · 동국의대 내과 △위암 치료 = 유완식 · 경북의대 일반외과

2001년도 연수교육 결과보고

경상북도의사회는 2001년도 회원보수교육과 관련해 연간 의무평점 미달로 인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보수교육은 의료법 제23조 2, 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임상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인은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토록 되어있다.

2001 TBC 무료개안수술
본회, 대구의사회와 공동참여





경상북도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가 함께하는 2001 TBC 무료개안수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10월말까지 대구, 경북 노인환자 90명(대구 61명, 경북 29명)에게 인술을 펼쳐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무료개안수술은 대구, 경북의사회와 TBC 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고 대구·경북 안과개원의협의회가 주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행정기관을 통해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마감 결과 총 309명(대구 243명, 경북 147명) 신청해 내과적 술전검사를 거쳐 10월 12일부터 수술에 들어갔다.

이번 무료개안수술을 맡은 안과 및 내과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과 공단청구분까지 전액 무료로 봉사했으며 TBC 대구방송에서는 수정체 대금을 지원했다.

TBC 대구방송에서는 무료개안수술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10월 12일 오전 7시 30분과 11시에 각각 1, 2부로 나눠 "2001 밝은세상 새로운 희망"이란 주제로 생방송으로 보도했다.

본회 변영우회장, 대구시의사회 김완섭회장, 안과개원의협의회 곽공섭회장은 TBC 스튜디오에 출연해 수술과정을 생방송으로 방영했다.

무료개안수술 자원봉사기관

< 안 과 >

시군별	성 명	의 원 명	수술인원
포 항	이 재 백	이 재 백 안 과 의 원	3
	이 우 석 정 필 재	영 동 안 과 의 원	4
경 주	김 형 일	성 모 안 과 의 원	3
김 천	안 태 욱	안 태 욱 안 과 의 원	
	민 성 기	민 안 과 의 원	
안 동	이 동 성	성 모 안 과 의 원	2
구 미	이 경 하	밝 은 눈 안 과 의 원	3
영 주	전 성 욱	지 성 안 과 의 원	1
영 천	박 남 규	박 안 과 의 원	1
	김 헌 수	김 헌 수 안 과 의 원	
상 주	이 언 경	영 남 안 과 의 원	4
문 경	강 용 호	성 모 안 과 의 원	
경 산	우 경 호	우 경 호 안 과 의 원	4
칠 곡	박 성 열	삼 성 안 과 의 원	4
계			29

< 내 과 >

시군별	성 명	의 원 명
포 항	최 창 필	최 창 필 내 과 의 원
	송 영 성	송 영 성 내 과 의 원
경 주	조 현 숙	계 림 내 과 의 원
김 천	장 세 주	정세주내과의원
안 동	박 무 영	박 무 영 내 과 의 원
구 미	강 중 순	한 민 내 과 의 원
영 주	김 동 근	김 동 근 가 정 의 학 과
	손 현 석	손 현 석 내 과 의 원
영 천	이 지 욱	이 지 욱 내 과 의 원
	강 민 구	파 티 마 내 과 의 원
상 주	정 화 영	동 산 내 과 의 원
	전 규 돈	권 내 과 의 원
문 경	강 찬 규	강 찬 규 내 과 의 원
경 산	김 병 훈	김 병 훈 내 과 의 원
칠 곡	이 원 석	연 합 의 원
	박 창 근	

"의약분업 철폐" 서명운동 및 의협 발전 특별성금 모금 돌입

의협은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대국민 1,000만명 서명운동과 의사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성금을 모금키로 했다.

대국민 서명운동은 내원환자와 가족들을 주대상으로 실시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약분업 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담긴 서명용지를 근거로 약사법 개정 등 '국회청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5 임총 및 1.27 전국의사대회의 결의사항인 회원 성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가 회원(개원) 30만원, 나 회원(근무) 10만원, 다 회원(전공의) 3만원, 라 회원(공보의) 3만원등 직역별 성금 분담액을 결정하고 모금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했다.

전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이번 특별성금은 의료정책연구소,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 의협 정치활동 운영에 투입하여 의료계 생사가 걸려있는 이와 같은 3대사업이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전회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본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특별성금은 시군의사회 및 병원급을 통해 기간내 납부와 아울러 대국민 서명운동은 의료기관당 500명이상 서명을 받도록하고 10일단위로 중간결과를 보고해 줄것을 촉구했다.

의협 "국건투"전국조직 결성

국민건강과 의권수호의 역할을 할 국민건강권수호 투쟁위원회(국건투)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본회에서도 조직국장과 교육홍보국장을 선임했다.

국건투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과 의협 상임이사진을 주멤버로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조직강화와 각지역, 직역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기 위해 조직국장과 교육홍보국장을 중앙조직과 시도의사회에 두기로 했다.

본회에서는 조직국장에 정만진 기획이사, 교육홍보국장에 송재영 공보이사를 추천했다.

고1 도덕교과서 「사진」 문제 제기

변영우 본회회장 "국건투"회의서

지난 2월 26일 오후 7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권수호 투쟁위원회(국건투) 긴급회의에서 본회 변영우회장은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실린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내용에 실린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날 국건투회의에서 긴급 안건 심의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작태라고 단정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키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회수요청과 배포금지 및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초상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등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전회원 1구좌 의무 가입요망

– 의료분쟁 양상 갈수록 심각 –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제21기(2000. 11.1~2002. 10. 30)를 맞고 공제사업에 들어 갔다.

의협 공제회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진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제21기에 이르는 동안 공제회는 의료법에 의한 제도권 사업으로 전환하고 보상한도액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현실화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의협 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면 의료사고의 수습, 중재, 조정등의 사건처리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법적인 소송시 측면지원과 사건의 상황에 따라 보상금을 심사지급하게 되는 등 회원들이 소신을 갖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본회에서는 회원상호간 상부상조 차원에서 전회원이 의협 정관에 따라 1구좌씩 의무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21기 공제회 가입현황 >

시군별	가입종별					계
	1종	2종	3종	특A	특B	
포항시	1	72	49	5		127
경주시		36	4	2		42
김천시	2	14	10	2	2	30
안동시		22	10	2		34
구미시	1	28	5			34
영주시		11	5	1	1	18
영천시		25	1	1		27
상주시	3	13	24		2	42
문경시		13	2	2		17
경산시	1	26	4	1		32
군위군		2				2
의성군		5	2			7
청송군			1			1
영양군		1				1
영덕군	1	4				5
청도군		6				6
고령군		1	1			2
성주군		5	1			6
칠곡군		16	3			19
예천군		6	1			7
봉화군		2				2
울진군	1	12	2	1		16
총 계	10	320	125	17	5	477

▶가입종별 납부금 및 보상한도액◀

종별	적용진료과(준용)	적용진료범위	1구좌 납부금(원)	보상한도액
1종	방사선과, 병리과	· 주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60,000	1천만원까지
2종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 기본진료(외래)에 해당하는 진료 영역으로서 통상적인 주사·투약으로 진료하는 경우	150,000	1천만원까지
3종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그밖의 외과계, 정신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마취과, 이비인후과	· 외과계의 처치 · 수술 등의 진료 · 마취시술에 의한 진료 · 정신과 입원진료 · 성형외과는 미용목적의 본래의 진료(시술처치)와 달리 주사, 투약, 처치 중에 야기된 사항 · 안과의 경우 백내장, 녹내장, 엑시머 레이저, 라식 등의 수술 · 마취과 등 통증클리닉 치료 · 2종 진료영역 포함	366,000	1천만원까지
특종A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산부인과 수술(13주이하 중절술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653,000	1천만원까지
특종B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산부인과 수술(14주이상 28주 이하 중절술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1,123,000	1천만원까지

본회 첫 윤리위원회 개최

경상북도의사회서는 지난해 4월 14일 의사회관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윤리적인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윤리위원회서는 의사로서 지켜야할 품위와 명예, 그리고 법률과 사회상규가 요구하는 사항 준수는 물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와 의료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환자유치, 과대광고와 특히 공인되지 않은 의료행위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계의 자정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하기로 했다.

유동명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의료보험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확보와 본인의 청문절차등을 거쳐 징계방안을 논의키로 하였다.

2002년도 회원명부 곧 발간
최근 3년간 회비 납부요청

경상북도의사회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전체회원의 사진을 수록하는 회원명부를 오는 3월중 발간 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신규 개원회원의 증가와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난해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최근 3년간(99, 00, 01) 의협회비를 비롯한 도의사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명부에 등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본회에서는 회비 미납회원에게 1차에 이어 2차로 3월 9일까지 회비를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고 시군의사회에도 명단을 통보했다.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해 10월 실시된 의협회장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김옥배)가 9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대구에서 개최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서는 등록회원의 선거권 유무와 2001년도 의사면허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중앙지침에 따라 선거권을 인정하기로 하고 실무적인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다.

본회 법률 및 세무고문 위촉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3월 20일(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회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과 세무고문을 지난해 3월 29일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위촉키로 했다.

앞으로 의료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와 의료기관 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 법률고문 : 김인수법률사무소
김인수변호사(대구) 전화 : 053)742-3100

▣ 세무고문 : 주영일세무사무소
주영일세무사(경주) 전화 : 054)742-1218

"개혁과 위기의 의료" 주제로
본회 특집 좌담회 개최



경상북도의사회는 「개혁과 위기의 의료, 그 극복을 위한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4일(화) 오후 7시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특집좌담회 대담자로는 원로회원, 개원회원, 봉직회원, 전공의, 여의사, 집행부등 각 직역과 직능을 대표해 참여했다.

이날 신년호 특집좌담회는 정만진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변영우 본회회장과 권세홍 안동시의사회장, 김재왕 편집위원이 배석했다.

경북지사등 유관기관장 방문
의료계현실 이해와 협조요청

본회 변영우회장은 지난해 3월 16일(금) 오전 10시 경상북도 이의근 지사를 방문하고 의약분업 정착과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안윤식 정무부지사, 김주섭 행정부지사, 최윤섭 기획실장, 남성대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석창순 문화체육국장, 김영재 지자체국장을 방문하고 당면한 의료현안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전용찬 경북지방경찰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의료계의 휴·폐업에 대해 이해와 앞으로 보다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방문에서는 최근 진료비 과다청구와 부당삭감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

의사회보 편집위원회 개최



2002년도 신년 특집 「경북의사회보」의 편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5회에 걸쳐 개최했다.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특집좌담회 주제선정과 원고청탁대상자 선정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특히 시군의사회 회무홍보와 아울러 병원의 각종 홍보내용을 최대한 게재키로 하였다.

한편 본회에서는 문신길회원(포항.문신길내과)을 편집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편집위원회 일정표 〉

제1차 편집회의 : 10. 31(수) 대 구
제2차 편집회의 : 11. 21(수) 대 구
제3차 편집회의 : 12. 20(수) 대 구
제4차 편집회의 : 2. 19(화) 대 구
제5차 편집회의 : 3. 7(목) 대 구

가뭄극복 성금 548만원 기탁

본회와 시군의사회는 지난해 90년만의 최악의 가뭄극복에 의료계가 솔선 참여하기로 하고 6월 19일(화) 안동문화방송국에 한재성금 548만원을 기탁했다.

그동안 도의사회와 시군의사회가 따로 성금을 기탁하므로 금액이 많지 않아 대외적인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는 시군의사회와 성금을 공동으로 모금하여 기탁하게 되었다.

경북도내에서 가뭄피해가 가장 많은 북부지역에 한재성금을 기탁키로 하고 본회 유동명부회장과 권세홍 안동시의사회장을 통해 기탁했다.

< 가뭄극복 성금 >

시 군 별	모 금 액	시 군 별	모 금 액
경북도	200만원	군위군	5만원
포항시	80만원	의성군	20만원
경주시	45만원	청송군	2만원
김천시	20만원	영덕군	10만원
안동시	20만원	청도군	20만원
구미시	시청(200만원)	고령군	5만원
영주시	15만원	성주군	10만원
영천시	20만원	칠곡군	10만원
상주시	10만원	예천군	10만원
문경시	시청(100만원)	봉화군	6만원
경산시	30만원	울진군	10만원
			계 5,480,000원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기탁

경상북도의사회서는 난치병 학생 돕기에 300만원의 성금을 경북도교육청에 기탁했으며 영천시의사회서도 100만원의 성금을 영천시교육청에 기탁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5월 2일 경주에서 난치병어린이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사랑의 걷기대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난치병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행사였다.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탁

경상북도의사회에서는 12월 13일(목)오후 3시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회 사랑나눔 자선음악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원과 지난 12월 24일 안동시 소재 성좌원에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 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명예회장 이의근)는 매년 자선음악회와 사랑의 자투리 991원 모금운동등을 펼쳐 지난해에는 사랑의성금 모금액 부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바 있다.

불우환자 치료비 지원

본회에서는 매일신문사와 함께 2001년 5월 도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 6명에게 총 500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시군의사회 추천을 받아 선정한 대상자는 포항시 4명, 경주시 1명, 안동시 1명이다.

< 치료비 지원자 명단 >

지 역	성 명	연 령	성 별	병 명	지원액
포항시	손점암	66	남	경수손상	50만원
〃	안세호	67	남	뇌출혈	50만원
〃	김순성	72	여	뇌출혈	50만원
〃	이종백	45	남	오딧 괄약근	50만원
경주시	원유흥	47	남	췌장암	200만원
안동시	최이득	78	남	심장병	100만원

영남권역 시도회장 긴급회동 대정부 및 의협 결의안 채택

영남지역(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의사회장은 지난 6월 18일 부산에서 긴급 회합을 갖고 급박한 의료현안에 대해 대정부 결의안과 의협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졸속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를 노예화하려는 의료악법 제정을 기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대정부 결의에서는 의사들을 예속화 하려는 어떠한 의료관련 악법의 개정 및 제정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히고, 의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정부가 심대히 훼손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현 의약분업의 근본적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면 선택분업 시행을 포함한 의약분업의 전반적인 재조정과 아울러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려는 졸속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또 의협에 대한 결의에서는 긴급한 현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강력한 투쟁기구를 구성하여 정부가 의료계에 가하는 압박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의협의 대처를 지켜본 후, 영남권부터라도 의사회원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권역별 집회를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심사평가원 임원간담회

본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금) 오후 7시 경주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제반문제점과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등에 대하여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

본회 및 시·군사무직원 연수회



경상북도의사회서는 사무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의료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2일(토)부터 1박 2일간 경주에서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 경주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사무직원 연수회는 직무교육을 통해 조직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한편 시군의사회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직원연수회에서 변영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기 위해 의료계의 투쟁과정중 최일선에 애써준 사무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의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군의사회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정안정화 대책 7.1 고시
의협 비대위 전면거부투쟁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 차등수가제 적용,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고시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협 비대위(6.29)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 개정안」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하고 현행 수가 및 급여체계에 따라 진료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외래 정액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종전과 같이 2,200원(정부고시안 3,0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대위(7.8)는 정부의 부당하고 초법적인 진료권 제한에 항의하기 위하여 7월 9일부터 15일까지 본인부담금 2,2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평일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단축진료를 실시토록 했다.

그리고 복지부 고시가 철회 될 때까지 2,200원 본인부담금 투쟁을 계속하고 종전 수가대로 의료보험을 청구하기로 하는 동시에 반려시 보험급여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7월 28일 열린 의협 비대위에서는 보다 강력한 투쟁을 위해 8월 1일부터는 진료시간 준수투쟁은 중단하고 2,200원 본인부담금 투쟁을 계속하면서 8월 첫째주 투쟁은 5일까지 대회원 투쟁 스케쥴 공지 및 홍보를 집중한후 둘째주(8/6~8/12)를 전회원 3박 4일 휴가 권고(8/9~8/12), 셋째주, 넷째주(8/13~8/26)까지 주5일 근무, 8월 27일부터는 주4일 근무키로 했다.

의협 비대위(8.4)에서는 7.1 정부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이 기각되어 8월 6일부터 본인부담금을 고시안대로 3,000원으로 적용키로 하고, 8월 21일 열린 비대위에서 주5일 주4일 근무 계획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철회하고 9월 8일 전국의사 대표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전국 사회보험 노조 항의집회
경주, 구미등 2곳에서 실시



전국 사회보험노동조합(민노총·지역의보)에서는 의료보험수가인하·의료법 개정(안) 수용을 주요 골자로 의료계에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지난해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6월 7일 경주.선린의원(경북도의사회장)과 구미.김옥배정형외과의원(구미시의사회장) 앞에서 집회가 있었으며 100여명이 참가했다.

의료계 요구사항으로는 의료보험수가 인하 및 개정 의료법과 진료내역을 환자에게 공개, 공단 현지조사 수용을 촉구하고, 병원경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의 회계 감사, 의협의 이충배 전위원장의 고소치하 등을 요구했다.

의협홍보대책비 5천만원 기탁

경상북도의사회서는 의사탄압에 대한 "제2투쟁"이 불붙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 4월 15일 특별홍보대책비 5천만원을 의협에 기탁했다.

의협은 "의사의 생존권이 걸린 수가 투쟁인, 제2의 투쟁은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라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회원 1인당 5만원씩의 홍보대책비를 모금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 입법 저지운동 전개

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의사에 대한 전방위 탄압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성순(새천년민주당) · 김홍신(한나라당)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 찬성에 대한 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지운동을 전개했다.

본회에서는 시군의사회에 긴급 공문을 시달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 또는 면담을 통해 동 개정(안)의 문제점과 회원들의 정서를 적극 홍보하여 서명날인에 참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본회 변영우회장은 의료법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박헌기 국회의원(영천.한나라당)을 지난 5월 15일 영천사무실을 방문해 장시간 의료계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리고 김천에서 열린 제39회 도민체전(5/15)과 한나라당 경북지부 후원행사(5/29)및 새천년민주당 경북지부 후원행사(9/7)에 참석해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 지역 국회의원 명단 >

선거구	의원명	정 당	전 화
포항 북구	이병석	한나라	02)788-2641
포항 남·울릉	이상득	〃	02)784-1533
경주시	김일윤	〃	02)788-2976
안동시	권오을	〃	02)788-2508
구미시	김성조	〃	02)788-2928
영주시	박시균	〃	02)788-2084
영천시	박헌기	〃	02)788-3864
상주시	이상배	〃	02)788-2373
문경·예천	신영국	〃	02)788-3279
경산·청도	박재욱	〃	02)788-5723
군위·의성	정창화	〃	02)784-2171
성주·고령	주진우	〃	02)784-1722
칠곡군	이인기	〃	02)788-2032
청송·영양·영덕	김찬우	〃	02)784-5705
봉화·울진	김광원	〃	02)788-2917

한나라, 민주당 경북지부 행사 참석

한나라당 경북지부 후원행사가 5월 29일(화) 오후 5시 동대구호텔에서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중앙당직자와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새천년 민주당 경북지부 후원행사는 9월 7일 오후 5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김중권 민주당 대표 및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회 변영우회장은 후원행사에 참석해 의사탄압 및 개악 의료법 저지를 위한 6.3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게된 배경과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의사윤리지침』선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창립 93주년 기념식 및 신임회장 취임식서「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하여 선포하고「의사윤리선언」과「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윤리지침은 의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및 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리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서는 의협 정관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윤리지침은 제1장 의사의 일반적윤리 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 제3장 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제4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제5장 시술 및 의학연구와 관련된 윤리 제6장 윤리위원회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의협대표 의무사관후보생 위문

김재정 의협회장과 본회 변영우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들은 지난해 3월 19일 경북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를 방문하여 훈련중인 의무사관후보생 792명을 격려하고 군의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재정회장은 후보생들에게 "미래의 군의관에 걸맞는 지성적인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장교로 거듭 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의사로서 여군 후보생을 지원하여 화제가 된 김미랑(중앙의대), 김은진(경상의대) 후보생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 방문자 명단

김재정 의협회장, 라석찬 병협회장, 지제근 의학회장, 이종욱 의대학장협의회장, 이영해 의협부회장, 한정철 병협재정위원장, 김대헌 부산시의사회장, 김완섭 대구시의사회장, 변영우 경북도의사회장, 전태준 차병원 의료원장, 설정현 영남대 의료원장, 손수상 계명의대교수, 조평래 부산해동병원장, 정만진 영천시의사회장, 김세곤 의협공보이사.

의협회장 및 시도회장 초청간담회



본회와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12월 1일(토) 대구에서 신상진 의협회장 및 전국시도의사회장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발전방향과 의약분업, 건강보험, 의료관련법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했다.

본회 변영우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상진 의협회장, 박길수 의협의장, 박희백 한국의정회장과 전국시도의사회장, 대구, 경북 원로회원, 집행부 임원등 40여명이 참석했다.

2001년도 회원정기신고
지난해보다 회비납부 호조

의협 정관 제6조 및 본회회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5월에 실시되고 있는 2001년도 회원정기신고가 지난해 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

매년 5월에 일제히 실시되고 있는 2001년도 회원정기신고와 관련해 모든 회원은 반드시 시군의사회를 경유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원정기신고용 회원기록부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에 근무하는 회원은 병원으로 개원회원에 대해서는 시군의사회로 발송했다.

회원기록부 작성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전산으로 입력된 사항중 변동, 오기 또는 누락사항을 추가로 기록한 후 하단에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금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과 처음 신고하는 회원 및 전산기록부가 없는 회원은 공난용지를 사용토록 했다.

< 2001년도 회비내역 >

구 분	가. 회원	나. 회원	다. 회원	라. 회원
	개원회원	근무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의협회비	230,000	165,000	95,000	71,000
의협신보	10,000	10,000	–	–
학술대회	20,000	20,000	10,000	10,000
의정회비	50,000	10,000	–	–
경북회비	200,000	100,000	60,000	–
계	**510,000**	**305,000**	**165,000**	**81,000**

※ 의협입회비 : 100,000원

제29회 보건의날 기념행사 개최
변영우회장 보건단체 대표로 축사

제29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4월 7일(토) 오전 11시 30분 칠곡군 청소년복지관에서 보건의료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이의근 경북지사로부터 개회사가 있은 다음 경북도의회 류인희의장의 축사에 이어 보건의료 단체를 대표해 본회 변영우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병기회원(칠곡 · 고려의원)이 도민보건향상을 위한 공로로 경북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포항시의사회 신년교례회
1월4일(금) 귀빈 예식장



포항시의사회서는 임오년 새해를 맞아 신년교례회를 지난 1월 4일(금) 오후 7시 귀빈예식장 5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오세진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이원기 포항시의사회장의 신년사에 이어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의 격려사가 있은 다음 빈남수 원로회원의 덕담과 의료계 발전을 다짐하는 건배 제창이 있었다.

감염성 폐기물 15일이내 처리해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은 관리규정에 의거 보관관리 및 위탁관련 서류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있다.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 관리할 때에는 반드시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생활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보관시에는 감염성 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부착하고 병원급은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기타 대장작성 및 보관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여러 장소에서 발생된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보관기간(의원 15일, 병원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염성 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하고 1주일에 1회 소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명칭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반드시 구청 환경과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휴가를 실시할 경우 휴가를 다녀오는 기간을 계산하여 수거기간(의원의 경우15일)이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염성 폐기물 수거 업체에 연락하여 사전에 처리한 후 휴가(휴업)를 실시해야 한다.

"병사용진단서" 발급시 주의

병무청 및 군병원에서 징병신체 검사 중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하는 '병사용진단서'에 일부 병원에서 "군 생활에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됨"등으로 발급함으로써 민원 소지를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협조 요청했다.

병사용 진단서에는 장애 및 질병 정도, 치료경과 및 치료를 요하는 기간등 질병과 관련해 객관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군 생활과 관련된 언급은 신체 등위 판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의관 및 징병전담의들에게 임의적 판정 등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등위 오해를 유발시켜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회원 사랑의 헌혈운동등 전개

의협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혈액수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건강수호와 국민과 함께하는 새의사상 구현을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을 3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키로 했다.

본회에서는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헌혈인구 저변확대와 일반국민들의 헌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시군의사회 단위로 단체헌혈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회원이 참여토록 했다.

복지부, 대구·경북 임원과 간담

보건복지부는 지난7월 9일(월) 오후 7시 대구에서 대구·경북의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악 의료법 의원입법 반대, 약사법 개정,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수진자조회 철회,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의료정책 입안시 사전 의료계와 의견조율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실 신언항 실장과 홍강지 비상기획관, 신의균 지역보건정책과장과 본회에서는 변영우회장, 이석균부회장, 김옥배 구미시의사회장, 그리고 대구시의사회장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식의약 본부청장 간담회 개최

본회 변영우회장은 지난 5월 30일(수) 낮 12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양규환 본부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기관 마약류 취급과 관련해 상호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경주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양규환 본부청장을 비롯한 최수영 안전국장, 김진수 대구지방식약청장이 참석했다.

박헌기 국회 법사위원장 방문

본회 변영우회장과 정만진기획이사는 지난 2월 22일(금) 오후 4시 박헌기 국회 법사위원장(한나라당.영천)을 방문하고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관련법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건투」 복지부장관 항의방문

신상진 의협회장과 본회 변영우회장을 비롯한 한광수 서울시회장, 우종원 경기도회장은 지난 2월 25일(월) 보건복지부장관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서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심한 고통분담을 해왔으나 재정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잘못된 의료정책에 있다고 주장하고 의료수가 인하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한편 수가인하와 보험료 인상을 연동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의료계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다.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대구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2001년 6월 1일자로 본회 이석균 부회장(경산.청십자의원)과 정만진 기획이사(영천.정만진소아과의원)를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했다.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그 위해성을 홍보, 계몽하기 위하여 소비자 관련단체, 청소년 관련단체, 의약관련협회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마약류 확산방지 및 감시기능과 아울러 국민적 경각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동제도를 도입 시행중에 있다.

최동하 회원 "치질…" 출간



최동하항치외과의원 원장(61)은 30년이상의 치료경험을 책으로 엮은 '치질 · 변비 · 대장병 쉽게 고친다' 출판 기념회가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청솔밭웨딩홀에서 이의근 경북지사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동하 회원이 30여년 동안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치질과 변비, 대장병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펴낸 의학서적이다.

특히 '일반인들이 알아야할 항문 10계명'과 '알아두어야 할 치질상식'등을 소개하고 총 170컷의 삽화를 곁들였다.

경상북도 콜레라 백서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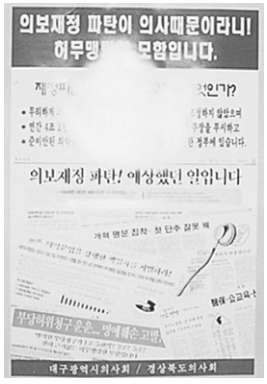
김태웅 경북도 보건위생과장은 지난해 8월 영천에서 발생해 전국을 긴장시킨바 있는 콜레라 사태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당시 상황을 종합백서로 발간했다.

특히 전염병 예방활동과 방역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염병 집단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반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방역 및 세균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백서는 각지역별 발생경위와 발병 현황을 일자별로 상세히 기술하는 한편 역학조사 방법과 실제조사내용, 콜레라 해설등을 담아 다른지역에서도 이같은 집단전염병 발병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 제작배포





본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추가부담을 잘못 계산한 정부측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 전가하는 부당성과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한 당위성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 2종을 자체 제작했다.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와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시군의사회를 통해 전 의료기관에 1매씩 배부 했다.

본회 공정거래위원회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11일(수) 오후 4시 본회 사무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팀은 3년간의 공문 발송대장, 문서일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대구·경북 소아과학회 예방접종수가에 대한 안내 공문등 일부를 복사해 증거물이라며 가져갔다.

본회 박재영사무국장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 조서를 받았었다.

콜레라 방역대책회의 참석

지난해 8.24~29 영천시 고경면 국도변에 위치한 「25시 만남의 광장」 식당을 이용한 다수인에게 콜레라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었다.

9월 6일(목) 오전 11시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임주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방역대책회의에 본회에서는 변영우회장이 참석했다.

지난 9월 3일(월) 오후 3시 영천시보건소에서 열린 방역대책회의에는 이원기 포항시의사회장과 정만진 영천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본회, 녹색인증제 반대키로

본회에서는 EDI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인증기관 신청시 2년간 진료비 심사를 면제해 준다는 미끼로 마치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여 큰 자비나 베푸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인증제를 신청하여 녹색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아도 수시로 무작위 심사하여 착오로 인한 잘못이 들어나면 그 의료기관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이미 의협이 녹색인증제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했는데도 벌써 460개 의원이 녹색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자연히 나머지 의료기관은 적색으로 구분되어 도덕적인 집단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본의 아니게 양분되었으며 이와 같은 이분법에 의해 앞으로 의료인의 인권과 의권은 무참히 유린당하게 될 것을 우려 했다.

의사라고하는 전문가집단을 비도덕적인 집단, 범죄집단으로 몰고 감으로써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로 호응하지 않는 것이 본회의 입장이다.

본회 직선 회장 회칙개정안 마련
전체이 및 시군의사회장 회의서

3월 9일(토) 오후 7시 동대구호텔에서 본회 2002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를 개최하고 직선회장 선출을 위한 회칙개정안을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제51차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하는 한편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한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1년도 주요회무보고와 가결산보고에 이어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하고 직선회장 선출을 위한 회칙개정과 아울러 매년 증가되는 대의원수를 조정하여 70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의안토의에서는 최근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매도한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 문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보다 더 중대한 사안임으로 원칙에 입각한 처리를 촉구하고 의료수가 2.9% 인하는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의료현안과 관련해 직선 의협 집행부는 자신감을 갖고 현사태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중앙회에서 추진중인 3대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성금모금과 1,0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의협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회비 100% 납부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신용카드 거부 땐 형사 처벌

앞으로 병의원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정부는 3월 3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법률사무소, 학원등 신용카드가맹점 업주가 카드결재를 거부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병·의원 3만 1,104곳 가운데 카드 가맹점은 3만 392곳으로 97.7%의 카드 가맹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1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의원의 경우 가맹률이 97.7%를 보이고 있음에도 카드사용률이 낮은 것은 진료비가 3천원 미만의 소액이라는 점에서 기피하고 있다.

정만진회원 한미수필문학상 입상

정만진회원(영천시의사회장.본회 기획이사)이 청년의사신문이 주관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한 제1회 한미수필문학상에 입상하였다.

청년의사신문이 연말특집으로 전국의 의사를 상대로 공모한 결과, 84편이 응모하여 3명의 문학가 심사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14편을 입상작으로 뽑았다.

정원장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여 장려상에 입상하여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입상한 글과 입상 소감문은 청년의사 신문 제105호에 실렸으며, 저작권자(청년의사 신문)의 허락 하에 본지에도 전재하여 실었다.

한동대 선린병원 의료선교



한동대학교 선린병원이 후원하고 직원선교회에서 주최한 2001년도 중국 단동 의료선교를 지난 8월 14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의료선교는 배효근 병원장과 이번 의료선교단의 단장을 맡은 송국현 선교회장을 비롯한 23명이 참가하여 지난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단동시 단동병원(CMWM)에서 주변 현지주민들 500여명에게 사랑의 인술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의료선교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등이 참가하여, 진료환자수(연인원)는 내과 240명, 일반외과 130명, 산부인과 49명, 치과 45명이었으며, 치과는 현지 병원시설이 좋아 진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별히 진료 외에도 물리치료, 이발, 놀이방을 운영하였으며, 놀이방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풍선놀이,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페이스페인팅,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본 병원의 이번 의료선교는 단동병원이 개원한 후 병원 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무료진료로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으며, 진료가 진행되는 동안 너무 많은 현지주민들이 몰려와 준비해간 선물과 약품이 부족하여 찾아오는 모든 주민들에게 진료를 다 해 줄 수 없었던 점과, 중국 정부정책으로 인해 선교보다 의료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다는 점에 참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병원장 배효근(내과장), 단장(선교회장) 송국현(일반외과장), 홍순도(산부인과장), 공병구(소아과장), 이정민(치과장), 이승현(선린대학 교목), 박진숙(약사), 김화겸(물리치료실장), 이명희(수간호사), 이명기(수간호사), 이병구(시설관리팀), 김은정(간호사), 양충효(간호사), 권선희(간호사), 김정자(간호사), 이정희, 김수향, 박한라, 이예은

상주적십자병원 무료진료

상주적십자병원(원장·김원기)이 지난 한해 동안 공공보건의료사업, 저소득층 의료지원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1억여원 상당의 무료진료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적십자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예산 8천 770만원을 확보, 읍·면·동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 1천 647명에게 무료진료를 했다.

또 적십자사 여성봉사 특별 의료지원비 600만원 등 1천 600만원으로 관내 홀로 사는 노인과 저소득층, 외국인 등 52명에게 무료진료를 해줬다.

포항의료원 경영평가 전국1위

최근 포항의료원이 전국 33개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지난 1월 30일 행자부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포항의료원은 1997년 1억 7천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등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으나 대장항문, 인공관절분야등의 특수클리닉을 개설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경영혁신을 통해 1998년 8억 2천 500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4년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변승열원장은 "책임경영 사업운영, 진료환경 분야등 모든 분야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아 전국 1등 의료원으로 선정된것도 기쁘지만 평가단의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더 큰 자랑이라고 꼽았고" 15명의 의료진(전문의)과 200여명의 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 359개 병상의 이용율이 100%를 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향후 5년안에 본관 건물을 개축하고 120병상 규모의 노인병동 및 장애자 재활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천의료원 지난 8월 첫 흑자

김천의료원이 지난해 8월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 정상화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김천의료원은 2000년에 17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만성 적자에 시달렸으나 지난 5월 송달효씨를 새원장으로 맞은 뒤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의료원은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고 접수 창구, 주차장, 식당 등의 환경 개선, 도우미와 홍보팀 운영 등으로 「친절하고 다시 찾고 싶은 병원」만들기에 주력해 왔다.

또 최신형 MRI · 체외충격쇄석기 등 신형 의료장비를 확충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 비해 외래환자는 8% 늘고 병상 가동률이 98%에 이르러 처음으로 흑자까지 기록하게 됐다.

하지만 그 동안의 누적 부채가 37억원이나 돼 자금 사정을 감안해 경북도청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송 원장은 「의료비 회임 기간이 5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자립 재정의 기초가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최초 오목가슴 교정술 성공

포항기독병원(원장·한동선)이 경북지역병원 최초로 오목가슴(누두흉, 함몰흉) 교정수술을 성공해 지역 오목가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포항기독병원 흉부외과 윤경찬 과장은 오목가슴 교정술을 너스수술법이란 새로운 수술법을 적용해 가슴외측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함몰된 흉골 밑으로 활처럼 휜 금속을 집어넣어 함몰된 가슴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시술에 성공했다.

기존의 오목가슴 수술법은 라비치수술법과 와다수술법이 있고 라비치수술법은 가슴 전면부를 절개해 함몰된 늑연골을 모두 절개한 후 흉골 밑에 가는 금속을 넣어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절개 흉터가 크고 드물게 재발도 된다.

또 와다수술법은 전면부를 절개해 함몰된 늑연골을 제거한 후 거꾸로 뒤집는 방법으로 흉터가 남고 드물게 혈류 공급차단으로 조직괴사가 발생하는 합병증이 있었다.

반면에 기독병원이 성공한 너스수술법을 이용한 오목가슴 교정술은 흉터없이 교정이 가능하다.

시군총회 최대현안은 「의약분업」 철폐

지난해와 금년도 시군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의료계가 풀어 나가야할 최대현안은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와 의사 노예화를 위한 개악 의료법 저지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감염성 폐기물 관련업무 간소화
– 포항시의사회 –



지난 2월 25일(월) 오후 6시 30분 귀빈뷔페 5층에서 열린 포항시의사회 2002년도 정기총회에서 이원기 현회장(이원기외과의원장)을 유임시키고 최근 의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약분업철폐와 감염성 폐기물 관련업무 간소화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1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인 후 2002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1억 3천 50만원의 예산안을 원안통과시키고 의안토의에서는 의원 단독정화조 규정완화, 감염성 폐기물 관련업무 간소화,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면제등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회칙개정에서는 임원선출시 업무를 담당하는 후보등록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과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치 않은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명문화 했다.

〈 임원명단 〉

- 회　　장 = 이원기(이원기외과의원)
- 부 회 장 = 오세진, 한동선, 김남주
- 기획이사 = 전　민　• 학술이사 = 장석범
- 재무이사 = 최영관　• 법제이사 = 김형근
- 의무이사 = 문신길　• 보험이사 = 김　익
- 공보이사 = 송국현　• 정보이사 = 하달봉
- 이　　사 = 구회덕, 정유진, 백애란, 정상윤, 장혜성, 하덕기, 김원태, 박재흠, 성승모,정재봉
- 감　　사 = 문영길, 김창규

지역이사제 도입 회칙개정
– 경주시의사회 –



지난 2월 15일(금) 오후 7시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경주시의사회 2002년도 정기총회에서 백승인회원(백승인소아과의원장)을 새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 증원과 지역이사제 신설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회칙 일부를 개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1년도 주요회무 보고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5천 1백여만원의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했다.

의안토의에서는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와 개악 의료법 국회 통과 저지, 처방전 1매 발행 및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의무화, 차등진찰료(가나다군) 철폐, 고가약처방시 진료비 삭감등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 임원명단 〉

- 상임고문 = 권창운(권내과의원)
- 회　　장 = 백승인(백승인소아과의원)
- 부 회 장 = 정필현, 서보완, 김진호, 이봉구, 조현숙
- 기획이사 = 천종욱　• 재무이사 = 최길선
- 법제이사 = 황병욱　• 보험이사 = 강준오
- 의무이사 = 조경래　• 정보이사 = 오진석
- 환경이사 = 도　황　• 학술이사 = 심재철
- 홍보이사 = 이홍우　• 여 이 사 = 김선용
- 이　사 = 김종원, 김영길, 마도훈, 이진표, 이운우
- 감　사 = 송재섭, 이영현
- 지역이사 = 백영수, 이길호, 임지훈, 손형석, 도　황, 조경래, 김종원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촉구
– 김천시의사회 –

지난 2월 19일(화) 오후 7시 원대복집에서 열린 김천시의사회 2002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의약분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의료제도 개선 등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1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에 이어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키고 의안토의에서는 의료계의 최대 현안인 현행 의약분업 철폐와 의료보험 관련제도 개선,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의료행위 규제, 의료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세대책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의협의료정책연구소 활성화
– 구미시의사회 –



지난 2월 26일(화) 오후 7시 목화웨딩에서 개최된 구미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김종국회원(경북정형외과의원장)을 새회장으로 선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의안토의에서는 현행 의약분업철폐, 불법과대광고 근절대책과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 국건투 및 정치세력화등 3대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의사협회 발전 성금을 납부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임원명단 〉

- 회　장 = 김종국(경북정형외과의원)
- 부회장 = 장의현, 김동욱

• 감　사 = 이정수, 김계욱
• 기획이사 = 조충래　• 재무이사 = 김도권
• 법제이사 = 박종근　• 학술이사 = 임한혁
• 의무이사 = 김기열　• 보험이사 = 곽은수
• 공보이사 = 김병국　• 정보이사 = 안수호
• 이　사 = 신재학, 정정표, 이정수, 이상식, 김두환, 이용원, 나중호

당면한 의료현안 중점 논의
– 안동시의사회 –

지난해 12월 10일(월) 오후 7시 두리원웨딩홀에서 개최된 안동시의사회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는 권오일회원(중앙산부인과의원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최근 의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패한 의약분업 재검토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1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에 이은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원안 확정하고 의안토의에서는 의료보험 진료비 부당삭감, 의사들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개악 의료법의 부당성, 실패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비학문적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방안등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 임원명단 〉
• 회　장 = 권오일(중앙산부인과의원)
• 부 회 장 = 문종세, 이미숙
• 기획이사 = 최경수　• 재무이사 = 장완섭
• 법제이사 = 이기혁　• 홍보이사 = 김경목
• 학술이사 = 박무영　• 보험이사 = 장성진
• 이　사 = 김재왕, 윤태권, 김도형, 유동명, 신현수, 김무룡, 강원희
• 감　사 = 최헌욱　• 윤리위원장 = 권세홍

의료분쟁조정법 조속 제정촉구
– 영주시의사회 –

지난해 12월 14일(금) 개최된 영주시의사회 2001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조영호회원(조정형외과의원장)을 새회장으로 선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할것과 의료기관 감염성 폐기물처리대장 간소화, 의료기관 소득세율 인하, 처방전 1매 및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줄것을 건의키로 했다.

〈 임원명단 〉
• 회　장 = 조영호(조정형외과의원)
• 부 회 장 = 이기훈(이기훈정형외과의원)
• 총　무 = 노진우(노외과의원)

"의약분업 철폐"강력추진
– 영천시의사회 –



지난 2월 27일(수) 오후 7시 둥굴가든에서 열린 영천시의사회 2002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최근 의료계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에 대

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1년도 주요회무 및 결산보고에 이어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원안통과 시키고 의안토의에서는 의약분업 대책과 의료보험 관련제도 개선등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

그리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보험수가 2.9%인하 조치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기관 조세대책등 논의
- 상주시의사회 -

지난 1월 21일(월) 오후 7시 신라가든에서 개최된 상주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김 량회원(가톨릭정형외과의원장)을 새회장으로 선출하고 1.27 전국의사 결의대회에 전회원이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1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2002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하고, 의안토의에서는 의료기관 세율인하 대책의 일환으로 세법상의 지출경비 인정범위를 확대할수 있는 항목 개발과 최근 정부에서 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시키고 있음을 개탄하고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현행 의약분업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중앙회 차원의 대응책을 촉구키로 했다.

〈 임원명단 〉

- 회　장 = 김　량(가톨릭정형외과의원)
- 총　무 = 서동혁(서동혁제통의원)

의료관련 제도 개선건의
- 문경시의사회 -



지난 2월 14일(목) 오후 7시 영흥반점에서 개최된 문경시의사회 2002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그간의 회무보고와 결산보고에 이어 2002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후, 의안토의에서는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 전문과목별 의료기관 종별 형평성 수가체계 개선과 차등수가제 철폐, 진료비 지연지급에 대한 대책, 의료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세대책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개악의료법 국회통과 반대
- 경산시의사회 -

지난해 12월 14일(금) 오후 7시 대보식당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주요회무보고와 결산보고에 이어 의안토의에서는 의사의 기본권마저 유린하는 개악 의료법 국회통과 저지,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의약분업 감시단 활성화와 처방전 1매 및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의무화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변영우 회장 동정

< '2001 관 내 출 장 >

3. 2.	경북의사회보 편집위원회개최	대구
3. 3.	시군의사회장 회의 및 이사회	대구
3. 10.	의쟁투 중앙위원 경주회의	경주
	2000년도 본회 회무감사	대구
3. 16.	칠곡군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칠곡
	강재섭 국회의원 후원회 참석	대구
3. 19.	군의관 입소식 행사 참석	영천
3. 20.	본회 3월 상임이사회 개최	경주
3. 21.	영덕, 울진, 예천회장 방문	지역
3. 21.	군위 김정병회원 별세 문상	군위
3. 29.	본회 제50차 정기총회 개최	경주
4. 7.	제29회 보건의날 행사 참석	칠곡
4. 11.	계명대 김인홍교수 영결식 참석	대구
4. 13.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회의	대구
4. 14.	본회 윤리위원회 개최	대구
4. 17.	경북도 의사채용 인사위(김천)	대구
4. 26.	경북도 의사채용 인사위(김천)	대구
4. 29.	제5회 포항시의사의날 참석	포항
5. 2.	난치병 어린이돕기행사 참석	경주
5. 4.	본회 5월 상임이사회 개최	경주
5. 8.	대구지방국세청 세무간담회	대구
5. 9.	경북체육회 재정위원회 참석	경산
5. 15.	대구시의사회 자선음악회 참석	대구
5. 18.	경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	구미
5. 22.	대구지방식의약청 간담회	대구
5. 25.	대구지방식의약청 기공식	대구
5. 26.	2001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경주
5. 27.	제23회 경북의학제 개최	경주
5. 29.	한나라당 경북지부 후원회	대구
5. 30.	양규환 식의약청장 간담회	경주
6. 9.	의협 김세곤공보이사 간담회	대구
6. 16.	경북도 의사채용 인사위(포항)	대구
6. 21.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회의	대구
6. 25.	경북도 의사채용 인사위(안동)	대구
6. 26.	경북도 119구급대 회의 참석	경주
6. 27.	포항시의사회 회원 결의대회	포항
6. 28.	안동시의사회 회원 결의대회	안동
	안동 박무철회원 은퇴식 참석	안동
6. 29.	TBC 무료개안수술 회의 참석	대구
6. 30.	정만진 영천로타리회장 취임식	영천
7. 2.	TBC 무료개안수술 관계회의	대구
7. 9.	복지부 신언창 정책실장 회의	대구
7. 21.	본회 7월 상임이사회 개최	대구
8. 1.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회	대구
8. 3.	안윤식 경북도부지사 간담회	경주
8. 7.	TBC 문화재단초청 간담회	대구
8. 16.	경주경찰서 순직경찰관 영결식	경주
8. 17.	월드컵 국회의원 축구친선경기	경주
8. 18.	포항의사회 임시총회 참석	포항
8. 21.	TBC 열린아침 생방송 출연	대구
8. 23.	본회 8월 상임이사회 개최	경주
8. 29.	신상진 전 의쟁투 위원장 회의	경주
9. 6.	경북도 콜레라 방역 대책회의	대구
9. 7.	새천년민주당 경북지부 후원회	대구
9. 20.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참석	대구
9. 28.	본회 경주지청과 간담회 개최	경주
10. 5.	세계유교문화 축제행사 참석	안동
10. 11.	신상진 전 의쟁투위원장 회의	경주
	TBC 생방 전야간담회 참석	대구
10. 12.	심사평가원 대구지원회의	경주
	TBC 무료개안수술 생방송 출연	대구
10. 14.	대구시의사의날 행사 참석	대구
10. 20.	보건복지부 이기호차관 간담회	대구
10. 24.	본회 10월 상임이사회 개최	경주
10. 28.	안동시의사회 단합대회 참석	경주
10. 31.	제1차 회보편집위원회 개최	대구
11. 7.	경상북도 보사환경국장회의	대구
11. 18.	본회 추계종합학술대회 개최	대구
11. 21.	제2차 회보편집위원회 개최	대구
11. 22.	김대중 대통령초청 오찬 참석	대구
11. 30.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회	대구
12. 1.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개최	대구
12. 4.	신년호 특집좌담회 개최	경주
12. 6.	김원길 복지부장관 간담회	경주
	김천 배종호회원 별세 문상	김천

12. 9.	이의근 경북지사 간담회 참석	경주
12.10.	안동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안동
12.13.	연말 이웃돕기 자선음악회	구미
12.14.	경산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경산
12.20.	제3차 회보편집위원회 개최	대구
12.21.	경북도 119구급대 회의	경산
12.22.	시군의사회 비상총회 참석	포항
12.27.	본회 12월 상임이사회 개최	경주
12.28.	경주시의사회 단합대회 참석	경주
12.30.	경상북도 보사환경국장 회의	대구

'2002

1. 4.	포항시의사회 신년교례회	포항
1.12.	본회 시군직원 연수회	경주
1.17.	경북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대구
1.18.	대구지방국세청 간담회	대구
〃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시회의	대구
1.21.	상주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상주
1.29.	구미 정지영회원 별세문상	대구
2. 5.	본회 2월 상임이사회 개최	경주
2.14.	문경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문경
2.15.	경주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경주
〃	경북체육회 이사회 참석	대구
2.18.	동국의대 졸업식 시상	경주
2.19.	김천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김천
〃	제4차 회보편집위원회 개최	대구
2.25.	포항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포항
2.27.	영천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영천

< '2001 관 외 출 장 >

3. 8.	의협 시도의사회장 회의 참석	서울
3.25.	의협 시도의사회장 회의 참석	서울
4. 1.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4.15.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4.19.	전국 시군구대표자회의 참석	서울
4.22.	의협 법정관분과위원회 참석	서울
4.28.	의협 53차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서울
5. 3.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5.12.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5.19.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참석	서울
5.22.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5.25.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6. 3.	실패한 의약분업 규탄결의대회	과천
6. 7.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6.14.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6.18.	영남권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부산
6.20.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6.24.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참석	서울
6.29.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참석	서울
7. 8.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참석	서울
7.13.	유성희 전 · 의협회장 별세 조문	서울
7.14.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참석	서울
7.17.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참석	서울
7.28.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참석	서울
8.14.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8.21.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참석	서울
9. 1.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참석	서울
9. 8.	전국 시군구대표자회의 참석	천안
9.15.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광주
10.27.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11. 3.	의협 대의원회 세미나 참석	광주
11. 9.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11.10.	제16회 영호남 의사친선행사	무주
11.15.	의협 93주년 기념행사 참석	서울
	신상진 의협회장 취임식 참석	서울
12.19.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12.23.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12.29.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2002

1. 5.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참석	서울
1.12.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1.27.	전국의사 결의대회 참석	서울
1.31.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서울
〃	의협 국건투 회의 참석	서울
2.16.	의협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전주
2.22.	박헌기 법사위원장 면담	서울
2.25.	의협 국건투 회의 참석	서울
2.26.	의협 국건투 회의 참석	서울

윤리위원장에 신은식씨



경상북도의사회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신은식회원(포항.신정형외과)을 지난 4월 14일 위촉했다.

신은식위원장은 94년부터 6년간 본회 36, 37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협 감사직을 맡고 있다.

김천의료원장 송달효씨



경상북도는 지방공사 김천의료원장에 송달효씨를 지난 5월 8일자로 임명 발령했다.

송달효원장은 65년 경북의대를 졸업, 대구에서 성가의원을 개설해오다 85년 대구적십자혈액원장과 98년 상주적십자병원장을 역임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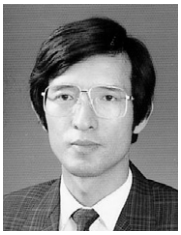
포항의료원장 변승열씨



경상북도는 지방공사 포항의료원장에 변승열씨를 지난 6월 25일자로 임명발령했다.

신임 변승열원장은 67년 경북의대를 졸업, 포항에서 변승열신경외과를 개설해오면서 97년부터 2년간 포항시의사회장을 역임했었다.

결협지부 운영위원추천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운영위원에 본회에서는 손병욱회원(경산.손병욱내과의원)을 추천했다.

대구·경북지부 규정 제16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청송보건의료원장 남시현씨



남시현회원이 지난 7월 3일자로 청송군보건의료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남시현 신임원장은 88년 경북의대 졸업,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96년 포항성모병원 예방의학과장으로 봉직해 왔었다.

의협 자보대책위 참석



지난 5월 23일 의협에서 개최된 자동차보험위원회에 본회에서는 권영철회원(포항.권영철정형외과의원)이 참석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한 제반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되었다.

대한의사협회장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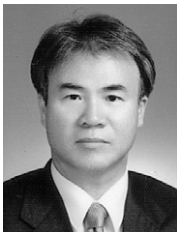




본회 정만진기획이사(영천.정만진소아과)와 이웅렬회원(문경.이웅렬이비인후과)이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정만진기획이사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의협 제53차 대의원총회에서 이웅렬회원은 3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본회 제50차 대의원총회에서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대한의사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녹조근조훈장 수상



경상북도 보건위생과 김태웅 과장은 12월 6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 방역사업 평가대회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지난해 8월 영천 콜레라 발생 때 적극적인 전염병 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훈장을 받게 되었다.

천근수 회원 바둑우승



포항 KCB방송이 마련한 제1회 KCB사장배 16강 초청바둑대회에서 천근수회원(포항기독병원)이 의료인으로서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포항지역 아마 바둑계의 최강을 가리는 이번 바둑대회는 지난 9월 부터 개막되었으며 지역 바둑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가운데 3개월간 열렸었다.

르완다에서 의료봉사



이규인회원(전·이규인산부인과원장.경산)은 2001년 10월부터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 르완다 Gitarama의 Remera Rucoma Hospital에서 슈바이처의 후예로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인회원은 이웃 사랑회의 일원으로 파견되었다.

그곳 생활에 필요한 지원외에는 일체의 임금을 받지 않는 순수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봉사 기간은 1년이다.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병원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AIDS와 내전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인류를 위한 봉사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E-Mail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회의 많은 회원들이 위로의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GITARAMA BP 47, RWANDA. REMERA RUCOMA HOSPITAL
전 화 : 250-562605
Mobil : 08409774
E-mail : kilee49@hotmail.com

시군의사회 신임 회장



이 원 기
(포항회장 연임)



백 승 인
(경주회장 신임)



권 오 일
(안동회장 신임)



김 종 국
(구미회장 신임)



조 영 호
(영주회장 신임)



김 량
(상주회장 신임)



김 상 관
(칠곡회장 신임)



백 승 기
(예천회장 신임)



김 신 일
(울진회장 신임)

김정병회원 별세



김정병회원(군위.성누가의원)이 지난해 3월 20일 향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김정병회원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군의관으로 임관하여 50년 육군대위로 전역 86년 군위읍 서부리 390 소재에 성누가의원을 개설해 오면서 군위군의사회장직을 다년간 맡아왔으며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다.

배종호회원 별세



배종호회원(김천.배종호의원)이 지난해 12월 7일 향년 6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배종호회원은 60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후 김천도립병원에서 봉직해오다 1973년 김천시 평화동 275-13번지 소재에 배종호의원을 개설해오면서 시민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 해 왔었다.

원유흥회원 별세



원유흥회원(동국의대 경주병원 마취과)이 지난해 6월 2일 향년 4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원유흥회원은 80년 경북의대를 졸업 군의관으로 임관하여 84년 공군대위로 예편한후 경북대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96년부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 교수로 재직해오면서 후진양성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었다.

정지영회원 별세



정지영회원(구미.선산의원)이 지난 1월 28일 향년 6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정지영회원은 61년 경북의대를 졸업한 후 구미시 선산읍 동부동 312-9번지 소재에 선산의원을 개설해 선산군의사회장직을 다년간 역임해오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최석봉회원 별세



최석봉회원(경주.진성의원)이 지난해 6월 11일 향년 6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최석봉회원은 77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순천향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경주시 노동동 14번지 소재에 진성의원을 개설해 시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이바지 해 왔었다.

投稿를 환영합니다

경북의사회보는 회원여러분의 대변지일뿐만 아니라 회원여러분의 公器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투고와 성원을 바랍니다.

* 매수 제한 없음 *

보낼곳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404-4

경북의사회보 편집부

TEL (053) 941-7785

FAX 941-5557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의료관련 사이트 안내

회원여러분의 보다 많은 정보습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료관련 사이트를 안내하오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에서는 앞으로 의료보험 업무를 비롯한 공지사항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kmaweb) 지역의사회 「**경북**」 방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NO	사 이 트	주 내 용
1	대한의사협회(www.kma.org)	의협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2	의협회원공간(www.kmaweb.org)	의협에서 운영하는 회원공간
3	대한의학회(www.kams.or.kr)	학회관련 사이트
4	메디게이트(www.medigate.net)	국내 최대의 의사, 의료 네트워크
5	닥트플라자(www.drplaza.org)	약 1만여명의 가입된 의사들만의 공간
6	민주의사회(www.drminju.or.kr)	의료인프라를 위해 의사들이 만든 모임
7	의학전자도서관(library.medric.or.kr)	국내외 의학 데이타베이스, 온라인 저널
8	한국의학도서관(www.medunion.snu.ac.kr)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술 잡지
9	PubMed(www.ncbi.nlm.nih.gov/PubMed)	가장 유명한 메드라인접속 사이트
10	의학연구정보센터(www.medric.or.kr)	의학분야 정보 수집, 개발, 보급
11	청년의사(www.fromdoctor.com)	웹 서비스, 의료, 보건 관련된 뉴스
12	메디칼 옵저버(www.medicalobserver.co.kr)	의료정보 관련 섹션신문
13	데일리메디(www.dailymedi.com)	국내외 의약 관련 뉴스
14	데일리 팜(www.dreamdrug.com)	국내외 의약 관련 뉴스
15	MEDICALVS(www.medicalvs.net)	인터넷 이용 슬라이드, 비디오 보급
16	HNF(www.hnfshop.co.kr)	인력, 장비, 의약품, 소모품판매
17	메디뱅크(www.medibank.co.kr)	의료인력 구인, 구직

NO	사 이 트	주 내 용
18	유메디칼스(www.umedicals.com)	중고 의료장비 전문중개 및 판매
19	메드마크(www.medmark.org)	각과별 링크 및 메드라인 연결 사이트
20	세계각국의사회링크(www.medidoctor.net)	
21	보건복지부(www.mohw.go.kr)	
22	건강관리공단(www.e-health.or.kr)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www.kihasa.re.kr)	보건의료, 사회복지 관련 정책 연구
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자료실(www.healthonline.co.kr)	보건산업, 보건서비스 관련 정보
26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15명) 홈페이지	
	전용원(한나라당) www.junyw.pe.kr	경기(구리)
	고진부(민주당)	서귀포(남제주군)
	김명섭(민주당) www.kimmyungsup.or.kr	서울.영등포(갑)
	김찬우(한나라당)	경북(청송,영양,영덕)
	김태홍(민주당) www.taehong.or.kr	광주.북구(을)
	박시균(한나라당) www.parksk.or.kr	경북(영주)
	박혁규(한나라당) www.parkhyukkyu.net	경기(광주)
	손희정(한나라당)	전국구
	심재철(한나라당) www.watizen.pe.kr	경기.안양(동안)
	윤여준(한나라당) www.yoonyj.net	전국구
	이상수(민주당) www.sslee.or.kr	서울.중랑(갑)
	이원형(한나라당) www.round21.pe.kr	전국구
	이인제(민주당) www.ijnet.or.kr	충남(논산,금산)
	최영희(민주당) www.woman-power.or.kr	전국구
	이한동(민주당) www.leehandong.or.kr	경기(연천,포천)

성 명 서

제 50차 경북의사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보험재정 파탄과 의약분업 실패의 모든 책임이 마치 의사들의 잘못인양 호도되는 현 상황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아울러 강력히 대처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 다 음 -

1. 정부와 어용 언론 및 시민 단체는 국민과 의료계를 이간시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2. 보험재정 파탄과 의약분업 실패는 우리가 그렇게도 주장했던 시범사업을 생략한 체 전 국민을 상대로 실험에 들어간 준비안된 의약분업과 잘못된 보험제도 때문임을 밝히는 바이다.
3. 향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입안시에는 올바른 예측을 한 대한의사협회의 전문가적인 견해를 대폭 수용하라.
4. 약사들의 권익과 어용 시민단체에 끌려 다니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5.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액진료비 본인 부담제, 의료비 저축제도, 차등 수가제, 의보수가 인하등의 임시 방편적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한다.
6.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수진자 조회를 즉각 중단하라.

2001. 3. 29

경 상 북 도 의 사 회 대 의 원 일 동

대정부성명서

불완전한 보험제도, 준비안된 의약분업, 무리한 의보통합 등 총체적 의료정책의 실패로 보험재정의 파탄을 가져온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로지 그 책임을 전가 하기 위해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해방이후 낙후된 의료를 발전시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 정책으로 오로지 희생과 봉사를 해온 의사들을 더 이상 매도하는 술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의사들은 참 의료를 통하여 국민건강향상에 매진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정책이 실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천명한다.

– 다　　음 –

– 정부는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낮은 의료보험요율, 선심성 보험급여 확대, 주먹구구식 공단 통합등임을 솔직히 국민에게 공개하라.

– 정부는 저수가의 왜곡된 의료보험제도하에 희생만 강요당한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모든 왜곡 보도를 중단하라.

–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입안자를 처벌하라.

–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의료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고, 의료정책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 정부는 모든 의료정책을 조급히 실행하지 말고 먼 장래를 보고 수립할 것이며 의료의 주체인 의료계와 함께 하라.

– 이상의 주장이 무시되고 정부 정책 실패의 국면전환을 위하여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부당한 의사죽이기 작전이 계속되는 경우 의업을 포기할 마음으로 끝가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1. 4. 13

경 상 북 도 의 사 회

6·3 경북회원에 드리는 호소문

경상북도의사회장 변 영 우

진료실 창 넘어, 5월말의 산과 들에 녹음을 싱그럽게 풀어 놓아, 한줌 움켜지면 초록의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신록의 초하(初夏)입니다.

지난해 우리들은 일치단결 하여, 힘겹고 긴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도 하였습니다. 불만스럽게 시작된 의약분업이었지만 그래도 지난해의 악몽을 잊고, 다시 차분한 의사의 자세로돌아와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진료를 하여 왔습니다.

평온이 오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깐의 적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예상했던 보험재정 파탄이라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돌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밖에는 아름답고 싱그러운 초여름이 왔건만, 우리의사들의 마음속엔 찬 서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대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4조이상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우리들이 경고한 사실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정부는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찾았고,마침내 만만한 우리 의사들을 지목하게 되었고, 그 방법은 허위 부당청구라는 죄명을 덮어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하여 전 국민을 현혹시켜 우리 의사들을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허위부당청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도 웃을 터무니없는 사실들뿐 입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아이들과 9시 뉴스를 보면서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허위청구로 도둑질하는 좀도둑이 되어야 했습니다.

전 국민이 우리를 고발하는 현상 붙은 범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범한 정부의 잘못을 우리 의사들이 희생의 재물이 되어 죄를 뒤집어 쓸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앞에서는 의약정 협의를 하면서, 뒤에서는 부당청구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시키는 의사를 죽이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앞에서는 절대로 의료숫가 인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를 하루에 80명이상 보는 경우는 진찰료를 삭감하고, 약국에서 낱알판매를 할 수 있게 하고, 만성질환의 경우에 한번 끊은 처방전은 반복 사용하게 하고,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겠다는 악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진료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절대로 의료숫가를 다시 인하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장관의 약속입니까?

회원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무거운 세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는 과연 지난해 힘겨운 투쟁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회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희롱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매도당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지난해처럼 분연히 일어나야만 합니다.

회원 여러분!

자신의 안일을 위하여 비굴하게 굴욕을 참고 삼킬 것입니까?

전쟁터로 떠나는 전우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비굴하게 뒤로 도망치시겠습니까?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살필 진정한 의권을 위하여, 우리의 진실을 위하여, 지난해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투구를 다시 꺼내쓰고, 말을 몰아, 새로이 전쟁을시작 해야만 합니다.

저 의사회장 변영우가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고 앞장 서 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똘똘 뭉쳐 투쟁 합시다.

우리 다 함께 6월 3일 과천 광장으로 모여, 그 동안 매도당하고, 허물어진 긍지와 자존심을 위하여 투쟁을 다시 시작합시다.

5월 마지막 일요일에

6·3 과천 의사 결의대회 연대사

경상북도의사회장 변 영 우

전국의 7만 의사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뙤약볕이 내려 쬐이는 과천 광장에 한마음 한뜻으로 꽉 메운 선후배 동료 의사 여러분.

어찌하여 의사들이 이 지경까지 되어 버렸는지를 생각하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울분으로 눈시울이 뜨거워 집니다.

누가! 왜! 평생 진료밖에 모르던 의사들을 이렇게 투쟁의 광장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DJ 정권입니까? 김원길 복지부 장관입니까?

우리는 지난해 일치단결 하여 힘겹고 긴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만족스러웠으나, 그래도 의사의 자세로 돌아와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진료를 하면서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 년간 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한 준비 안된 강제 의약분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대통령도 수차례 실패를 인정하였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명확한 실패를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의사에 전가하며, 악의적인 수단으로 의사를 탄압, 의사 노예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료의 의자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의료법을 개악을 시도하고, 복지부 장관은 앞에서 의약정 협의를 하면서 뒤에서는 의사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하는 짓입니까?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하여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을 일으킨 책임자를, 국정조사를 통하여 그 책임을 명명 백백하게 밝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케 한 책임자가 기껏 복지부 실무자 몇 명 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부는 작년 의료계의 강력한 의권 투쟁시, 대통령과 야당총재의 긴급회담, 이한동 국무총리 주제 하에서 관계 부처장관회의는 물론, 청와대와 고위 당정회의를 수 차례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또한 국무총리는 TV에 출현하여 의약분업 파행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책임질 사람이 실무과장 몇 사람 뿐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이정권을 이끌어 가는 정치가들의 윤리이고 도덕성 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 보완, 후 실시를 외쳤습니다만, 준비 안된 의약분업은 강제로 실시되었고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또 의보재정은 부도가 나 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보 재정 파탄 원인은 총체적인 의료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료보험 숫가 인상과 의사들의 허위, 부당청구에 기인한 것으로 몰아 부치며 의사를 도둑놈,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들은 허위, 부당청구를 상습적으로 하는 파렴치한 좀도둑이 되어,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집안 아이들과 9시 뉴스를 보면서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전 국민이 우리의사를 고발하는 현상 붙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7만 의사 여러분!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시키는 무지막지한 수진자 조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양식을 가진 정치인들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짓입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인술은 말할 것도 없고, 치료도 없습니다. 이 정부가 의료에 대해 기본적인 소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무식하고, 막가파식 정책을 시행하지는 못합니다.

정부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 어용언론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못된 행동을 서슴치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아야 합니까?

그러나 수진자 조회 결과 대한 민국 의사는 어느 직능, 직업군보다 더 양심적이었다는 것이 판명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비의 눈에는 선비가 보이고 도둑놈의 눈에는 모두가 도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 후배 의사 여러분!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부도난 의보재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십시오.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고유한 진료권을 침해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 편법과 땜질식 처방에 불과 합니다. 대책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의사 죽이기라 하는 게 옳은 표현입니다.

건실한 의료제도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도 없이, 모든 대책이 내년으로 다가온 선거를 의식하여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결국 건강보험자체가 붕괴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의사 죽이려는 정부의 대책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미 의약분업은 실패가 증명되었고 의보재정은 파탄이 나버렸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의사 죽이기에 불과합니다. 복지부의 대책들은 그들이 금과옥조같이 여기던 의약분업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으며, 졸속으로 시행한 의약분업은 정부에의해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현 의약분업은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더 편리하고, 의보재정 절감이 크게 기대되는 의약분업으로 전면 재검토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정치권과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업제도로서, 의료 선진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국민 선택분업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에게 조제 선택권을 주고, 1년간 약 2조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추정되는 국민선택분업으로 정책 전환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시범 실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사 회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희롱 당하거나, 매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의사노예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수술 칼을 다시 꺼내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깨끗이 도려 내는 투쟁을 시작합시다.

우리는 지난해처럼 분연히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예를 되찾고 땅에 떨어진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합시다.

우리 젊은 후배의사들이 마음놓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듭시다.

자랑스러운 젊은의사 여러분!

이제 흐트러진 의협을 다시 추스려 세우고 개혁해서 강한 의협을 만듭시다.

젊고 개혁적인 의사들에게 동원령을 내립시다.

그래서 새로운 투쟁군단을 만듭시다.

전쟁에는 전우애가 없으면 오직 패배 뿐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가슴 열고, 선·후배 손을 잡고 일치 단결합시다.

대동단결만이 우리들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방방곡곡 가뭄 이땅에 흠뻑 단비를 내려주소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복되게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복된 나라가 되는데, 의사들이 자기의 할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소서.

또 의사들이 신이나서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면서 즐겁게 이 일을 하게 해주소서.

모든 사람이 이 나라에서 꼭 살고 싶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천지신명이시여

2001. 6. 3

결 의 문

(영호남 의사친선행사에 즈음하여)

경북과 전북의 의사회 임원 일동은 제16회 영호남 의료인친선행사에 즈음하여, 변혁의 의료계와 의사들을 탄압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를 이간시키고, 의사들을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의료정책을 남발하는 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闡明)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전국의 7만 의사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의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연령 지역 직역간의 모든 갈등과 앙금을 일소하고, 의협의 깃발 아래 신임 직선 회장을 중심으로 대동단결 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어용 언론과 관변 시민단체를 이용한 여론 몰이식 의사 탄압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약제 적정성 평가, 무자비한 의료보험 청구비 삭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무리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아집에 사로잡힌 처방전 2매 발행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입법화 하라.
1. 전국의 7만 의사들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협회비를 100% 납부등 본연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완수하고, 의무 없는 곳에 권리도 없음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1. 의협과 병협은 작은 이익보다 의료계 전체를 위하여 서로 화합 단결하여 위기의 의료계를 구하는데 앞장서라.
1. 의협은 의료정책 연구소를 빠른시일내에 설치하고, 연구원 선발이나 의료정책 수립과정에 지역의사회 임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라.

2001년 11 월 10일

경 상 북 도 의 사 회
전 라 북 도 의 사 회

경북시군 (12.22)결의대회 투쟁사

경상북도의사회장 변 영 우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금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우리는 또 한번 배신과 분노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 정권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경북의사회는 오늘 이 시간부터 국민건강과 의료의 백년 대계를 위해, 의권을 위해 다시 한번 대정부 투쟁에 돌입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김대중정권은 이제 의사들의 손 발을 묶고 정권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의료 악법을 지난 12월 18일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번 통과된 의료법 개악안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에 중점을 두어 마땅히 보호되어 져야 할 의료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법은 전면 폐기 되어져야만 합니다.

또 정부는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파생된 재정 파탄을 의사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재정 보완을 위한 의료정책도 국민과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미봉책으로서, 우리 의료계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만 천하에 천명합니다.

정부는 보험재정 파탄 개선 명목으로, 의료계에 이미 1조원의 숫가 인하와 무차별한 진료비 삭감을 감행했습니다. 의사들의 정당한 환자 치료도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규제하고 있고,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을 받는 일반의약품도 국민들의 보험 혜택에서 제외시키겠답니다.

그리고 일반의약품 품목을 대폭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국민과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졸속 대응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직선 투표에 의해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선출 된 신상진 의협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악법임을 천명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해, 의사들을 위해, 제 한 몸 던져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12월 19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신상진 회장님의 단식 투쟁에 우리 경북의 모든 회원은 진심으로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신상진 회장과 함께 대동단결하여 투쟁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합니다.

지난 11월 18일 강남 성모병원 마리아 홀에서 신상진 의협 회장은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의사가 주최가 되는 의료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강한 의협을 만들기 위해 의협을 정치 세력화 하기로 했고, 또 모든 문제의 시발인 실패한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기로 선포했습니다.

의약분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와 정치 활동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이제 진정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능동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읍시다. 아니면 우리 의사들을 이해하고 대변 할 수 있는 정치가들을 후원하여 참여합시다.

실패한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남용도 막지 못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 났고, 국민들은 불편해 하고, 의료의 질은 떨어져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원형 국회의원 사이버 여론 조사에서 실패한 의약분업의 전면 폐지 주장이 90%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이 불편해 하지 않고 보험재정도 절감되면서, 의사들의 소신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의약분업의 틀을 다시 짭시다.

회원 여러분,

정말 우리 의협을 도우는데,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계신 경북의사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접 뽑은 신상진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따릅시다. 국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하기 전에 각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료법의 개악에 대해서 우리의 정당한 의견을 전달합시다.

투쟁에서 지면, 소신 있는 진료를 하는 의사는 모두 없어지고 정부가 시키는 데로 하는 노예의사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고,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22일



1·27 전국 의사결의 대회 연대사

경상북도의사회장 변 영 우

존경하는 전국의 7만 의사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장충체육관 안 밖을 가득 메운 선후배의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진료권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투쟁을 해 왔습니다만, 작금의 의료 현실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만 있습니다. 정부는 의약분업 실패의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의사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사 동지 여러분.

지금 이정권은 게이트가 열릴 때마다 썩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 상태에 빠져 버린 이정권은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연구 개선해 나갈 마음의 여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의약분업의 부작용과 건강보험재정 고갈 등 옆구리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임시 미봉책만 쓰다보니, 한국 의료의 백년대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의사를 부정한 놈, 파렴치범으로 몰아 붙이고, 국민과 의사 사이의 신뢰를 깨뜨려 버려야만 의사들을 마음대로 요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리도, 도덕도 없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지난 달 복지부 성적표 받아 보셨습니까. A학점입니까, C 학점 입니까. 이 정부는 환자를 진료 하는데 있어서도 의사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의사진료의 성적표까지 매기는 무지한 정권입니다.

의사들을 죽여야 의약분업이 산다는 과대망상의 정권입니다.

전국 의사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권 투쟁의 발상지인 여기, 이 장충 체육관에 왜 또다시 모였습니까?

부도덕하고, 무식하고, 과대망상에 빠진 이정권과 한판 겨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깁고 기워 누더기가 다 되어버린 괴물 같은 현행 잘못 된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의사들의 국민 기본권마저 제한하는 의료 악법을 반대하고,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 훼손 할 대로 훼손 된 의사들의 진료권을 되찾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옥도 두려워 하지 않고, 목숨 건 단식투쟁도 불사하는 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무장한 신상진 의협회장님과 신임 집행부가 정부를 상대로 용기 백배하여 투쟁 할 수 있고, 국민

들을 설득하여 확실히 성공 할 수 있도록, 우리 7만 회원들의 기와 힘을 듬뿍 실어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국 16개 시도회장단은 신상진 의협 회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강한 의협을 만들고, 의권 투쟁에 앞장 설 것을 굳게 결의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켜 봐 주십시오.

의사 동지 여러분.

신임 집행부는 의협이 진정한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의료정책 연구소를 만들고, 의협을 정치세력화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적,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연구인력과 수십,수백억의 목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가동 된다면 의사는 국민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의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 의료인 본래의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 합시다.

전국의 의사 여러분!

이제 휴식 그만 하시고, 잠에서 깨어 나십시오. 제 2의 투쟁을 알리는 기상 나팔이 힘차게 울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의료보험제도와 실패한 의약분업 때문에 신음하는 국민과 의료계를 그냥 지켜 보시겠습니까?

국민의 건강권 파괴와 의사들의 진료권 유린을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습니다. 힘없이 희롱 당하고 매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까?

우리는 지난해처럼 분연히 다시 일어 서야 합니다. 시들어 가는 투쟁의 불씨를 다시 한번 활짝 피웁시다.

국민건강 수호와 진료권 확보를 위하여, 실추된 의료계의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단결합시다. 우리 모두 투쟁의 선봉에 섭시다.

역사상 누구도 일구어 내지 못한 값진 승리를 쟁취해 냅시다.

"국민 건강권, 의사 진료권, 단합, 투쟁."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사들에게 주어진 화두이며, 역사적 소명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 1. 27.

결 의 문

"이 땅의 의사들은 더 이상 정부의 노예가 아니다!"

2000년 8월, 대한민국 의사들 속에서 '의사포기선언'이 유행처럼 번지던 것을 우리 의사들은 가슴 절절한 아픔으로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사들은 국민과 의사들만이 한국 의료 발전의 견인차이자 주체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연히 깨닫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의약분업 정책 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정 협의체 구성 등 제안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정치적 체면과 정권연장에만 집착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우리 의사들은 한국의료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정직하지 못한 권력과 일전을 각오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각오와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며, 우리 7만 의사는 대한 의사협회 직선 집행부와 의료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국민건강 수호 투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오늘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 우리의 행동결의 ▣

하나, 우리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와 각 지부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단결한다!

하나, 우리 의사들은 의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회적 봉사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하나, 우리는 진료실 게시판 운동 등 대국민 홍보 활동에 전력 투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주일에 1회씩 의사회 반모임에 출석하며, 지역단위 정치활동을 강화 한다!

하나, 우리는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천만인 서명작업'에 돌입한다!

하나,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의협이 제시한 300억 모으기'에 호응하여, 회비 완납과 성금 모금 운동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 의사들은, 현행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대한의협과 국민건강권 수호 투쟁 위원회의 투쟁지침에 따라, 향후 투쟁에 분연히 궐기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수행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1월 27일

대한의사협회 회원일동

결 의 문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의료계의 모든 문제와 갈등은 잘못된 의약분업을 강행한데 그 원인이 있다.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근원적 치료 정책은 뒤로한 체 의사 탄압정책으로 만회를 획책하고 있다. 부당한 진료비 삭감, 진찰료 차등 지급 그리고 해괴망측한 약품 적정성평가라는 정책까지 동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의료수가를 2.9% 인하하였다. 또한 논리에 맞지 않는 통계자료를 언론에 유포시켜 의사들을 매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도덕 불감증에 빠진 이정부는 도덕교과서에까지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올려놓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에 우리 경북의사회 시군의사회장과 이사 일동은 갈수록 악화되는 현 의료계의 위기 상황에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인내의 한계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직선 의협 집행부는 자신감을 갖고 현사태에 적극 대처해 주기바란다.
   아울러 의협의 전 회원들은 지나친 기대와 속발성 정책을 채근하지 말기 바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투쟁하기를 바란다.
2. 1,000만명 서명운동과 성금납부에 적극 동참한다.
   의협 사랑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의무를 다하는 것은 100% 회비납 부에서 시작됨을 전회원들이 명심해 주기 바란다.
3. 집단 이기주의의 표본으로 매도한 도덕교과서 문제는 의사들의 자존심과 환자와의 신뢰 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추호의 양보 없이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되기를 바란다.
4. 의료 수가 2.9% 인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부당한 진료비 삭감, 90일내 초진료 불인정, 약품 적정성평가서 발부, 일반약 품의 증가 등의 의료 탄압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5.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보다 더한 도덕교과서 왜곡, 금메달을 빼앗아간 빙상의 심판 보다 더 불공정한 의료 압박 정책이 계속되더라도, 전 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한다면 반드시 신뢰와 존경이 꽃피는 의료계의 봄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

2002. 3. 9.

경상북도의사회 시군회장 및 이사 일동

편 집 후 기

경북 의사회지는 우리 의사회의 기록이자 문예지입니다.

지난 1년간 수없이 행해졌던 업무와 행사 그리고 의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재정리하고, 아울러 시, 수필, 소설, 논문, 사진, 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우리 회원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문예지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바쁜 의료인의 생활 중에서도 뛰어난 필력을 자랑하시는 우리 회원들이 보내온 옥고를 대하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우리 의사회 지난 1년간의 기록을 재정리하고서는 이렇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가 하고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 하였습니다.

옥동자를 낳으려면 산고가 있듯이, 수많은 자료와 사진 그리고 기록들을 검토하여 적절히 취사 선택하고, 원고 청탁과 보내온 옥고를 편집하기 위하여 편집 위원들은 다섯 번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획으로 시작한 특집 좌담회는 지역별, 남녀 연령별, 직역별로 공정하게 패널을 선정하는 데서부터 세심한 배려를 하였고, 4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정리하니 원고지로 100매가 넘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으나 보람도 있었습니다.

좀 더 발전되고 알찬 회지를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와 편집 위원들은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막상 회원 여러분의 검증을 받을 시간이 되니 걱정이 앞섭니다.

행여 편집상의 미비한 점이 있거나, 저희 편집위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탈자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과 밤을 세워가며 편집을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출판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2월 편집위원 일동

(유동명, 정만진, 송재영, 문신길, 김재왕, 이경수)

경북의사회보 2002年 2月 第 26號

발 행 인 / 변 영 우
편 집 인 / 송 재 영
발 행 처 / **경상북도의사회** 702-824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TEL : (053) 941-7785
FAX : (053) 941-5557
인 쇄 처 / 선진종합인쇄 · 기획
TEL : (053) 555-3336

謹賀新年

浦項市醫師會	尙州市醫師會	淸道郡醫師會
會長 李 元 基	會長 金 良	會長 鄭 喆 熙
慶州市醫師會	聞慶市醫師會	高靈郡醫師會
會長 白 承 仁	會長 鄭 明 根	會長 白 斗 鉉
金泉市醫師會	慶山市醫師會	星州郡醫師會
會長 許 銘	會長 崔 正 圭	會長 成 夏 慶
安東市醫師會	軍威郡醫師會	漆谷郡醫師會
會長 權 五 一	會長 金 炳 坤	會長 金 尙 寬
龜尾市醫師會	義城郡醫師會	醴泉郡醫師會
會長 金 鍾 國	會長 金 一 煥	會長 白 承 基
榮州市醫師會	英陽郡醫師會	奉化郡醫師會
會長 曺 榮 浩	會長 權 寧 大	會長 張 明 準
永川市醫師會	盈德郡醫師會	蔚珍郡醫師會
會長 鄭 萬 鎭	會長 徐 昌 洙	會長 金 信 一

謹賀新年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